

#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 개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조영미, 장미혜, 김유나, 임현지



# 서울시 성인지지표(GSI) 평가 및 지수개발

연구책임자	조 영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유 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임 현 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I . 서론 ● 0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1) 지표 개발 및 평가 개요 ..... 3
  - 2) 지수화 및 지표체계 개선 ..... 4
- 2. 연구 방법 ..... 6
  -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 6
  -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 7
- 3. 연구 수행 절차 ..... 8
- 4. 기대 효과 ..... 8

II.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 양성평등 현황 ● 11

- 1. 성평등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 13
- 2. 서울시 성인지 지수 개발과정 ..... 16

### Ⅲ. 서울시 성인지표 국제 비교 ● 55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55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55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	58
3) 성별 평균임금비 .....	61
4) 성별 관리직 비율 .....	62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	64
6) 경제 세력화 영역 비교 .....	66
2.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	68
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	68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	69
3) 부부 가사노동시간 .....	70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73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	74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	74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75

## IV. 영역별 보완지표 ● 79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81
1)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 .....	82
2) 성별 관리직 비율 .....	84
3) 성별 비정규직 비율 .....	85
4)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86
5) 성별 주택보유율 .....	87
2.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	87
1)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	88
2)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	89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	91
1)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	92
2) 성별 장애인 등록률 .....	93
3)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 .....	93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97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	98
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100
3) 성별 건강검진율 .....	101
4)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103
5) 여성의 사회문화권 관련 지표 .....	104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	106
1)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106
2)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지표 .....	110
6. 소 결 .....	111

V. 결론 및 제언 ● 113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비교 .....	115
2. 서울시 성인지지표 보완 및 개선안 .....	117

참고문헌

## ● 표 목차

표 1-0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및 비교 집단(2007)	4
표 1-02	지표 영역 및 조사대상 전문가	7
표 2-01	2008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	18
표 2-02	성인지 지표에서 제외된 지표	20
표 2-03	성인지 지표에서 새로운 지표로 대체된 지표	20
표 2-04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21
표 2-05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23
표 2-0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5
표 2-07	성별 대졸자 취업률	25
표 2-08	성별 평균임금비	26
표 2-09	성별 관리직 비율	27
표 2-10	성별 정규직 비율	27
표 2-11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28
표 2-12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29
표 2-13	성별 주택보유율	29
표 2-14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31
표 2-15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32
표 2-16	성별 국민연금수급자 비율	32
표 2-17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33
표 2-18	성별 장애인 등록률	33
표 2-19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33
표 2-20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34
표 2-21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35
표 2-22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36
표 2-2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37
표 2-24	성별 건강검진률	37

표 2-25	광역의원 비율	39
표 2-26	성별 기초의원 비율	40
표 2-27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0
표 2-28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41
표 2-2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42
표 2-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42
표 2-31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4
표 2-32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5
표 2-33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6
표 2-34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7
표 2-35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48
표 2-36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49
표 2-37	연도별 지표값과 지표별·영역별 가중치	50
표 2-38	서울시 성인지 지수 및 각 영역별 지수의 연도별 변화	51
표 3-0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56
표 3-02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 (25세-64세)(2006)	58
표 3-03	OECD 국가 대졸이상 여성 고용율 및 성별격차(25세-64세)(2006)	60
표 3-04	OECD 성별 임금 차이(1996, 2006)	61
표 3-0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62
표 3-0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64
표 3-0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65
표 3-08	경제영역 GGG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67
표 3-09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율(6세 이하 아동 대상)(2004)	68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율(2005)	69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72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73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74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76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77
표 4-01	여성의 경제세력화 전문가 조사 결과	81
표 4-02	서울시 투자기관(공기업) 및 출연기관 인력 현황	84
표 4-03	비정규직 관련 지표 목록	85
표 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 연맹 및 산하조직의 조직현황(전국, 2007)	86
표 4-05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전문가 조사 결과	87
표 4-06	서울시 맞춤형 보육시설 현황	88
표 4-07	서울시 아동의 특수보육시설 이용률	89
표 4-08	서울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수(2007)	90
표 4-09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전문가 조사 결과	91
표 4-10	서울시 60세 이상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92
표 4-11	다문화 관련 사회 지표 목록	94
표 4-12	국제결혼의 처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96
표 4-13	국제결혼의 남편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96
표 4-14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 현황	97
표 4-1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전문가 조사 결과	97
표 4-16	서울시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99
표 4-17	서울시 주당 평균 신문읽기 시간	99
표 4-18	서울시 성별 유병률	100
표 4-19	서울시 성별 암 등록현황	101
표 4-20	서울시 성별 수진(진료) 현황	102
표 4-21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03
표 4-22	서울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103
표 4-23	서울시 성별 문화활동 연간 관람 횟수(2007)	104
표 4-24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105
표 4-25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요일평균)	105
표 4-2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문가 조사 결과	106

▮ 표 4-27 ▮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	107
▮ 표 4-28 ▮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	109
▮ 표 4-29 ▮	서울시위원회별 여성참여 비율 .....	110
▮ 표 4-30 ▮	서울시 성인지표 수정 보완(안) .....	111

## ● 그림 목차

〈그림 1-01〉	서울시 성인지표 지수 산출 및 지표 체계 개선안 도출 절차 .....	8
〈그림 2-01〉	지표 개발과정 흐름도 .....	17
〈그림 2-02〉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영역 변화 .....	21
〈그림 2-0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25
〈그림 2-04〉	성별 대졸자 취업률 .....	26
〈그림 2-05〉	성별 평균임금비 .....	26
〈그림 2-06〉	성별 관리직 비율 .....	27
〈그림 2-07〉	성별 정규직 비율 .....	28
〈그림 2-08〉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28
〈그림 2-09〉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29
〈그림 2-10〉	성별 주택보유율 .....	30
〈그림 2-11〉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	30
〈그림 2-12〉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	31
〈그림 2-13〉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	32
〈그림 2-14〉	성별 국민연금수입자 비율 .....	32
〈그림 2-15〉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	33
〈그림 2-16〉	성별 장애인 등록률 .....	34
〈그림 2-17〉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	34
〈그림 2-18〉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	35
〈그림 2-19〉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	36

〈그림 2-20〉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	36
〈그림 2-21〉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	37
〈그림 2-2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37
〈그림 2-23〉	성별 건강검진률 .....	38
〈그림 2-2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	38
〈그림 2-25〉	성별 광역의원 비율 .....	39
〈그림 2-26〉	성별 기초의원 비율 .....	40
〈그림 2-27〉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41
〈그림 2-28〉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41
〈그림 2-2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	42
〈그림 2-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	42
〈그림 2-31〉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성평등 지표값(여성/남성, 남성 1기준) ...	43
〈그림 2-32〉	전체 서울시 성인지 지수 .....	51
〈그림 2-33〉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인지 지수 .....	52
〈그림 2-34〉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	52
〈그림 2-3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인지 지수성인지 지수 .....	52
〈그림 2-3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	52
〈그림 3-01〉	서울시, 한국, OECD 국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	57
〈그림 3-0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	57
〈그림 3-03〉	여성 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	59
〈그림 3-04〉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7),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	60
〈그림 3-05〉	서울시·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비교(2006) .....	62
〈그림 3-06〉	OECD 국가별 여성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	65
〈그림 3-0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6) .....	66
〈그림 3-08〉	GGG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	67
〈그림 3-09〉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	70
〈그림 3-10〉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2007) .....	75
〈그림 3-11〉	GGG 국가별 정치 영역 참여 지수 .....	77

〈그림 4-01〉 서울시 성별 취업률 .....	83
〈그림 4-02〉 서울시 연령별 남성 취업률 .....	83
〈그림 4-03〉 서울시 연령별 여성 취업률 .....	83
〈그림 4-04〉 서울시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2007) .....	90
〈그림 4-05〉 서울시 육아휴직자 수 대비 대체인력 수급자 수(2007) .....	90
〈그림 4-06〉 주요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95
〈그림 4-07〉 주요 국가별 외국인 현황 .....	95
〈그림 4-08〉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	96
〈그림 4-09〉 서울시 성별 유병률 .....	100
〈그림 4-10〉 서울시 성별 암 등록 비율 .....	102
〈그림 4-11〉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	105
〈그림 4-12〉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 .....	106
〈그림 4-13〉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2007) .....	107
〈그림 4-14〉 서울시 성별 초등학교 교장·교감 비율 .....	108
〈그림 4-15〉 서울시 성별 중학교 교장·교감 비율 .....	108
〈그림 4-16〉 서울시 성별 고등학교 교장·교감 비율 .....	108
〈그림 4-17〉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 .....	109
〈그림 4-18〉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2007) .....	109
〈그림 4-19〉 서울시위원회별 성별 참여 비율 .....	110

## ● 부록

〈부록 I〉 여성의 경제세력화 .....	127
〈부록 I-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127
〈부록 I-2〉 성별 대졸자 취업률 .....	128
〈부록 I-3〉 성별 평균임금비 .....	129
〈부록 I-4〉 성별 관리직 비율 .....	130

〈부록 I-5〉 성별 정규직 비율 .....	131
〈부록 I-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132
〈부록 I-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133
〈부록 I-8〉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2005년) .....	134
〈부록 II〉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	135
〈부록 II-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	135
〈부록 II-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	136
〈부록 II-3〉 부부 가사노동시간(2004년) .....	137
〈부록 II-4〉 육아휴직자 비율 .....	138
〈부록 III〉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	139
〈부록 III-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	139
〈부록 III-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	141
〈부록 III-3〉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	142
〈부록 III-4〉 성별 장애인 등록률 .....	143
〈부록 IV〉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144
〈부록 IV-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	144
〈부록 IV-2〉 성별 도시 안전도 .....	145
〈부록 IV-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147
〈부록 IV-4〉 성별 건강검진률 .....	148
〈부록 IV-5〉 성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	149
〈부록 IV-6〉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	150
〈부록 V〉 여성의 대표성 제고 .....	151
〈부록 V-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	151
〈부록 V-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	151
〈부록 V-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152
〈부록 V-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	154



## ▣ 연구 요약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연구목적

-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반의 변화와 영역별 변화 추이를 객관적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 지수 체계 구축
- 성인지 지수 산출 및 연도별(2005~2007), 영역별 지수 비교로 서울시 성평등 수준 측정
- 서울시 성인지지표와 OECD 10개국과의 비교를 통한 서울시 양성평등 지향 목표 설정
-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성인지지표 체계 보완 개선안 제시

## □ 연구방법

###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 국내 통계자료 수집은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하는 서울시 지역 통계를 이용함. 이 외에 서울시 자체 생산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및 각 관련부서 행정자료 수집하여 측정함

- 국외 통계자료 수집은 OECD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거나 UNDP, UNECE DB 통계자료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용함. WEF의 Global Gender Gap Index의 국가별 통계지표 값을 수집하였음

#### ○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8. 9. 30 ~ 10. 16
- 조사방법 : 이메일 설문조사
- 회수현황 : 89명 중 87부 회수
- 조사대상 : 관련 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 전문가 및 지표 전문가
- 조사내용 : 영역별 세부 지표 가중치 선정 및 대체·보완 지표 제시

#### □ 기대효과

-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지속적인 측정 및 지수 비교로 사회 제 분야에서의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 파악 및 변동 추세 판단
- 각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개선 목표 지점 설정 및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
-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추가 및 보완으로 입체적 평가 가능

## II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 양성평등 현황

#### □ 서울시 성인지 지수 개발 과정

○ 1차 성인지 지표 선정 및 개별 지표의 산식과 정의 확정

○ 제외 지표 및 대체 지표 선정

- 지수 산출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는 남성대비 여성의 데이터이므로 성중립적 지표 제외함(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영아보육시설 이용율,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성별육아휴직자수는 남녀 간 수치의 압도적 차이로 지수왜곡 우려가 있어 제외함.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은 부(-)의 성격을 가진 지표로서, 정(+)의 상관관계로 모든 지표들을 통일함에 따라 제외함. 이에 따라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영역은 제외지표가 많아 지수산출에서 제외함
- 지표값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별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비율로, 인터넷 활용 불가능율은 활용 가능률로, 도시위험체감도는 도시안전체감도로 대체함

○ 지수 산출을 위한 최종 지표 목록 선정

- 4개 영역 19개 지표로 지수 산출

□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 각 영역별 평균가중치는 여성의 경제세력화가 70.97점,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이 69.29점,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가 78.84점, 여성의 대표성 제고가 77.83점이었음
- 지표별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지표가 성별 평균임금비(87.90점)이며 성별도시안전체감도(85.14점), 성별경제활동참가율(84.75점), 성별건강검진율(84.55점) 순임
- 지표별로 가중치가 가장 낮은 지표가 성별노동조합원구성비(53.37점)이며 그 뒤가 성별주택보유율(57.37점), 성별사업체대표자비율(57.40점)임

□ 서울시 성인지 지수 비교

- 서울시 성인지 지수 비교 결과 2005년 44.02, 2006년 44.05, 2007년 44.62로 근소

하나마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지수가 도달해야 할 목표 '100'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음

## □ 영역별 지수 비교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평등 지수가 상승한 영역은 경제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이며 지수가 하락한 영역은 대표성 제고 영역임
- 여성의 경제세력화 지수는 2005년 41.03, 2006년 41.55, 2007년 42.25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인지 지수는 2005년 47.12, 2006년 51.38, 2007년 51.56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인지 지수는 2005년 58.29, 2006년 57.42, 2007년 60.55로 다소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인지 지수는 2005년 33.44, 2006년 30.17, 2007년 28.21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 세부 지표별 지수 비교

- 경제세력화 성별 대졸자 취업률이 가장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평등이 가장 취약한 지표는 주택 보유율로 나타났음. 3개년 간 시계열상 변화는 크지 않으나, 대졸자 취업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평등 상태가 다소 악화되고 있음
-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영역에서는 노인 취업률 지표 값이 가장 높고 장애인 등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2007년 기준으로 성별 노인취업률은 0.80, 성별국민연금 가입자 0.80,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3으로 나타났음. 3개년 간 시계열 변화는 크지 않으며, 근소하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는 인터넷활용 가능률의 지표 값이 가장 높고, 도시안전체감도 값이 가장 낮음. 2007년 인터넷활용 가능률은 0.86, 건강검진율은 0.93,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0.80, 도시안전체감도는 0.50임
-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율이 가장 높고, 광역의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3년간 시계열 비교 결과는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율에서 여성비

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비율의 증가와 비교했을 때, 남녀성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5급 이상 공무원 배치비율에서 여성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II 서울시 성인지지표 국제 비교

#### □ 국제비교 결과

- 서울시 여성들의 성평등 수준은 OECD 선진 10개국 수준과 격차가 큼. 대부분의 비교 지표에서 서울시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에 머물고 있음. 향후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목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 경제세력화

- 경제부문에서 보면 성별경제활동 참여율, 성별 대졸 취업률, 성별평균임금비,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비정규직 비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서울시 수준은 이태리,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국가 경쟁력을 향상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해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확대하고 저임금과 고용안정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 일/가족 양립

- 국공립시설 이용율, 영아보육시설 이용율, 부부가사노동시간 모두에서 서울시의 현황은 OECD 선진국가에 비해 열악함

- 서울시의 경우 공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낮고 영아보육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이 어려움. 가정 내 부부가사노동 시간도 서울시의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 부담이 높은 편임

## □ 대표성 제고

- 고위공직이나 의회 의원직 비율에서 서울시 여성의 대표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음. 글로벌 성별격차지수(GGG)에서 정치영역의 여성 대표성 지수는 한국이 전체 130개국 중 102에 그치고 있음

# IV 서울시 성인지표 개선(안)

## □ 지표 개선안

〈서울시 성인지표 수정 보완(안)〉

영역	세부지표	보완내용
경제세력화	취업률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여 측정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로 그대로 유지하되 특수 고용형태 통계자료 생산하여 보완
	노동조합원 구성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노조 간부비율은 지역데이터 생산보완
	성별주택보유율	제외 검토
일/가족 양립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맞춤형 보육시설(시간 연장,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이용률로 전환
	육아휴직자 비율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시 산전후 휴가 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 비율 등 보완
소수자 사회통합	노인 취업률	여성 노인 빈곤 지표 혹은 노인 만성질환과 관련된 지표로 대체 검토
	장애인 등록률	그대로 유지하되 장애인 교육률과 취업률 통계를 생산하여 보완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표 추가
사회문화권	인터넷 활용률	인터넷 외에 TV, 신문 정보접근성을 포함하는 통합지표로 변경
	주관적 건강상태	유병률로 대체
	건강관련 지표	암 등록률, 치료 경험률 등 추가 검토
	문화관련 지표	문화 향수권 통합지표, 평생교육률, 성별 여가시간 차이 추가
대표성제고	교육계 대표성 지표	초중고 교장, 교감 성비, 대학교원 성비 지표 추가

# V 결론 및 제언

## □ 지표 측정 결과 및 제언

- 서울시 성인지 지수측정 결과 2007년 44.6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특히 경제 영역에서 지수 상승을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함
- 대표성 제고 영역의 지수가 가장 낮고, 3개년 시계열 비교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의 사회 문화권 확대 영역에서 성평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 여성의 도시안전체감도는 남성에 비해 그 절반이 안 되는 수준임. 이에 따라 도시 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추진돼야 할 것임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 여성 노인, 빈곤여성, 여성 장애인들의 지위가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2007년 지수는 51.56에 머물고 있음. 사회적으로 소수자 여성들의 상황이 열악한 것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이 영역의 지수를 완전평등 1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 지표 개선안

-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사회지표와 정책지표 이원 체계로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각 영역별로 본 연구에서 안을 토대로 제시된 지표를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함
-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 지표 목록을 선정하고 비교 측정함으로써, 향후 국제 도시 간 성인지 지표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지표 개발 및 평가 개요

서울시 성인지지표(Gender Sensitive Indicators)는 2006년 민선 4기 동안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지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5개 영역 25개 세부지표로 개발되었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성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여 남녀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차원에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지표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도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념(concept) 설정 및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개발 목적은 첫째는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둘째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 셋째는 서울시 여성정책 수행을 통해서 여성 지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넷째는 국제 도시 간 비교를 통해 선진도시 수준으로 서울시 여성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었다(조영미 외, 2006).

이러한 목적 하에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 개발함과 동시에 세부지표 값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표 측정과 아울러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 개발 당시 세부지표별로 측정값을 구하고, 4개년 동안 도달해야할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당시의 목표치는 이전 3개년 동안의 변화를 토대로 매년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가 개발된 후 2007년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 25개 세부지표 값을 측정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시계열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지표 측정은 25개 세부지표별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지표 값을 구하였고, 세부지표 별로 성별격차(gender gap)와 성비(female-to-male ratio)를 구해 비교하였다.

지역비교는 동일한 지표를 전국단위의 지표 값과 비교하였고, 국외 지역은 OECD 국가(북부유럽, 남부유럽, 영어권 국가, 프랑스, 독일, 일본 등)를 주요 비교 집단으로 택하였다. 국외 비교의 경우 측정집단은 이상적으로 서울시와 규모나 특성이 유사한 대도시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나 도시별 성인지 통계 수집의 제한으로 인하여 국가단위로 시행하였다.

표 1-1 서울시 성인지표 측정 및 비교 집단(2007)

구 분	비 교 내 역
시계열 비교	2002년~2006년
국내지역 비교	전국(국가) 비교
국외지역 비교	OECD 10개국 비교

2007년 서울시 성인지표를 측정한 결과 성평등 수준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거나 지표 값이 하락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2) 지수화 및 지표체계 개선

서울시 성인지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독자적인 지표로 지속적인 측정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성인지표의 상당수가 거시 사회지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4년 단위의 시계열 비교에서 변화 추이가 미미하여 측정 결과 평가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지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0.13% 정도 상승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년도 대비 0.4%가 하락하였다. 개발 당시 성별 경제활동참여율의 2010년 목표치는 57.0%였다. 여성 고용의 중요 지표인 성별 임금 격차나 성별 비정규직 비율도 큰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목표치 대비 격차가 너무 컸다.

따라서 2007년도 이후 서울시 성인지표에서는 연간 달성 목표치 제시 및 도달 여부를 측정을 제외하였다. 또한 지표별로 향상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목표치 도달을 위해 제시하는 정책 제안들도 매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거시 사회지표들은 서울시 단위에서 수행하는 몇 가지의 사업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서울시 성인지표 측정 3년차를 맞이하는 2008년도에는 서울시 성인지표 전체의 변화 정도와 영역별 변화정도를 객관적 수치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수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일/가족 양립 지원,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5개 영역에서 세부지표별로 측정값을 구하고, 지표별 시계열 변화추이 분석과 전국/OECD 국가 비교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비교 방식은 지표별로 변화추이는 분석할 수 있으나 서울시 양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체를 망라하는 성평등 지수와 각 영역별 지수를 산출하여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성인지 지표 측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서울시 지표의 비교측정 집단(comparators)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벡은 성인지 지표는 '특정 사회 내에서 시계열적으로 성별관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규범적 준거나 명시적 준거 집단과 관련지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Beck, 1999). 이에 따라 성인지지표는 시계열비교와 아울러 지표 목적에 적합한 준거 집단을 설정하고 이와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7년에 국내에서는 전국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였고, 국외에서는 OECD 10개국을 선정하였다. 서울시와 전국을 비교하게 된 것은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세부 지표와 관련된 주요 통계들이 전국단위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국 대비 대부분 영역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목표 지향적 준거 집단으로 전국은 적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유의미한 비교집단은 서울시 내의 지역 혹은 자치구 단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로 설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전국 대비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성평등 수준을 OECD 선진 10개국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개발당시부터 OECD 국가와 결과를 비교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국외 비교 준거집단은 선진국가의 도시 단위가 적절하지만 이 부분도 통계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비교로 대체하고 있다. 국가 비교도 OECD에서 생산되는 지표들, 주로 경제영역과 일/가족 양립 영역 관련 지표들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비교는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나아가야 하는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와 OECD 국가를 비교하였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Global Gender Gap Index와 비교도 추가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3년이 되면서 발생하는 세 번째 문제는 사회 환경의 변화와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여성관련 이슈의 변화를 지표체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발할 당시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성평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안되었다. 개발 당시 국제기구의 성인지 지표 목록과

국내의 성인지표 목록을 통합하여 서울시 현안에 맞는 지표 목록을 생산하였으나 서울시 단위의 통계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지극히 제한된 영역의 세부지표만이 포함되었다. 지표의 수위도 거시 사회지표부터 서울시 내의 관련 시설 수에 이르는 등 일관적이지 못하였다.

이후 다문화 가족의 증가, 여성의 문화권에 대한 관심 증대,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여성노인의 증가 등 서울시 내에서도 사회 문화적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2007년 서울시의 독자적인 여성정책 브랜드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일과 돌봄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던 여성정책이 도로, 주택, 건축, 환경, 문화 등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 성인지표의 지표 체계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단 지표 체계가 개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체계로 측정을 하고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서울시 성인지 지표 체계의 개선 보완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영역별로 대체가 필요한 지표 혹은 추가해야 할 지표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향후 지표 체계 개선 시 반영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성인지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05년~2007년 3개년 간의 서울시 성 평 등 정도를 평가한다.

둘째 서울시 성인지표의 세부 지표 측정치를 OECD 10개국과 비교를 한다.

셋째 향후 서울시 성인지 지표 체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지표개선(안)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세부 지표 측정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서울시 지역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존의 25개 지표를 위해 사용된 통계들은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산하는 지역통계를 이용하였다. 이 외에 서울시 자체 생산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와 각 부서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측정하였다.

대체·보완지표에서 사용된 통계자료 역시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

울지방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는 OEC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UNDP, UNECE의 DB 통계 자료 중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이 외에 글로벌 젠더격차지수 관련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통계와 지수를 이용하였다.

##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서울시 성인지표의 지수체계 개발 및 대체·보완 지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5개 영역 전문가를 영역별로 15~20명을 선발하여 영역별 지표 가중치를 구하는 내용과 영역별로 추가하거나 대체해야 할 지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관련 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 전문가 및 지표 전문가 8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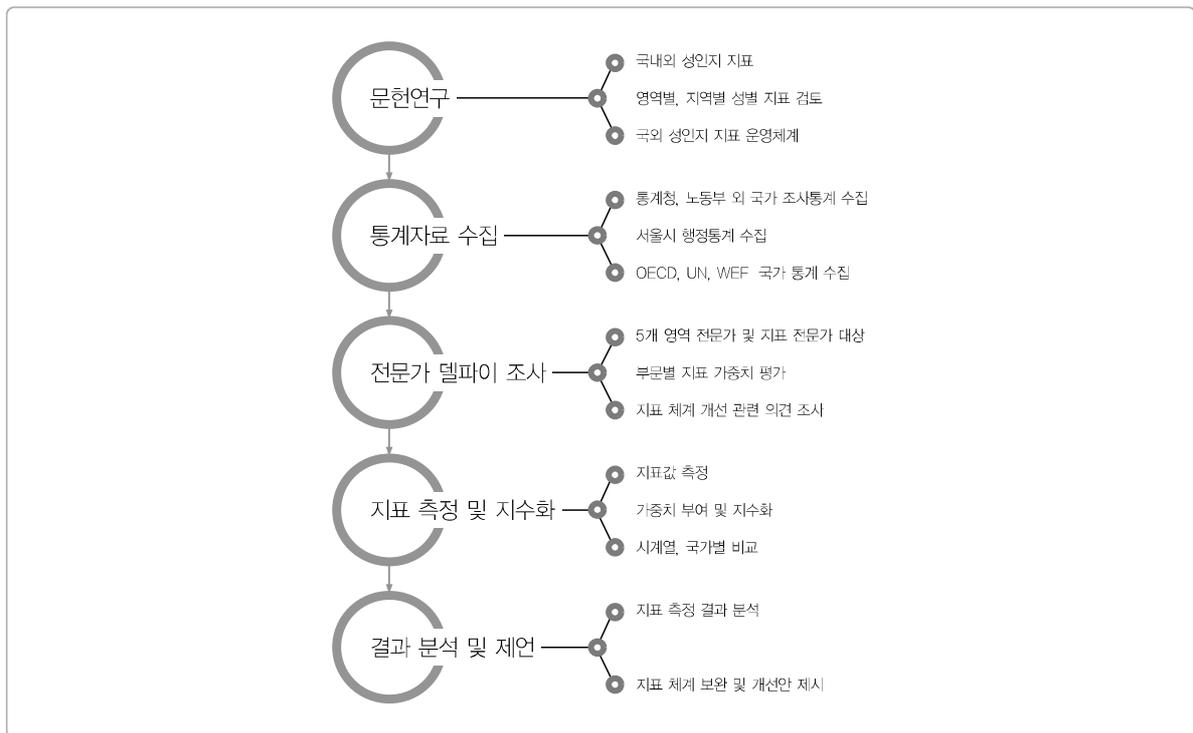
- 조사기간 : 2008. 9. 30~10. 16
- 조사방법 : 이메일로 설문조사지 발송 및 응답 설문지 수집
- 회수현황 : 89명 중 87부 회수
- 조사내용 : 영역별 세부지표 가중치, 대체·보완지표 관련 의견 제시
- 조사대상 : 관련 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 전문가 및 지표 전문가

■ 표 1-2 ■ 지표 영역 및 조사대상 전문가

영역	세부 지표	조사대상 전문가
여성의경제세력화	8개	20명
일/가족양립지원	4개	15명
소수자여성사회통합	4개	15명
여성의사회문화권제고	6개	22명
여성의대표성제고	5개	15명
계	25개	87명

### 3.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1) 국내외 성인지표 측정 및 분석 관련 문헌 연구, 2) 통계청, 노동부 등 주요 기관의 서울시 지역통계 자료 및 국제기구 성인지 통계 자료 수집, 3) 지표별 객관적 중요도 조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4) 지수화 산식 개발 및 지수 산출, 5)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수화 결과 분석 및 지표 체계 개선안 제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그림 1-1〉 서울시 성인지표 지수 산출 및 지표 체계 개선안 도출 절차

### 4. 기대 효과

서울시 성인지표 평가 및 지수 개발 연구 수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울시 성인지표의 지속적인 측정 및 지수 개발로 담당 공무원이나 서울시민이 사회 제 분야에서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쉽게 파악하고 변동 추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각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셋째, 선진 국가의 지표와 비교를 통해 향후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개선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한다.

넷째, 기존의 지표 체계를 유지하되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들을 추가 보완하여 향후 서울시 여성의 지위 변화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I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 양성평등 현황



# II 지표를 통해서 본 서울시 양성평등 현황

## 1. 성평등지수 개발의 기본방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 (Bauer, 1966:1)’ 내지는 ‘지역사회개발의 정책, 지역사회 상황의 변화, 지역간 비교기준으로서의 자료, 개발활동의 평가 측정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사회개발 관련 개념의 구성물(고순철, 2002: 153)’을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쓰이는 사회지표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사회개발의 대상 설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평가, 정책의 비교평가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용도와 둘째, 사회추세의 기술, 총체적 개발전략의 수립,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촉진, 정책 결정자에게 계획적 결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제공과 같은 일반적 용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1)</sup>

사회지표와 달리 성평등지표는 사회의 일반적인 불평등 상황이 아니라 성별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정도를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지표를 통해서 첫째, 기존의 국가수준에서 수집된 전수조사인 National Census에 내포된 여성에 대한 편견(sex bias)을 시정할 수 있으며, 둘째 시계열별로 성평등 실태의 지역간 비교 및 변화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통계의 경우 통계 내용이나 정의가 통일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단위의 성평등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다음에 통일된 지표체계에 입각해서 지역별 성평등지수가 생산되어야 한다.

1) 특정지표가 효율적인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가)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
- 나)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 다) 지역사회 구성원에게서 발전되고 받아들여질 것
- 라) 경제, 사회와 환경을 고려할 것
- 마)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할 것
- 바) 다른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
- 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할 것
- 아) 시의적절한 자료에 근거할 것

지역단위의 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통계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왔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통일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의 표준항목을 개발해서 지역간 비교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서울시 성인지표의 영역은 크게 ① 여성의 경제세력화 ②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③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④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우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활동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영역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도 특히 약자인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권과 남성에 비해 더욱 민감하게 느끼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지역 및 중앙정치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각 영역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통해서 모든 지역은 보다 성평등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수준에서 어떠한 부분이 취약하고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수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평등지수의 개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지역간 성평등 발전정책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2) 지역 내 성평등 발전 정도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동시에, 3)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을 제공하며, 4) 지역 양성평등정책 수행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5) 정책 결정자들의 성 인지성(gender awareness)을 높일 수 있다.

## 1) 영역별 내용 및 지표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부문 서울시 성인지표

여성의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 확보임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여성의 취업과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성평등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통계 및 지표체계에 노동조합 활동과 주택보유율에 관한 지표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표의 구성은 기초 통계자료가 더 구축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활동부문의 성평등 대표지표는 관심영역별로 평등정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책적 의미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과 소득부문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대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대졸자 취업률
- 성별 평균임금비
- 성별 관리직 비율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성별 주택보유율(공동명의 포함)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대졸자 취업률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특별히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성별 관리직 비율과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지표로 선정되었다.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의 원천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성별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여주는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나타내는 성별 주택보유율이 포함되었다.

## (2) 일/가정양립 지원강화 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전통적으로 가구단위의 조사를 통해 가구주 위주로 생산되어 가구이나 가족 내 여성의 지위에 대한 통계가 미약한 실정이었다. 가족 내 여성의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계기가 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이중부담은 성평등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부문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대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 국공립시설이용 아동 비율
-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 성별 장애인 등록률

####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부문 서울시 성인지지표

-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율
- 성별 도시위험체감 정도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성별 건강검진율
-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 성인지지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에서의 성평등지표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지위를 보여 줌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대표지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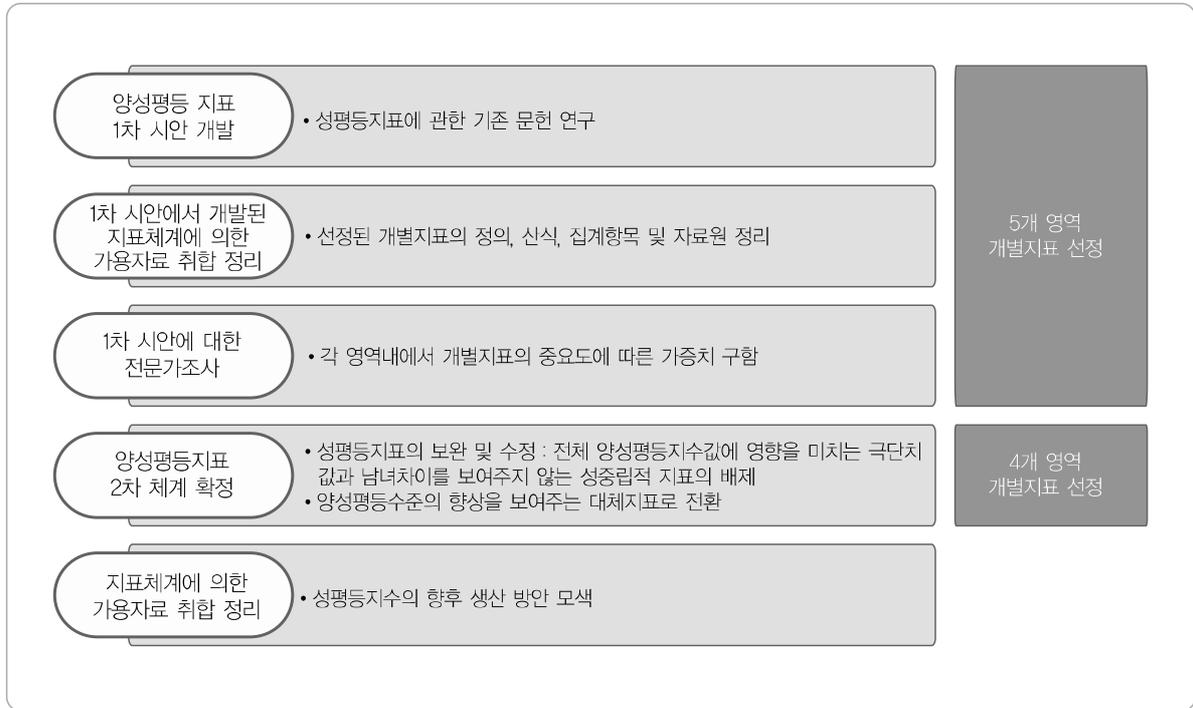
- 성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비율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성별 광역/기초의회 의원 비율은 정치참여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과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은 행정부문의 참여에 대한 지표로 채택되었다.

## 2. 서울시 성인지 지수 개발과정

서울시 성인지 지표는 1) 연구진에 의한 1차 성인지 지표 시안 개발, 2) 1차 시안에서 개발된 지표체계에 의한 가용자료 취합 정리, 3) 선정된 개별지표의 정의, 산식, 집계항목 및 자료

원 정리, 4) 전문가 조사 결과의 실시 5) 전문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가중치 부여, 6) 지표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2차 연구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평등지표를 수정 및 보완·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2-1〉 지표개발과정 흐름도

### 1) 1차 성인지 지표 선정 및 개별지표의 산식과 정의 확정

서울시 성인지 지표는 기존의 성평등 관련 지표체계의 문헌연구 및 지표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연구진간의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걸쳐 서울시의 성평등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성인지 지표 안을 구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여성의 경제세력화,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그리고 문화영역에서의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제고, 마지막으로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총 25개의 세부지표가 선정되었다. 각 영역의 세부지표 시안은 가용한 자료원이 있는가, 각 영역의 양성평등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그 영역을 적절하게 대변해주고 있는가를 주로 고려하였다.

표 2-1 2008년도 서울시 성인지지표 1차안

영역	세부지표	산식	비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여성인구)×10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대졸자취업률 = (여성취업자수/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100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임금비 = (여성월평균임금/남성월평균임금)×100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관리직비율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여성수/전직종여성수)×100	
	5. 성별 비정규직 비율	여성비정규직비율 = (여성일용직근로자수+여성임시직근로자수/여성임금근로자)×10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여성대표자사업체수/전체사업체수)×10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수/전체노동조합원수)×100	서울시고용창업담당관 내 부자료 모집단 : 서울시 단위조합 +지부 또는 분회 등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포함)	여성의주택보유율 = (여성명의주택의수/서울시 전체주택의수)×100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1.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2.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수/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수)×100	
	3.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수/전체0~2세아동수)×100	
	4.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여성육아휴직자비율=(여성육아휴직자수/전체육아휴직자수)×10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보호대상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성비율 = (여성수급자수/전체수급자수)×100	서울시 복지국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모집단: 일반수급자+특례 수급자+시설수급자
	2.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18~60세 인구)×10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 연금통계연보 모집단: 18세-60세 서울 시 남녀 전체인구수 대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 자(소득신고자, 납부예외 자), 임의가입자, 임의계 속가입자 포함.

영역	세부지표	산식	비고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text{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text{세이상여성노인 취업자수}/15\text{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 \times 100$	
	4. 성별 장애인 등록률	$\text{여성장애인등록률} = (\text{여성장애인등록수}/\text{서울시 전체장애인수}) \times 100$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율	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못하는여성비율: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2. 성별 도시위험 체감 정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위험도: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서울밤길+범죄두려움).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름.	
	4. 성별 건강검진율	$\text{여성건강검진률} = (\text{수검한여성인수}/\text{검진대상여성인수}) \times 100$	
	5. 성폭력 관련 시설 수	$\text{성폭력관련시설수(보호시설+상담소)} = \text{현시설수} \times (100,000 / \text{서울시전체인구})$	
	6.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text{가정폭력관련시설수(보호시설+상담소)} = \text{현시설수} \times (100,000 / \text{서울시전체인구})$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text{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text{광역의회여성의원수}/\text{광역의회전체의원수}) \times 100$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text{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text{기초의회여성의원수}/\text{기초의회전체의원수}) \times 100$	
	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비율	$\text{전체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 비율} = (5\text{급 이상 공무원 수}/\text{전체 공무원 수}) \times 100$	서울시 행정국인력운영과 내부자료 모집단: 서울시 남녀 전체 공무원 수 대비 5급 이상 공무원 수
	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text{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text{주요부서 공무원 수}/\text{전체 공무원 수}) \times 100$	서울시 행정국인력운영과 내부자료 모집단: 서울시 남녀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주요 부서 남녀 공무원 배치 비율

성인지 지수 산출에 사용된 기본 데이터는 남성대비 여성의 데이터이다. 선정된 총 25개의 지표 중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은 시설과 관련된 지표로 남녀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성중립적인(gender-neutral)지표라는 점에서 양성 평등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지표의 경우에는 여성이 98.7% (2006년 기준)로 남성의 70여배에 달해 지수의 평균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치의 값이므로 지표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영역의

지표는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1개밖에 남지 않아서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되기에는 지표수가 너무 적으므로 다른 영역의 지표수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 영역자체를 양성평등지표체계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표 2-2 성인지 지표에서 제외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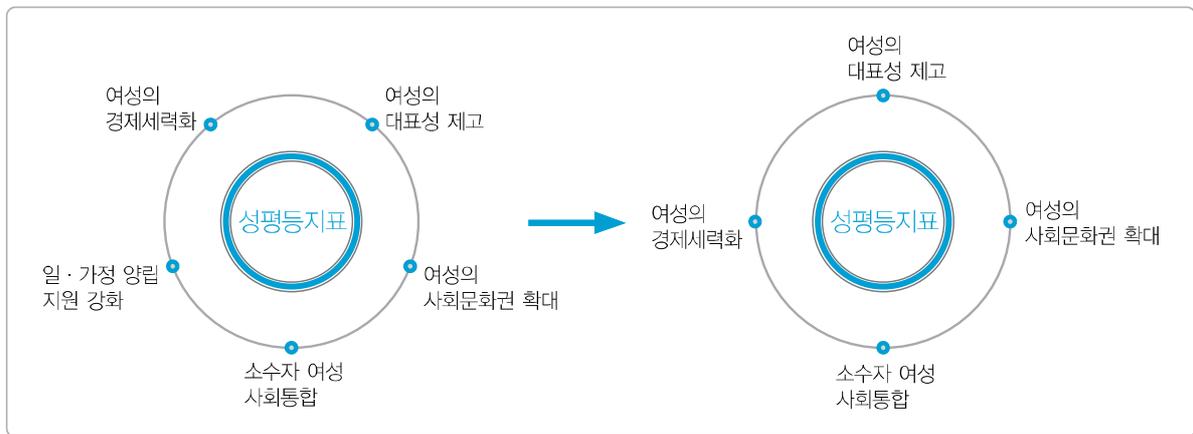
영역	지표명	산식	삭제 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성별 부부 가사노동 시간	자료원 : <생활시간조사>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영역 삭제
	국공립시설이용 아동 비율	국공립시설이용아동비율 = (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수/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수)×100	성 중립적(gender-neutral)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 = (영아보육시설이용아동수/전체0~2세아동수)×100	성 중립적(gender-neutral)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여성육아휴직자비율=(여성육아휴직자수/전체육아휴직자수)×100	여성 육아휴직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수 왜곡 우려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보호대상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성비율 = (여성수급자수/전체수급자수)×100	정(+의 상관관계로 모든 지표 통일에 따라 부(-)의 성격을 가진 지표이기 때문에 삭제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폭력 관련 시설 수	성폭력관련시설수(보호시설+상담소) = 현시설수×(100,000 /서울시전체인구)	성 중립적(gender-neutral)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가정폭력관련시설수(보호시설+상담소) = 현시설수×(100,000/서울시전체 인구)	성 중립적(gender-neutral)

그 다음 지표값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수준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 몇몇 지표들을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성별 정규직 비율로,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능율은 성별인터넷 활용가능률로, 성별 도시위험체감도는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로 대체되었다.

표 2-3 성인지 지표에서 새로운 지표로 대체된 지표

영역	세부지표	산식	대체 지표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별 비정규직 비율	여성비정규직비율 = (여성일용직근로자수 + 여성임시직근로자수/여성임금근로자)×100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능율	인터넷을전혀사용하지못하는여성비율 :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위험도: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서울밤길+법외주거증).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제외된 지표를 제외하고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에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3. 성별 평균임금비, 4. 성별 관리직 비율, 5. 성별 정규직 비율,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포함)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의 지표로 선정된 것은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3. 성별 장애인 등록률이었다. 그 다음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지표로는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 성별 건강검진율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 최종 선정된 지표는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이었다.



〈그림 2-2〉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영역 변화

▮ 표 2-4 ▮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을 위해 최종 선정된 지표 및 산식

영역	세부지표	산식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여성인구)×10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대졸자취업률 = (여성취업자수/여성졸업자 - 진학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100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임금비 = (여성월평균임금/남성월평균임금)×100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관리직비율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여성수/전직종여성수)×100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정규직 근로자수/여성임금근로자)×10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여성대표자사업체수/전체사업체수)×10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수/전체노동조합원수)×100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포함)	여성의주택보유율 = (여성명의주택의수/서울시전체주택의수)×100

영역	세부지표	산식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18~60세 인구)×100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10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장애인등록률 = (여성장애인등록수/서울시전체장애인수)×100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여성비율: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안전도: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도시 범 죄피해에 대해 두렵지 않다, 도시 야간보행이 불안하지 않다).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름.
	4.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건강검진률 = (수검한여성의수/검진대상여성의수)×100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광역의회여성의원수/광역의회전체의원수)×100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기초의회여성의원수/기초의회전체의원수)×100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전체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 2) 지표별 가중치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견 조사

### (1) 조사방법

연구진이 개발한 1차 성평등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성정책과 관련된 행정 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지표전문가 89명이었다. 조사의 목표는 1차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지표의 항목 구성을 소개하고, 각 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성인지 지수를 구성하는 부문별 지표의 객관적 가중치를 평가하기 위해 각 부문별 지표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지표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지표선정을 위한 전문가 E-mail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기간 : 2008년 9월 30일 ~ 10월 16일
- 조사방법 : 인터넷 메일로 설문 조사지를 발송하고, 이메일로 응답 설문지를 수집함.
- 설문지 회수 현황 : 89부를 배포해서 87부를 회수함
- 조사대상자 : 여성정책과 관련된 행정 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여성관련 NGO 등을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각 전문 분야별 비중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

전문가들이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한 가중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5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100점 만점)	영역별 평균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여 성인구)×100	84.75 점	70.97점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여성대졸자취업률 = (여성취업자수/여성졸업자 - 진학 자 - 외국인유학생 - 취업불가능자)×100	71.45 점	
	3.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임금비=(여성월평균임금 / 남성월평균임금)×100	87.90 점	
	4. 성별 관리직 비율	여성관리직비율 = (의회의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전문 가,기술공및전문가여성수/전직종여성수)×100	77.00 점	
	5. 성별 정규직 비율	여성정규직비율 = (여성 정규직 근로자 수/여성임금근 로자)×100	78.55 점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여성대표자사업체수/전체사 업체수)×100	57.40 점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수/전체노동조 합원수)×100	53.37 점	
	8.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포함)	여성의주택보유율 = (여성명의주택의수/서울시전체주 택의수)×100	57.37 점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 민연금 가입자 비율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국민연금 가입자 수/18~60세 인구)×100	76.07 점	69.29점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 수/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100	64.87 점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여성장애인등록률 = (여성장애인등록수/서울시전체장 애인수)×100	66.93 점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여성비율: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에 따름.	67.50 점	78.84점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여성이지각하는서울의도시안전도:서울서베이 조사 결 과에 따름 (도시 범죄피해에 대해 두렵지 않다, 도시 야 간보행이 불안하지 않다).	85.14 점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주관적건강상태평가가좋은여성의비율:통계청, 「사회통 계조사」에 따름.	78.18 점	
	4. 성별 건강검진율	여성건강검진률 = (수검한여성인수/검진대상여성인수)×100	84.55 점	

영역	세부지표	산식	중요도 (100점 만점)	영역별 평균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광역의회여성의원수/광역의회전체의원수)×100	79.67 점	77.83점
	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기초의회여성의원수/기초의회전체의원수)×100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전체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75.33 점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 비율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76.67 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선정된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는 성별 평균임금비가 87.9로 가장 높고,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가 53.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이 78.84로 가장 높고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이 69.29로 가장 낮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은 가중치 최상위 지표들(성별 평균임금비 87.9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84.75점)과 최하위 지표들(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53.37점,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57.4점)이 혼재해 있었다.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76.07점,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이 64.87점, 성별 장애인 등록률은 66.93점, 영역 평균은 69.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성별 건강검진율이 84.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별 도시안전체감도는 85.1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는 78.18점,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67.5점을 받아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의 평균은 78.84점으로 네 영역 중 가장 높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모든 지표들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 광역·기초 의회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79.67점을 받았고,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은 76.67점,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75.33점을 받아 영역 평균은 77.83점이다. 최상위 5개 지표는 성별 평균임금비(87.9점), 성별 도시안전체감도(85.14점), 성별 경제활동참가율(84.75점), 성별 건강검진율(84.55점), 성별 광역·기초 의회 의원 비율(79.67점)이다. 최하위 5개 지표는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53.37점), 성별 주택보유율(57.37점),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57.40점),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64.87점), 성별 장애인 등록률(66.93점)이다. 전체 19개 지표의 가중치 평균은 73.81점이다.

### 3) 세부영역별 지표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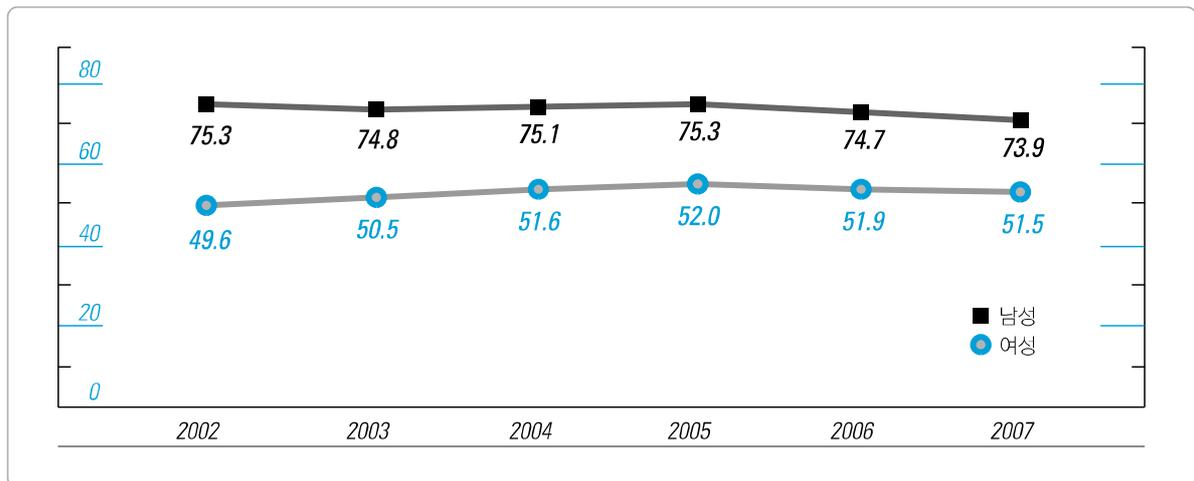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산식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69

표 2-6 |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49.6	50.5	51.6	52	51.9	51.5
남성	75.3	74.8	75.1	75.3	74.7	73.9
여/남	0.66	0.68	0.69	0.69	0.69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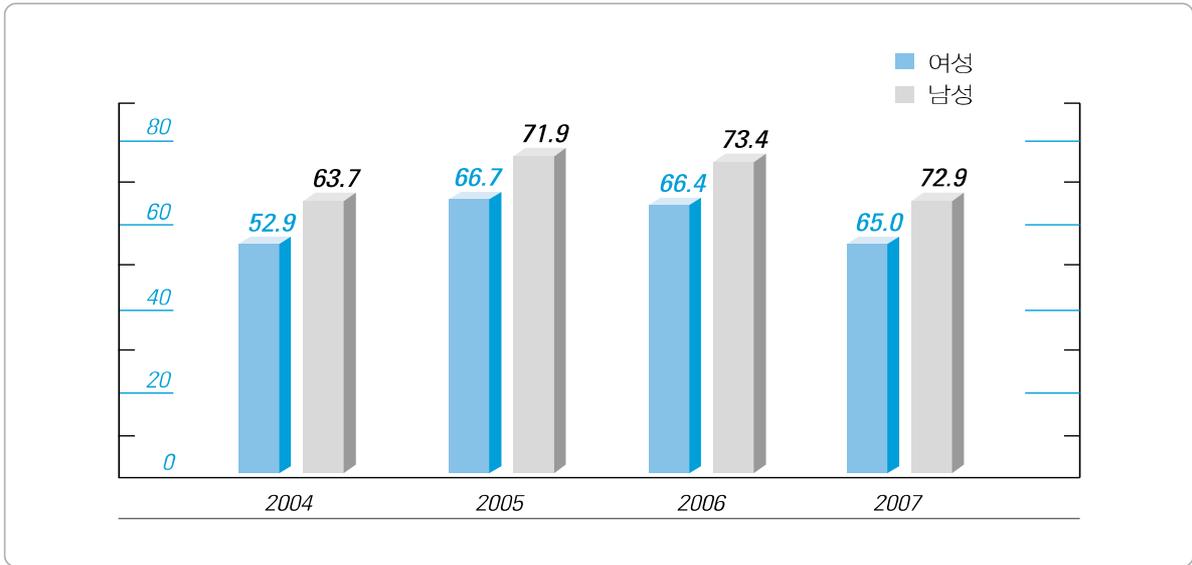
〈그림 2-3〉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② 성별 대졸자 취업률

- 산식 : 대졸자취업률 = (여성취업자수/(여성졸업자-진학자-외국인유학생-취업불가능자))×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9

표 2-7 | 성별 대졸자 취업률

	2004	2005	2006	2007
여성	52.9	66.7	66.4	65
남성	63.7	71.9	73.4	72.9
여/남	0.83	0.93	0.90	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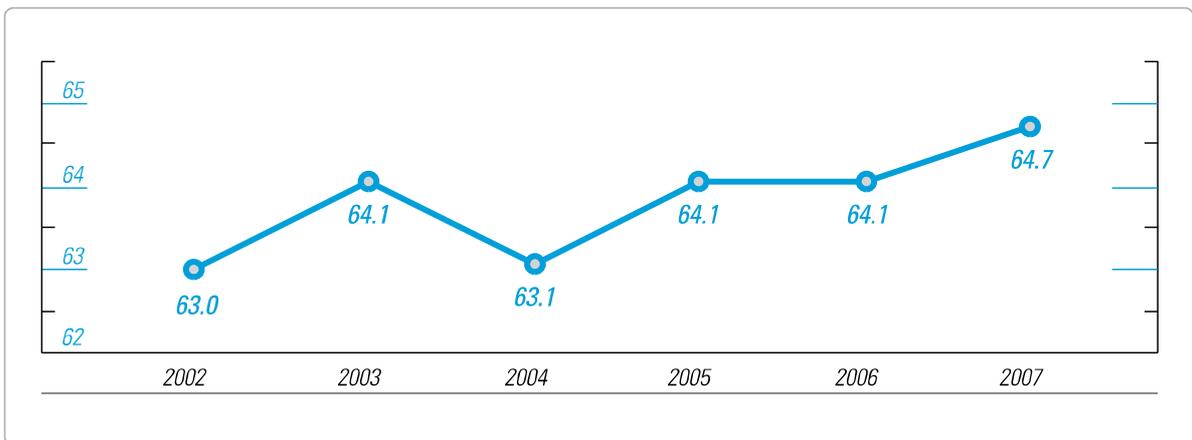
〈그림 2-4〉 성별 대졸자 취업률

③ 성별 평균임금비

- 산식:  $\text{성별임금비} = (\text{여성월평균임금} / \text{남성월평균임금}) \times 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64

표 2-8 성별 평균임금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비	63.0	64.1	63.1	64.1	64.1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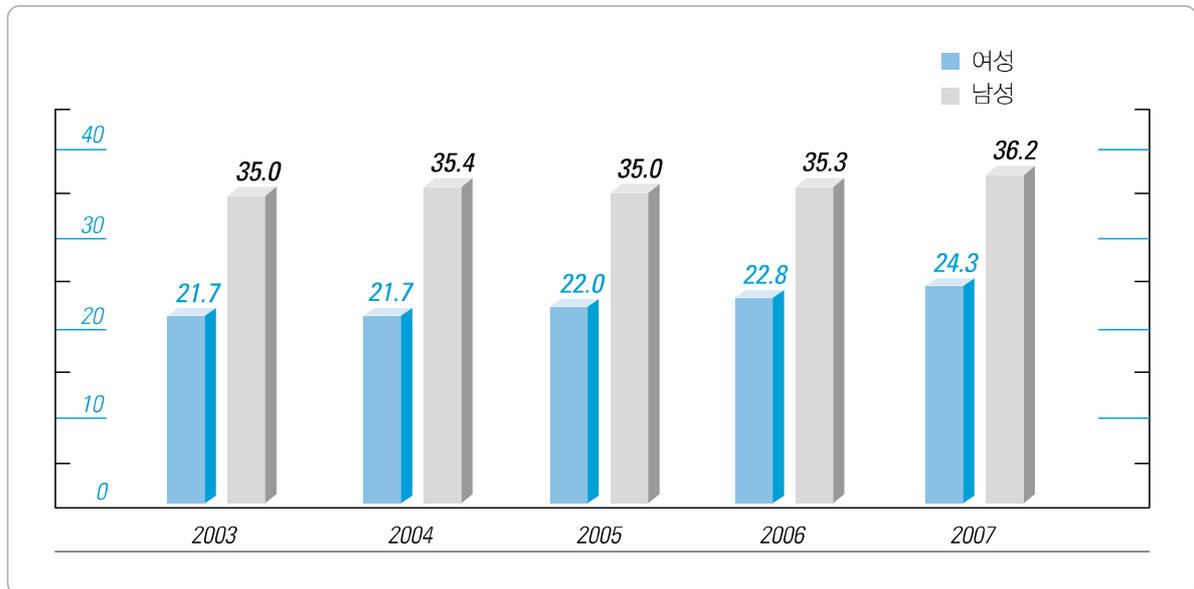
〈그림 2-5〉 성별 평균임금비

④ 성별 관리직 비율

- 산식 : 관리직비율 =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수 / 전직종 근로자 수) × 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65

표 2-9 성별 관리직 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21.7	21.7	22.0	22.8	24.3
남성	35.0	35.4	35.0	35.3	36.2
여/남	<b>0.62</b>	0.61	0.63	<b>0.65</b>	<b>0.6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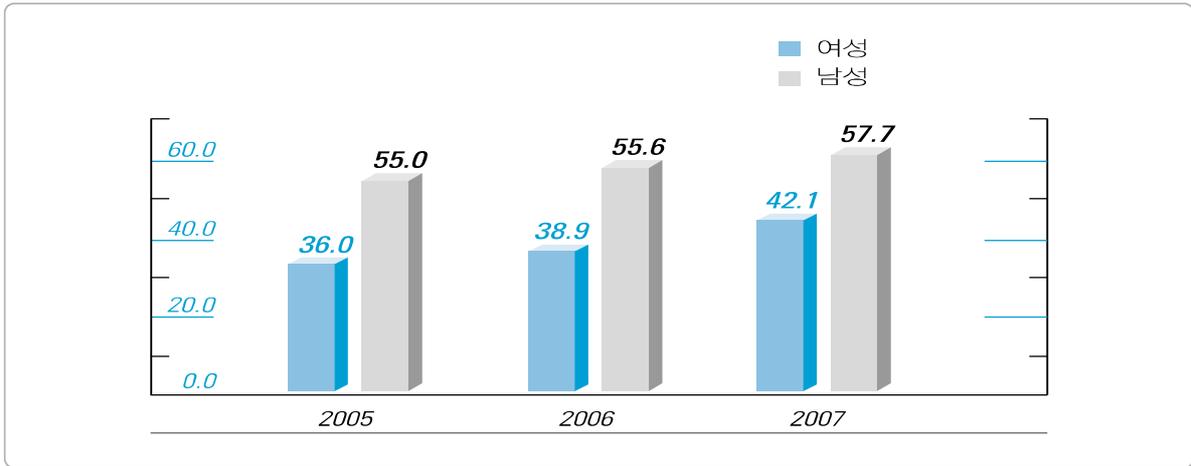
〈그림 2-6〉 성별 관리직 비율

⑤ 성별 정규직 비율

- 산식 : 정규직비율 = [(임금근로자 - (일용직근로자수 + 임시직근로자수)) / 임금근로자] × 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7

표 2-10 성별 정규직 비율

	2005	2006	2007
여성	36.0	38.9	42.1
남성	55.0	55.6	57.7
여/남	<b>0.65</b>	<b>0.70</b>	<b>0.7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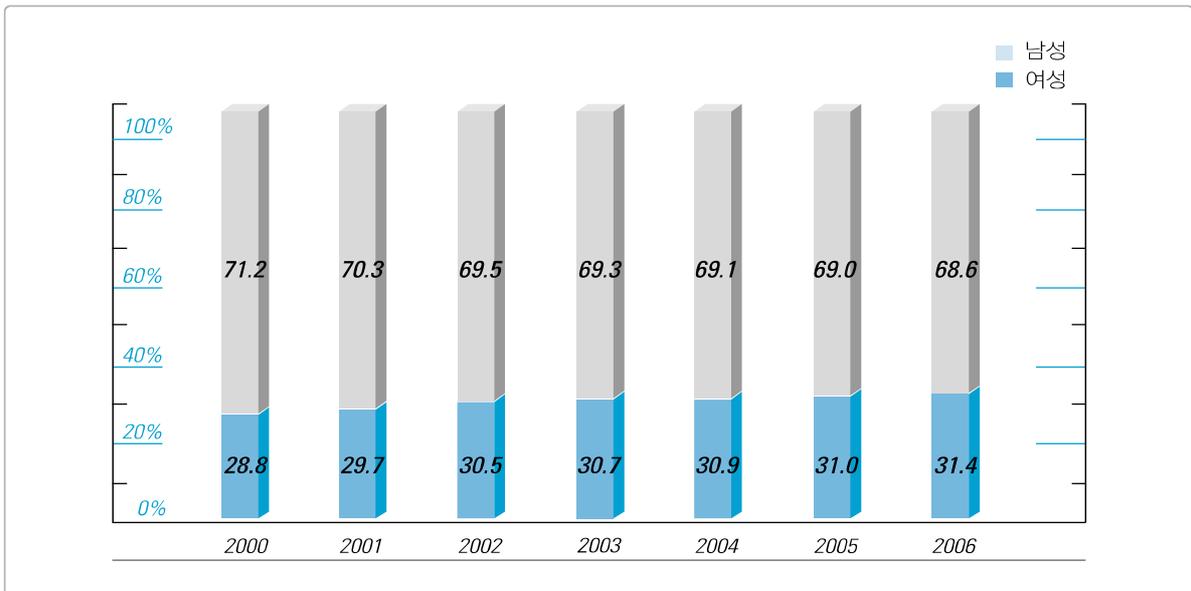
〈그림 2-7〉 성별 정규직 비율

⑥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산식 :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여성대표자사업체수/전체사업체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46

▮ 표 2-11 ▮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여성	28.8	29.7	30.5	30.7	30.9	31.0	31.4
남성	71.2	70.3	69.5	69.3	69.1	69.0	68.6
여/남	0.40	0.42	0.44	0.44	0.45	0.45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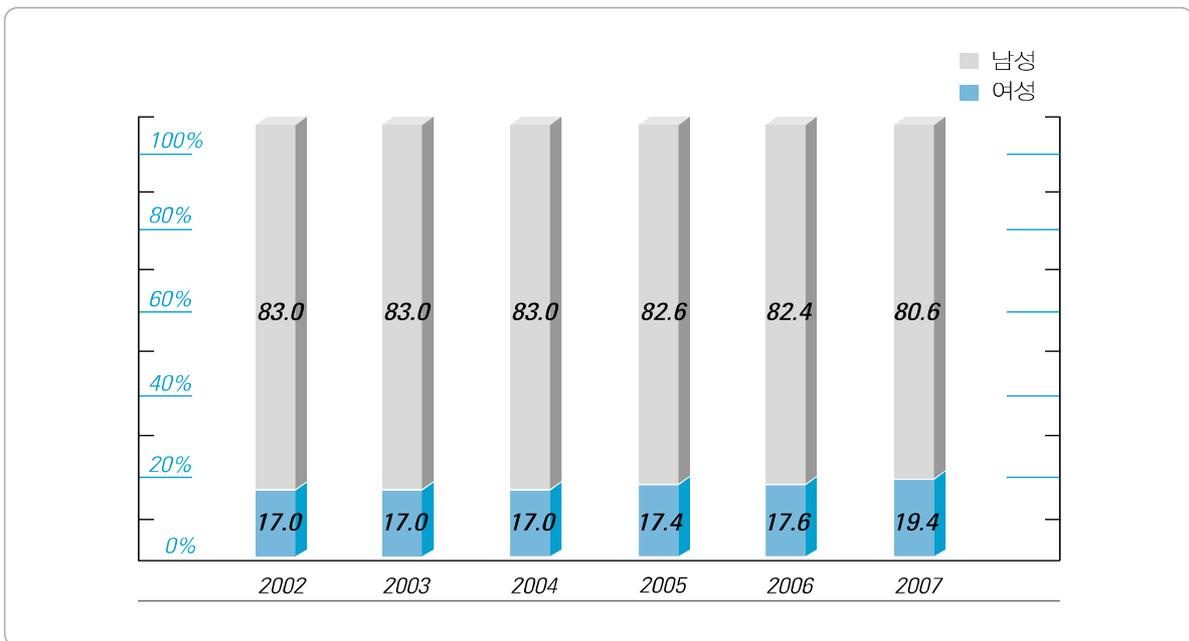
〈그림 2-8〉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⑦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산식 : 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여성조합원수/전체노동조합원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21

표 2-12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17.0	17.0	17.0	17.4	17.6	19.4
남성	83.0	83.0	83.0	82.6	82.4	80.6
여/남	0.20	0.20	0.20	0.21	0.21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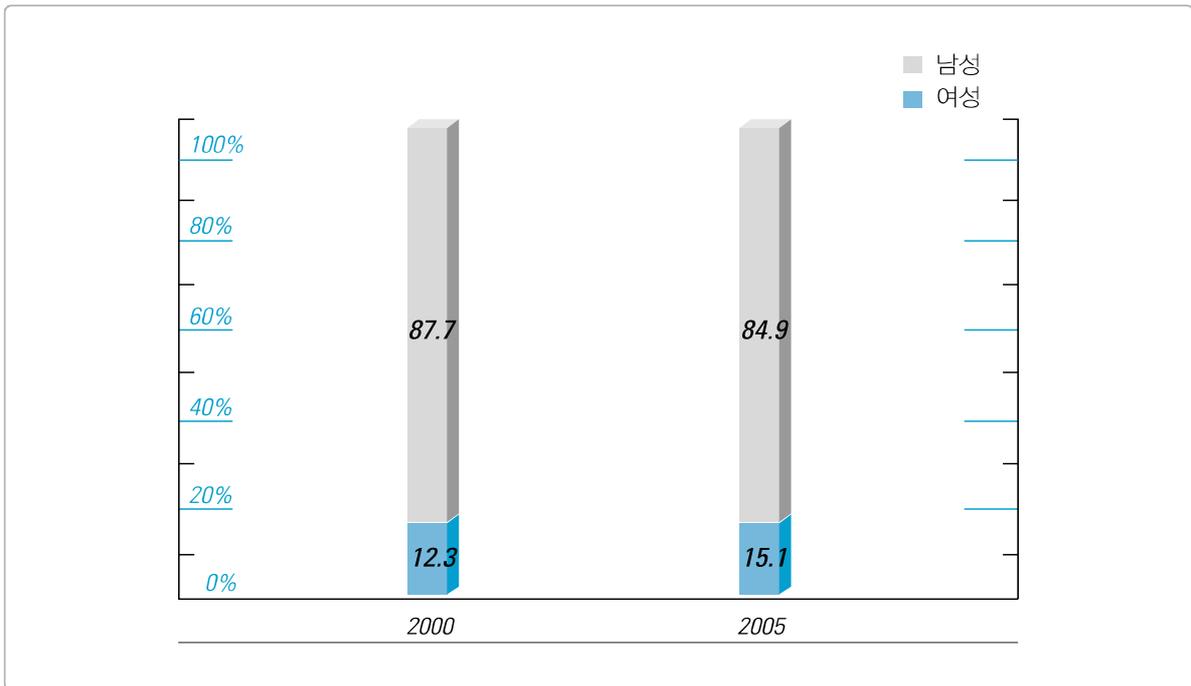
〈그림 2-9〉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⑧ 성별 주택보유율 (공동명의 포함, 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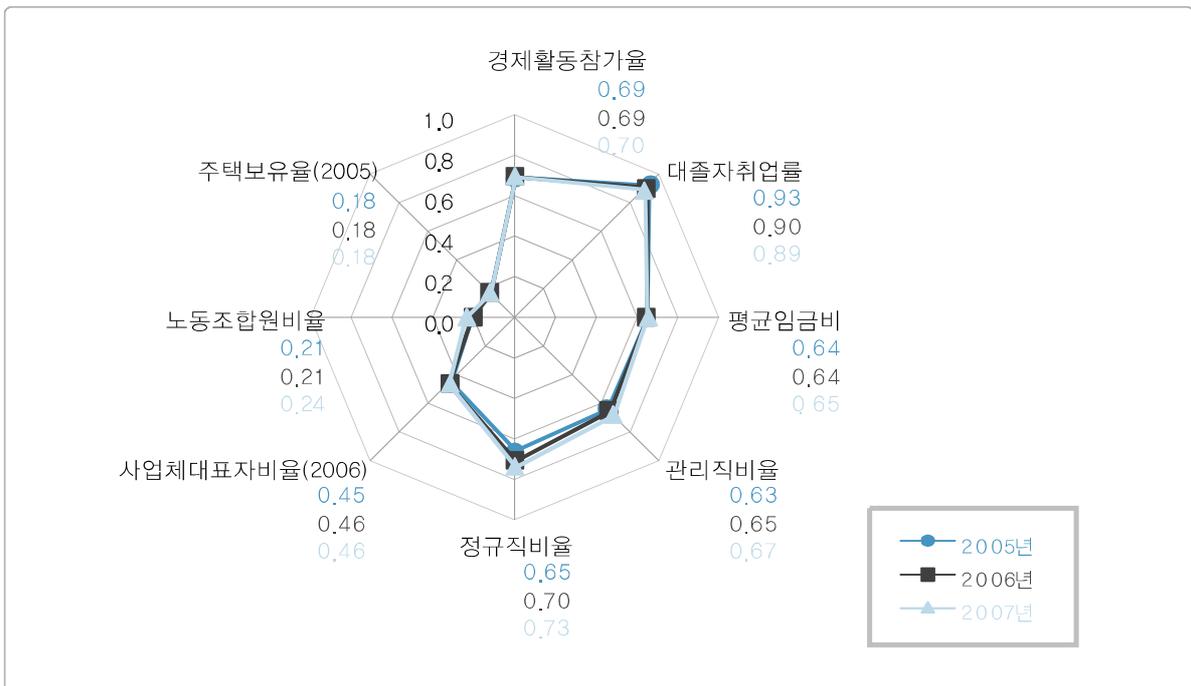
- 산식: 여성의 주택보유율 = (여성명의 주택의 수/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100
- 지표값(2005년) : (여/남) = 0.18

표 2-13 성별 주택보유율

	2000	2005
여성	12.3	15.1
남성	87.7	84.9
여/남	0.14	0.18



〈그림 2-10〉 성별 주택보유율



〈그림 2-11〉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성평등 지표값 (여성/남성, 남성 1기준)

성인지 지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성평등 지표값은 남성 대비 여성의 지표값으로 남성을 1로 보았을 때 여성의 상태를 나타내며, '1'이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상태이다.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8개 지표의 성평등 지표값을 살펴보면 대졸자 취업률 지표가 가장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평등 정도가 가장 취약한 지표는 주택보유율로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대졸자취업률의 성평등 지표값은 0.89이고, 그 뒤를 이어 정규직 비율이 0.73, 경제활동참가율이 0.70, 관리직비율이 0.67, 평균임금비가 0.65로 나타났다. 사업체 대표자 비율은 0.46, 노동조합원 비율은 0.24, 주택보유율은 0.18 로 낮게 나타났다. 2005~2007년까지 3개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시계열상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졸자 취업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값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성평등상태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 ① 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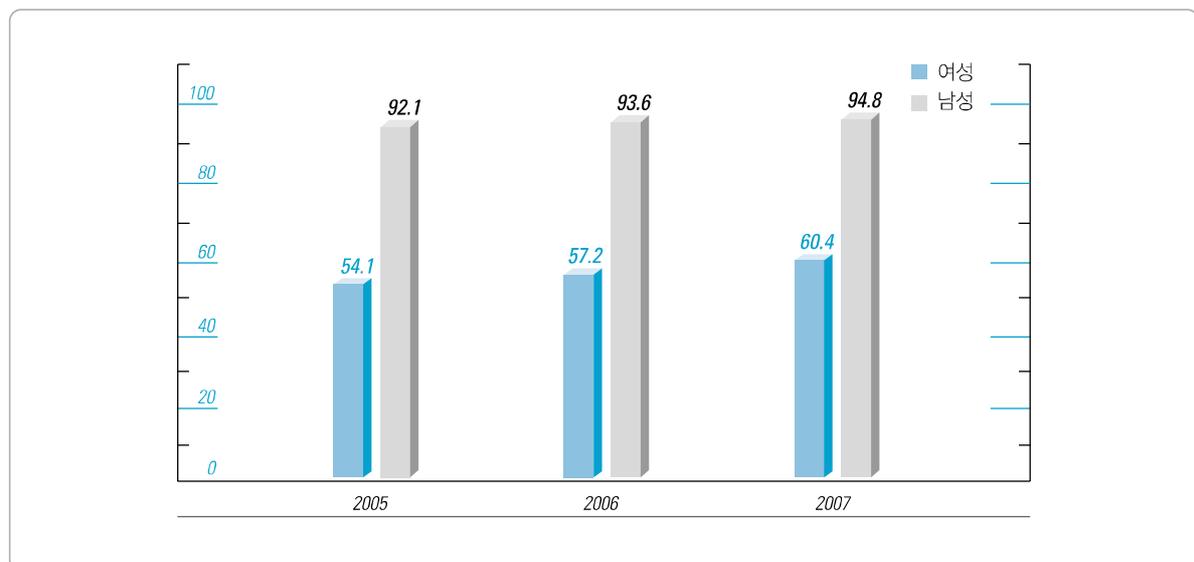
－ 산식 : 18~60세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text{국민연금 가입자 수} / \text{18~60세 전체인구}) \times 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76

▣ 표 2-14 ▣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2005	2006	2007
여성	54.1	57.2	60.4
남성	75.3	74.8	75.1
여/남	<b>0.72</b>	<b>0.76</b>	<b>0.80</b>



〈그림 2-12〉 성별 서울시 18~60세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표 2-15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29.9	32.8	34.5	36.4	37.1	38.1	39.1
남성	70.1	67.2	65.5	63.6	62.9	61.9	60.9
여/남	0.43	0.49	0.53	0.57	0.59	0.62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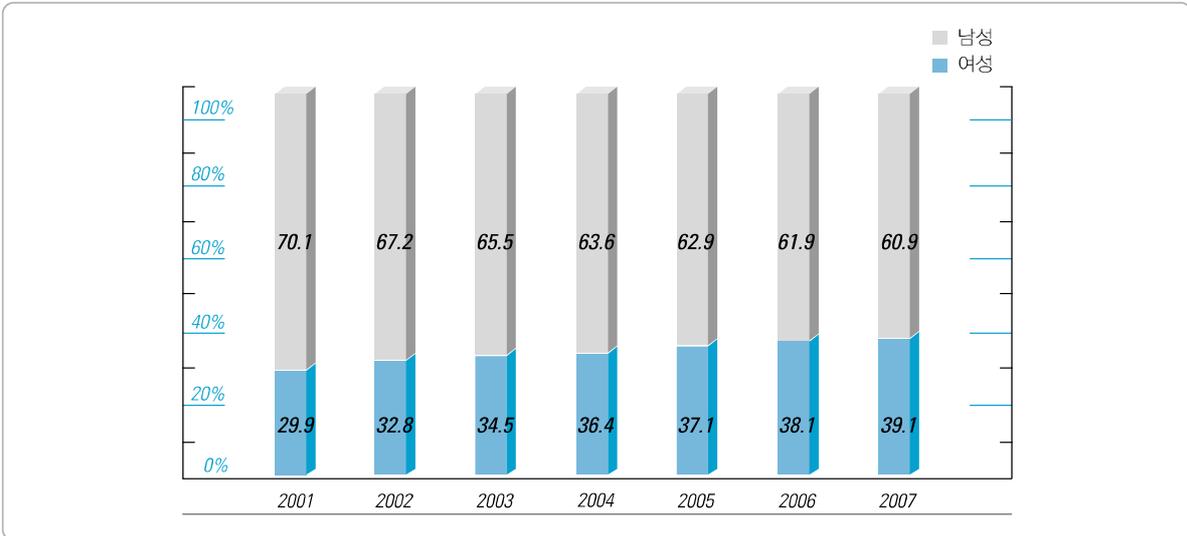


그림 2-13 |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표 2-16 | 성별 국민연금수급자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38.3	36.9	35.9	36.6	37.5	37.8	37.8
남성	61.7	63.1	64.1	63.4	62.5	62.2	62.2
여/남	0.62	0.58	0.56	0.58	0.60	0.61	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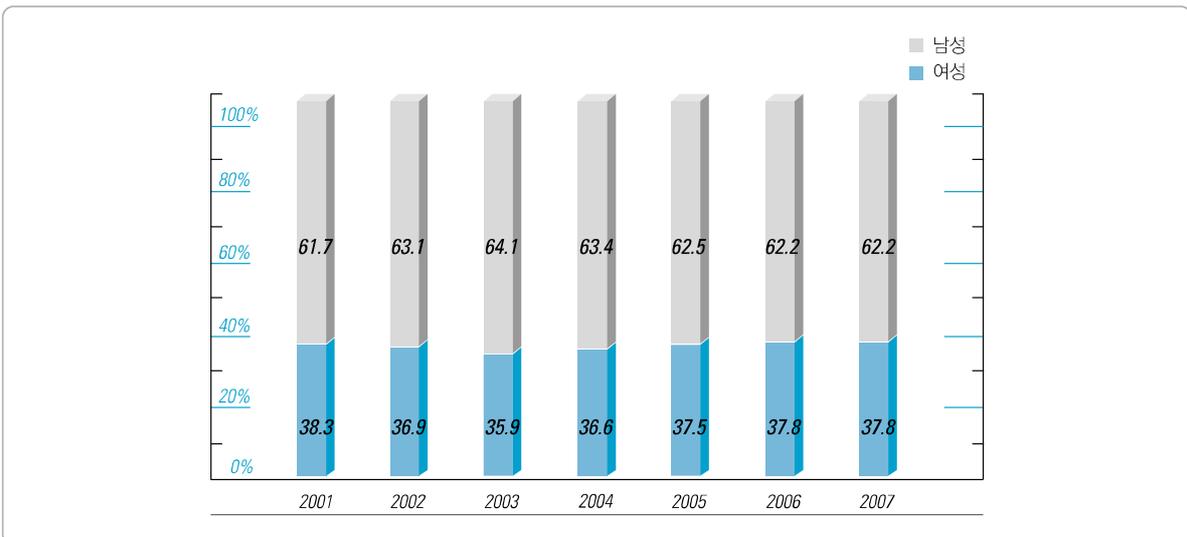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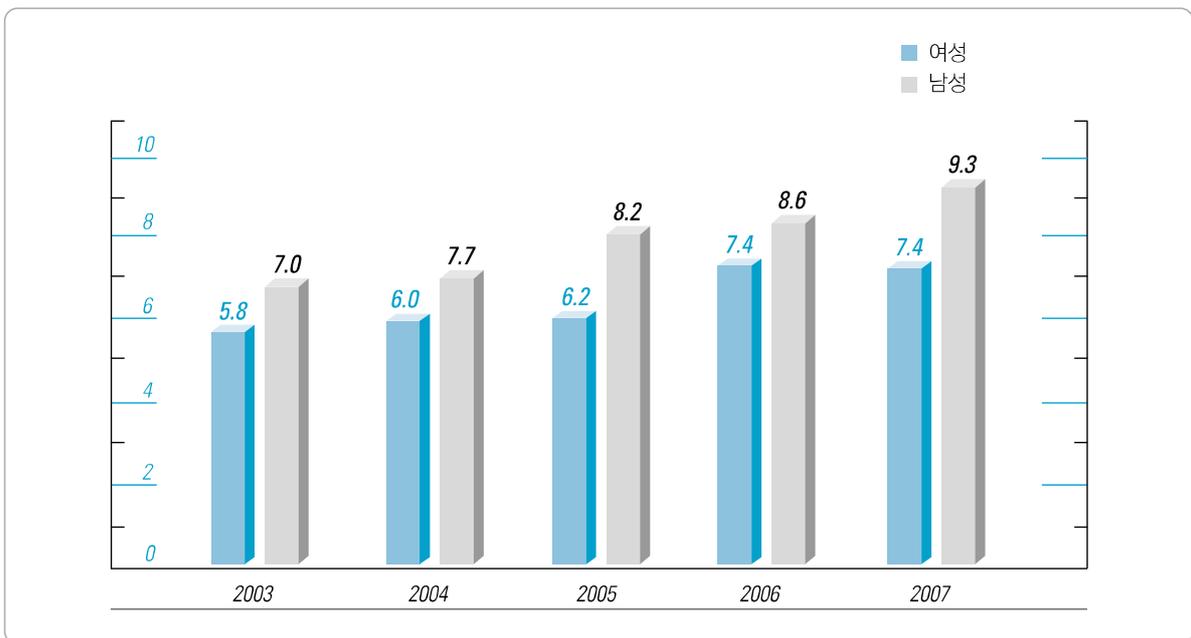
그림 2-14 | 성별 국민연금수입자 비율

②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 산식 : 60세이상 여성노인취업률 = (60세이상여성노인취업자수 / 15세이상전체여성취업자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86

표 2-17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5.8	6.0	6.2	7.4	7.4
남성	7.0	7.7	8.2	8.6	9.3
여/남	0.83	0.78	0.76	0.86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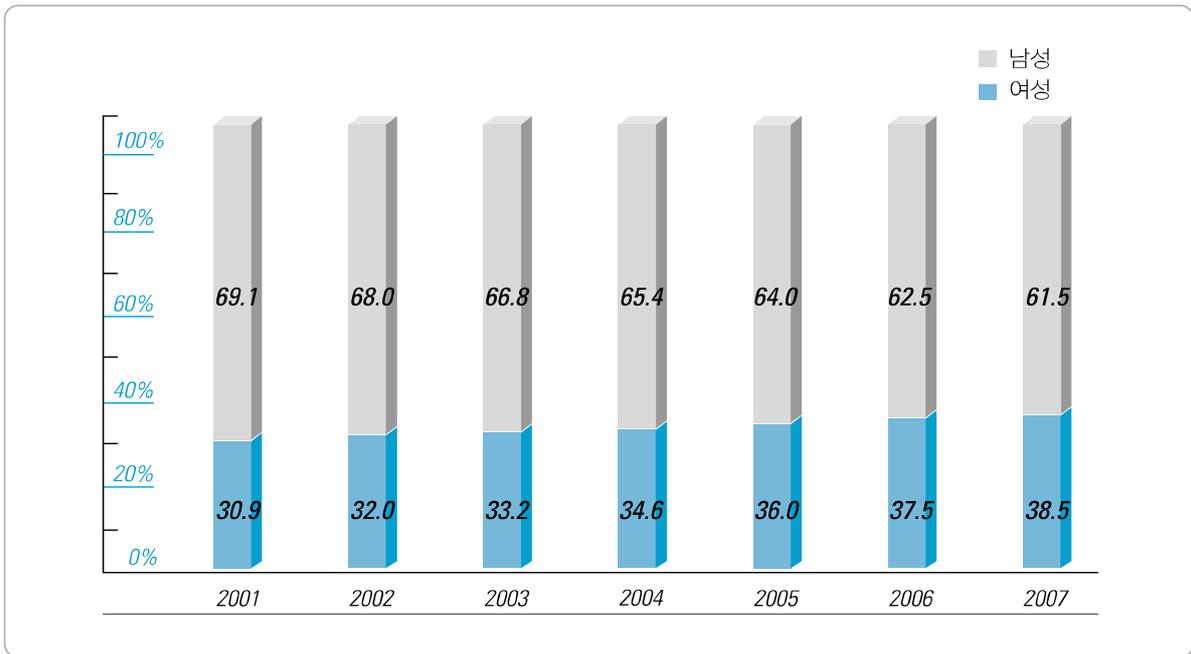
〈그림 2-15〉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

③ 성별 장애인 등록률

- 산식 : 여성장애인등록률 = (여성장애인등록수/서울시전체장애인구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60

표 2-18 성별 장애인 등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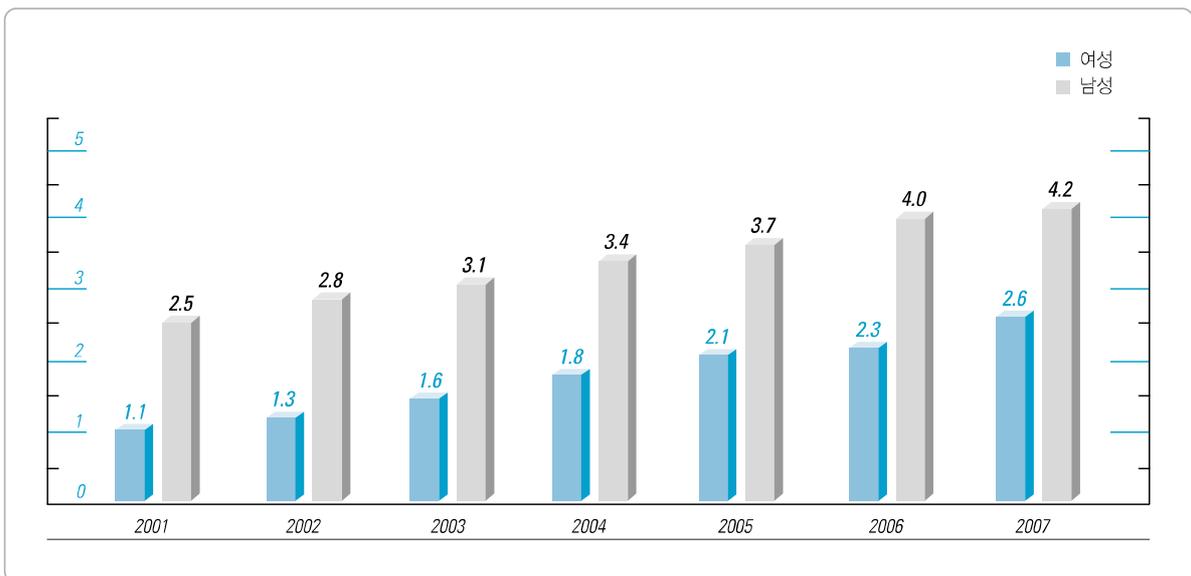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30.9	32.0	33.2	34.6	36.0	37.5	38.5
남성	69.1	68.0	66.8	65.4	64.0	62.5	61.5
여/남	0.45	0.47	0.50	0.53	0.56	0.60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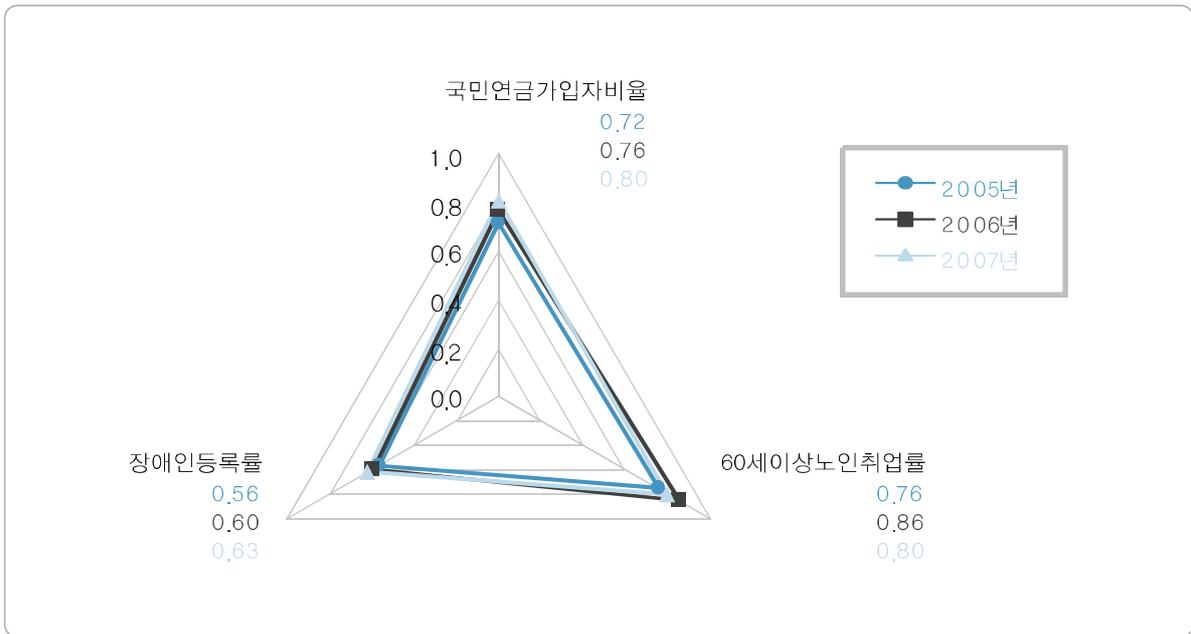
〈그림 2-16〉 성별 장애인 등록률

▮ 표 2-19 ▮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1.1	1.3	1.6	1.8	2.1	2.3	2.6
남성	2.5	2.8	3.1	3.4	3.7	4.0	4.2
여/남	0.44	0.46	0.52	0.53	0.57	0.58	0.62



〈그림 2-17〉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



〈그림 2-18〉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성평등 지표값 (여성/남성, 남성 1기준)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3개 지표의 성평등 지표값은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과 국민연금가입자비율 동률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장애인등록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0.80, 국민연금 가입자비율은 0.80, 장애인등록률은 0.63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까지 3개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시계열상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지표가 근소하지만 성평등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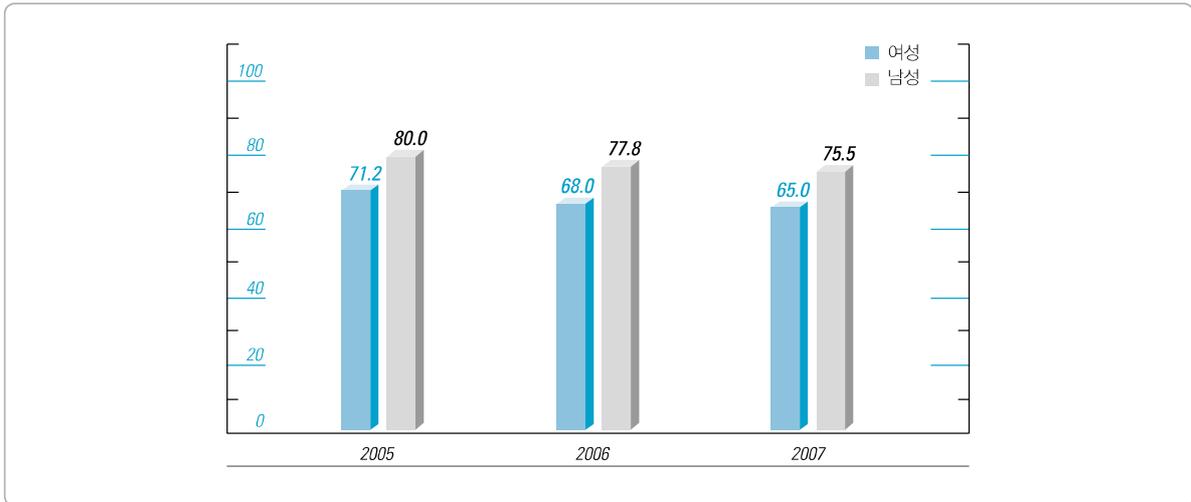
###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 산식 : 인터넷 활용 가능률 =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 지표값(2006년) : (여/남) = 0.87

【 표 2-20 】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2005	2006	2007
여 성	71.2	68.0	65.0
남 성	80.0	77.8	75.5
여 / 남	<b>0.89</b>	<b>0.87</b>	<b>0.86</b>



〈그림 2-19〉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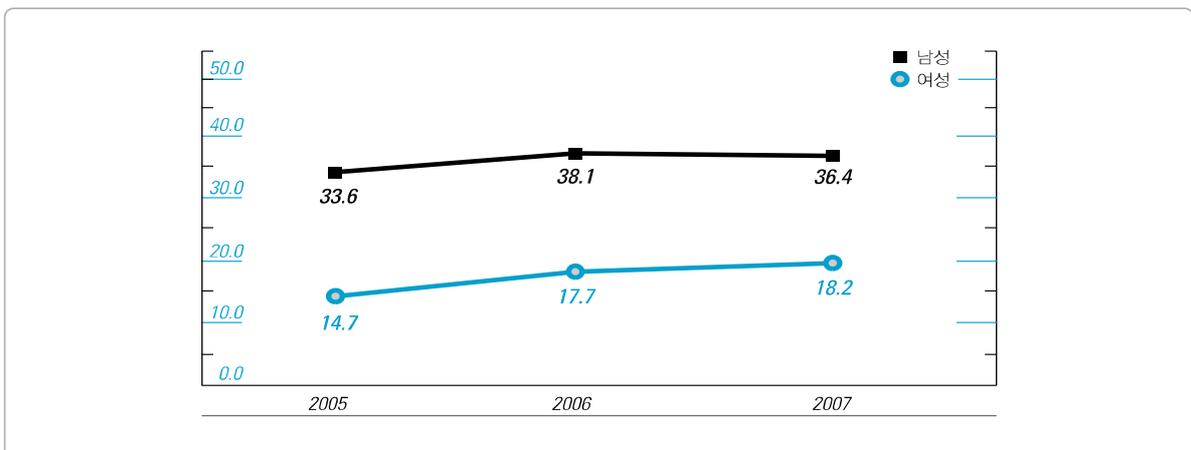
②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 산식 :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름  
(범죄피해+야간보행)
- 지표값(2006년) : (여/남) = 0.46

▮ 표 2-21 ▮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2005	2006	2007
여성	14.7	17.7	18.2
남성	33.6	38.1	36.4
여/남	0.44	0.46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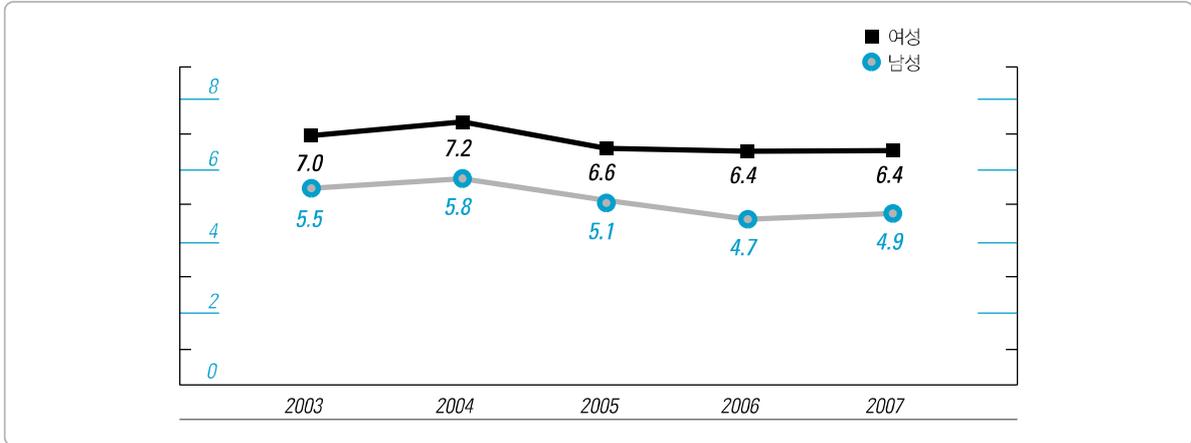
※ 주 : 도시안전도 : 도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에서 두렵지 않다("안전하다") 항목과 도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정도에서 불안하지 않다("안전하다")항목



〈그림 2-20〉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표 2-22 |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7.0	7.2	6.6	6.4	6.4
남성	5.5	5.8	5.1	4.7	4.9
여/남	1.27	1.24	1.29	1.36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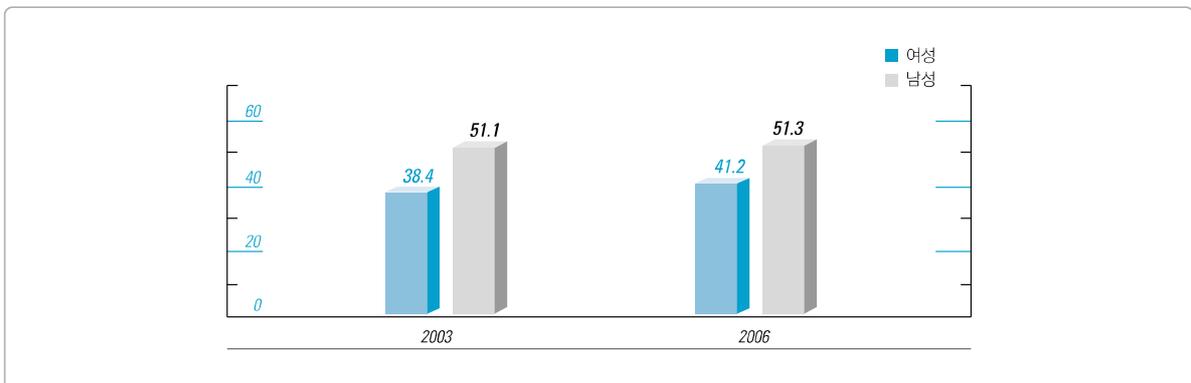
〈그림 2-21〉 성별 도시위험체감도

③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산식 :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의 비율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따름.
- 지표값(2006년) : (여/남) = 0.80

표 2-23 |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2003	2006
여성	38.4	41.2
남성	51.1	51.3
여/남	0.75	0.80



〈그림 2-2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④ 성별 건강검진률

- 산식 : 여성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검진대상 여성의 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81

표 2-24 성별 건강검진률

	2005	2006	2007
여성	42.6	38.4	50.2
남성	49.3	47.5	53.9
여/남	0.86	0.81	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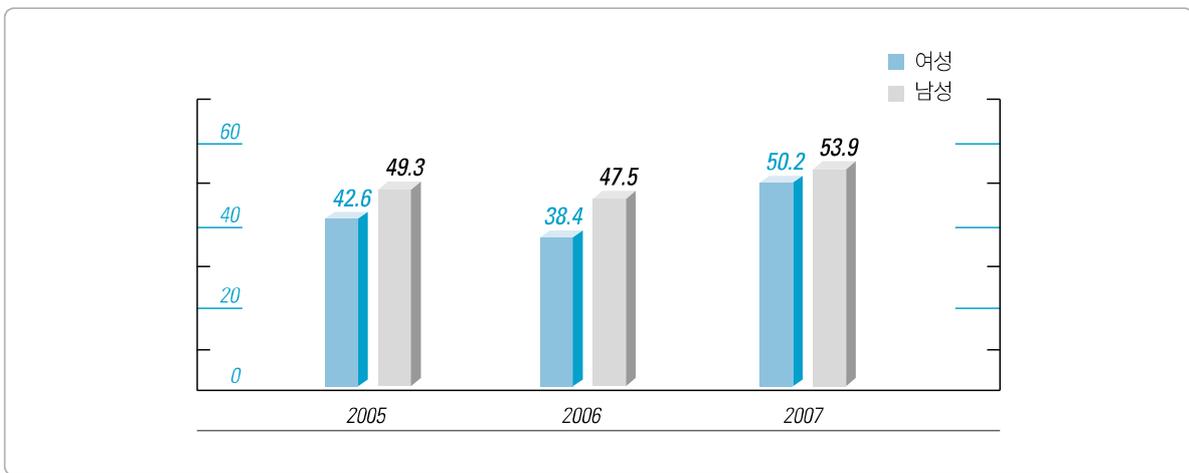


그림 2-23 성별 건강검진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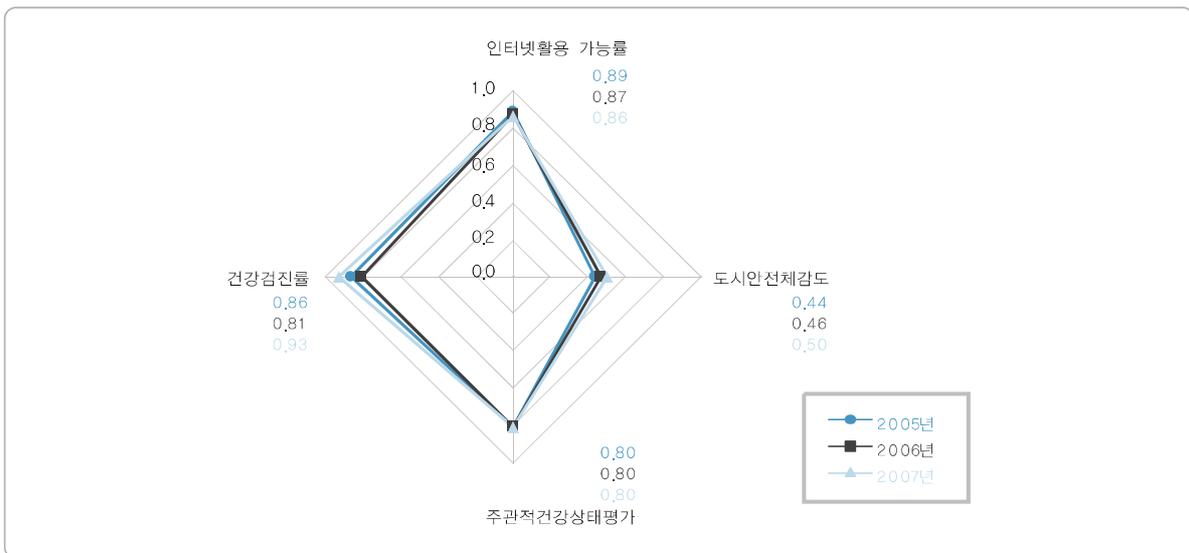


그림 2-2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 성평등 지표값 (여성/남성, 남성 1기준)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 4개 지표의 성평등 지표값은 건강검진률이 가장 높고, 도시 안전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건강검진율은 0.93,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0.86,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0.80, 도시안전체감도는 0.50이다. 2005~2007년까지 3개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건강검진율과 도시안전체감도는 성평등 지표값이 조금씩 높아졌으며,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시계열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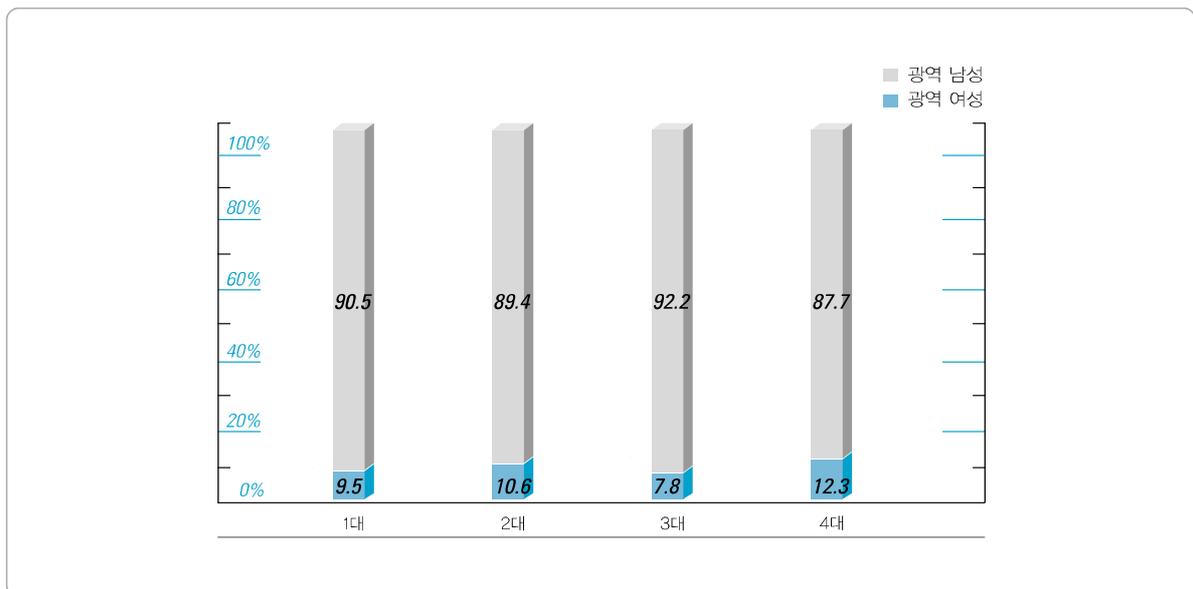
####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 ①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

- 산식 : 광역의회여성의원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100
- 지표값(4대) : (여/남) = 0.14

▣ 표 2-25 ▣ 광역의원 비율

성 별	1대	2대	3대	4대
여 성	9.5	10.6	7.8	12.3
남 성	90.5	89.4	92.2	87.7
여/남	<b>0.10</b>	<b>0.12</b>	<b>0.08</b>	<b>0.1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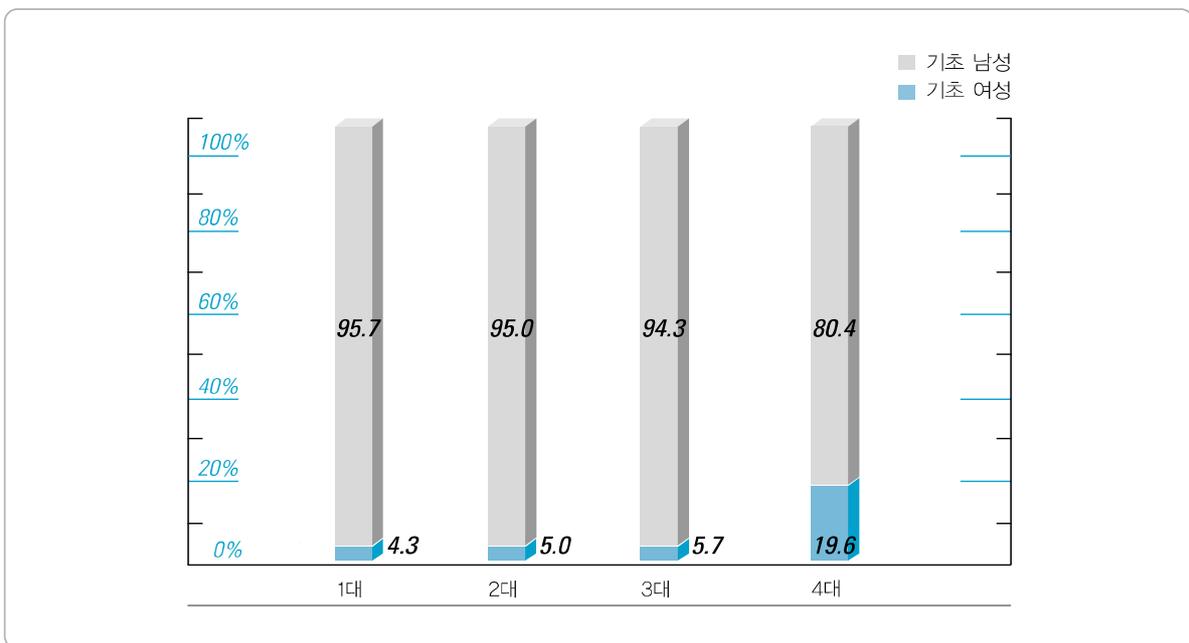
〈그림 2-25〉 성별 광역의원 비율

②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 산식 : 기초의회여성의원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100
- 지표값(4대) : (여/남) = 0.24(기초)

▮ 표 2-26 ▮ 성별 기초의원 비율

성별	1대	2대	3대	4대
여성	4.3	5.0	5.7	19.6
남성	95.7	95	94.3	80.4
여/남	<b>0.04</b>	<b>0.05</b>	<b>0.06</b>	<b>0.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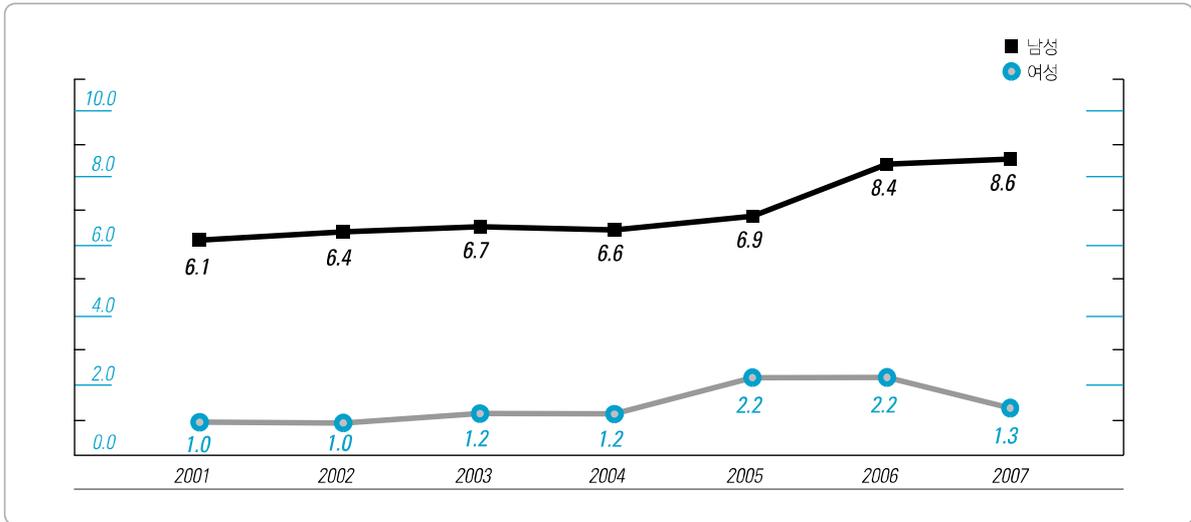
〈그림 2-26〉 성별 기초의원 비율

③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26

▮ 표 2-27 ▮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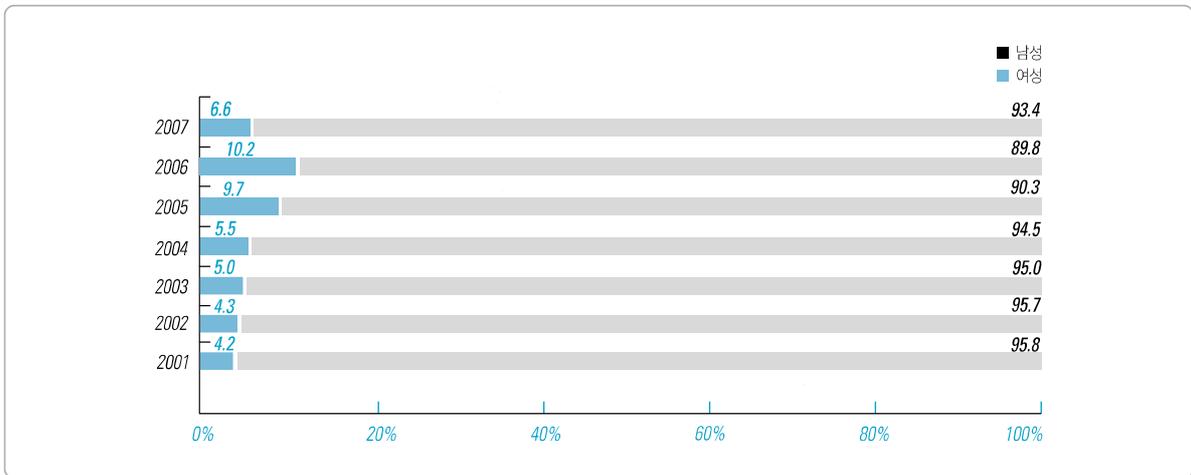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1.0	1.0	1.2	1.2	2.2	2.2	1.3
남성	6.1	6.4	6.7	6.6	6.9	8.4	8.6
여/남	<b>0.16</b>	<b>0.16</b>	<b>0.18</b>	<b>0.18</b>	<b>0.32</b>	<b>0.26</b>	<b>0.15</b>



〈그림 2-27〉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표 2-28 ▮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4.2	4.3	5.0	5.5	9.7	10.2	6.6
남성	95.8	95.7	95.0	94.5	90.3	89.8	93.4
여/남	<b>0.04</b>	<b>0.04</b>	<b>0.05</b>	<b>0.06</b>	<b>0.11</b>	<b>0.11</b>	<b>0.0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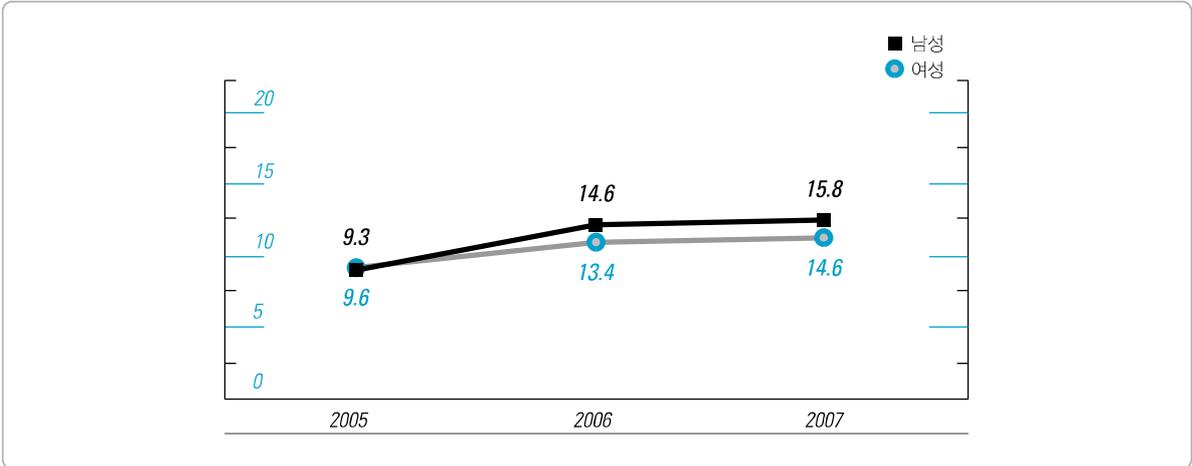
〈그림 2-28〉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④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 산식 :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 (주요부서 공무원 수/전체 공무원 수)×100
- 지표값(2006년) : (여/남) = 0.92

표 2-29 |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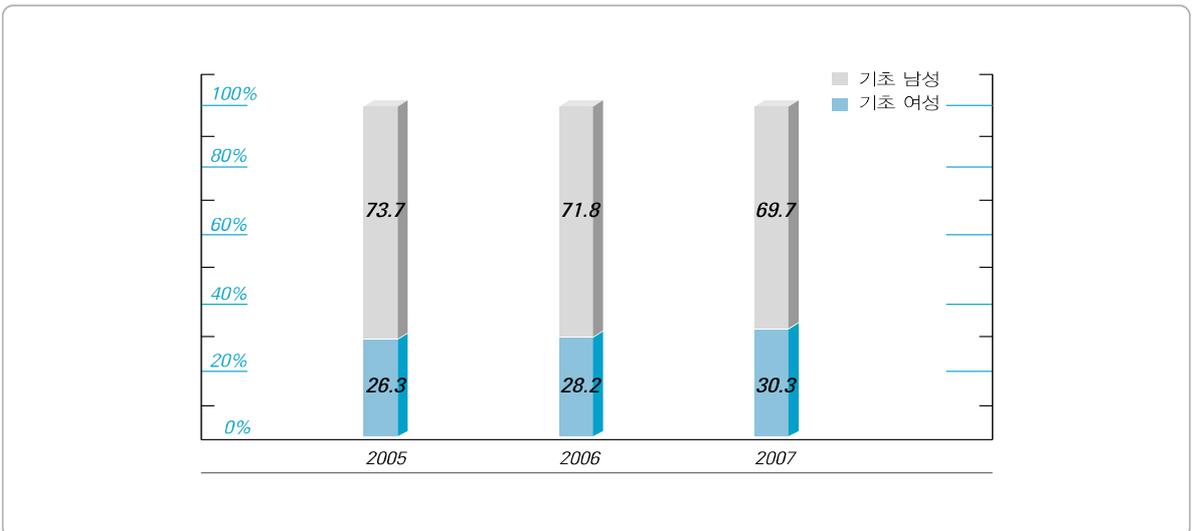
	2005	2006	2007
여성	9.6	13.4	14.6
남성	9.3	14.6	15.8
여/남	1.03	0.92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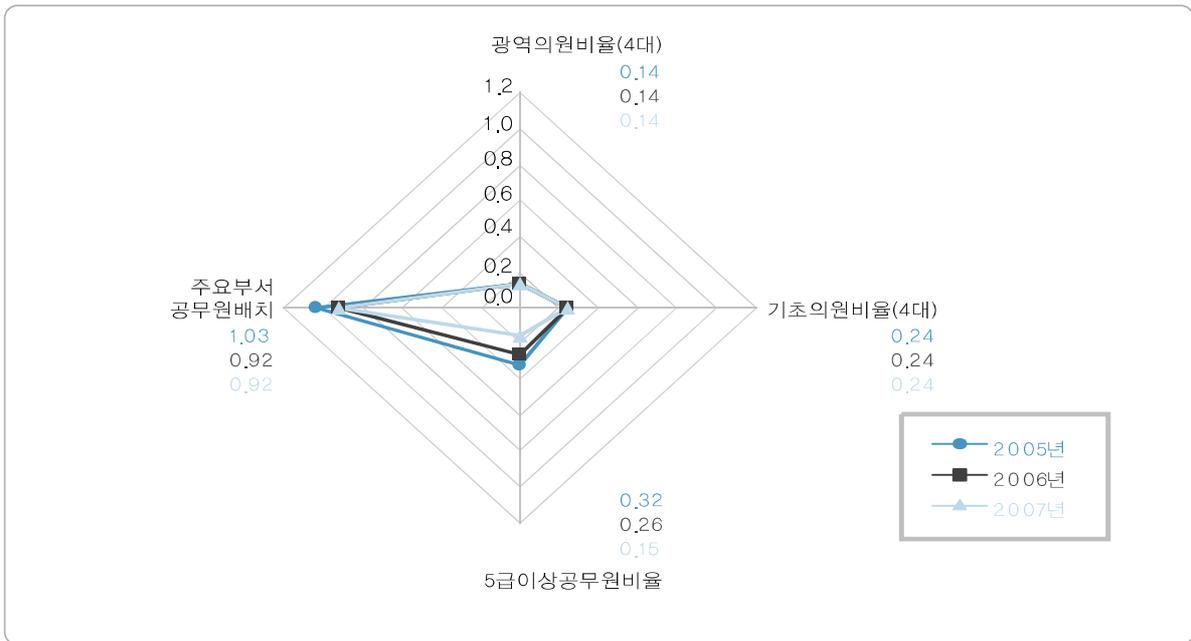
〈그림 2-29〉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표 2-30 |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2005	2006	2007
여성	26.3	28.2	30.3
남성	73.7	71.8	69.7
여/남	0.36	0.39	0.43



〈그림 2-30〉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비율



〈그림 2-31〉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성평등 지표값 (여성/남성, 남성 1기준)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 4개 지표의 성평등 지표값은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이 가장 높고, 광역의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은 0.9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남성을 1로 보았을 때 0.15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비율은 0.14, 기초의원 비율은 0.24이다. 2005~2007년까지 3개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여성의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과 5급 이상 공무원 배치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성평등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성인지 지수 산출 과정

이상적으로 개발된 성인지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상태의 비교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게 해준다. 각 영역별 지표를 종합화해서 성평등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1) 측정된 지표가 각 영역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가, 2) 각 영역 내에서 측정된 지표의 중요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3) 지수산출 산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지수 산출 산식은 아래와 같다. 각 개별지표의 값  $g_{ij}$ 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얼마나 평등한가를 보여준다. 남성대비 여성의 데이터 값인 성평등 지표값( $g_{ij}$ )에 전문가조사에서 결정된 가중치( $q_{ij}$ )를 곱하였다. 지표의 성격은 남성대비 여성의 값이 클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구해진 가중 지표값( $G_{ij}$ )을 영역별로 더한 후 영역별 지표수( $m$ )로 나누어 영

역별 지수(Gi)를 구하고, 전체 지표의 지표값(Gij)을 더한 후 전체 지표수 19로 나누어 양성평  
등지수를 산출하였다.

$$g_{ij} = \text{각 지표별 남성대비 여성 지표값}$$

$$q_{ij} = \text{각 지표별 가중치}$$

I = 영역별 번호, j = 영역별 지표번호

$$G_{ij} = g_{ij} \times q_{ij}$$

$$G_i = \left( \sum_{j=1}^m G_{ij} \right) / m$$

Gi 는 각 영역별 지수  
m 은 각 영역별 지수에 포함된 지표의 수(총 7개의 지표는 제외됨)

$$G = \left( \sum_{j=1}^m G_i \right) / 19$$

G는 양성평등지수  
양성평등지수 산출 과정에 총 19개의 지표가 포함됨

표 2-31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	남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2.0	75.3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7	71.9	0.93	
	3. 성별 평균임금비	64.1	100.0	0.64	
	4. 성별 관리직 비율	22.0	35.0	0.63	
	5. 성별 정규직 비율	36.0	55.0	0.6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0	69.0	0.45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4	82.6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4.1	75.3	0.72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6.2	8.2	0.7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6.0	64.0	0.56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71.2	80.0	0.89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4.7	33.6	0.4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42.6	49.3	0.86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2.2	6.9	0.32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9.6	9.3	1.03	

표 2-32 2005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53	41.03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3	71.45	66.28		
	3. 성별 평균임금비	0.64	87.90	56.34		
	4. 성별 관리직 비율	0.63	77.00	48.40		
	5. 성별 정규직 비율	0.65	78.55	51.41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5	57.40	25.79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24		
	8. 성별 주택보유율 - 공동명의포함	0.18	57.37	10.2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72	76.07	54.65	47.12	44.02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6	64.87	49.05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56	66.93	37.6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9	67.50	60.08	58.29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4	85.14	37.25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2006년 자료	0.80	78.18	62.79		
	4. 성별 건강검진율	0.86	84.55	73.06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 4대	0.14	79.67	11.17	33.44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 4대	0.24	79.67	19.4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32	75.33	24.02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1.03	76.67	79.14		

표 2-33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	남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9	74.7	0.6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4	73.4	0.90	
	3. 성별 평균임금비	64.1	100	0.64	
	4. 성별 관리직 비율	22.8	35.3	0.65	
	5. 성별 정규직 비율	38.9	55.6	0.70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4	68.6	0.46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6	82.4	0.21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57.2	74.8	0.76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8.6	0.86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7.5	62.5	0.60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68.0	77.8	0.87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7.7	38.1	0.46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4. 성별 건강검진율	38.4	47.5	0.8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2.2	8.4	0.26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 비율	13.4	14.6	0.92	

표 2-34 2006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84.75	58.88	41.55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0	71.45	64.64		
	3. 성별 평균임금비	0.64	87.90	56.34		
	4. 성별 관리직 비율	0.65	77.00	49.73		
	5. 성별 정규직 비율	0.70	78.55	54.96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6	57.40	26.2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53.37	11.40		
	8. 성별 주택보유율 - 2005년 자료, 공동명의포함	0.18	57.37	10.2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 자 비율	0.76	76.07	58.17	51.38	44.05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6	64.87	55.82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0	66.93	40.16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7	67.50	59.00	57.42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6	85.14	39.55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0.80	78.18	62.79		
	4. 성별 건강검진율	0.81	84.55	68.35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 4대	0.14	79.67	11.17	30.17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 4대	0.24	79.67	19.4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 무원비율	0.26	75.33	19.73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 무원배치 비율	0.92	76.67	70.37		

표 2-35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표값

영역	지표명	여	남	성평등 지표값 (gij)	비고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1.5	73.9	0.70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5	72.9	0.89	
	3. 성별 평균임금비	64.7	100	0.65	
	4. 성별 관리직 비율	24.3	36.2	0.67	
	5. 성별 정규직 비율	42.1	57.7	0.73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4	68.6	0.46	2006년 자료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9.4	80.6	0.24	
	8. 성별 주택보유율	15.1	84.9	0.18	2005년 자료 공동명의 포함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60.4	75.1	0.80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7.4	9.3	0.80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38.5	61.5	0.6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기능률	65	75.5	0.86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18.2	36.4	0.50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41.2	51.3	0.80	2006년 자료
	4. 성별 건강검진율	50.2	53.9	0.93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12.3	87.7	0.14	4대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19.6	80.4	0.24	4대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1.3	8.6	0.15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14.6	15.8	0.92	

표 2-36 2007년 서울시 성인지 지수 산출

영역	지표명	성평등 지표값 (gij)	가중치 (qij)	가중 지표값 (Gij)	영역별 지수 (Gi)	양성평등 지수 (G)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70	84.75	59.06	42.25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89	71.45	63.71		
	3. 성별 평균임금비	0.65	87.90	56.87		
	4. 성별 관리직 비율	0.67	77.00	51.69		
	5. 성별 정규직 비율	0.73	78.55	57.31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2006 년 자료	0.46	57.40	26.27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4	53.37	12.85		
	8. 성별 주택보유율 - 2005년 자료, 공동명의포함	0.18	57.37	10.20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80	76.07	61.18	51.56	44.62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80	64.87	51.61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63	66.93	41.90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6	67.50	58.11	60.55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50	85.14	42.57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2006년 자료	0.80	78.18	62.79		
	4. 성별 건강검진율	0.93	84.55	78.74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 4대	0.14	79.67	11.17	28.21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 4대	0.24	79.67	19.42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비율	0.15	75.33	11.39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배치비율	0.92	76.67	70.84		

◆ 지수 산출 결과

▣ 표 2-37 ▣ 연도별 지표값과 지표별·영역별 가중치

영역	지표명	2005년 여/남	2006년 여/남	2007년 여/남	지표별 가중치	영역별 가중치
여성의 경제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0.69	0.69	0.70	84.75	70.97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0.93	0.90	0.89	71.45	
	3. 성별 평균임금비	0.64	0.64	0.65	87.90	
	4. 성별 관리직 비율	0.63	0.65	0.67	77.00	
	5. 성별 정규직 비율	0.65	0.70	0.73	78.55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0.45	0.46	0.46	57.40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0.21	0.21	0.24	53.37	
	8. 성별 주택보유율 - 2005년 자료, 공동명의포함	0.18	0.18	0.18	57.37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1. 성별 전체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0.72	0.76	0.80	76.07	69.29
	2.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0.76	0.86	0.80	64.87	
	3. 성별 장애인 등록률	0.56	0.60	0.63	66.9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0.89	0.87	0.86	67.50	78.84
	2. 성별 도시안전체감도	0.44	0.46	0.50	85.1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2006년 자료	0.80	0.80	0.80	78.18	
	4. 성별 건강검진율	0.86	0.81	0.93	84.55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의회 의원비율 - 4대	0.14	0.14	0.14	79.67	77.83
	2. 성별 기초의회 의원비율 - 4대	0.24	0.24	0.24	79.67	
	3.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0.32	0.26	0.15	75.33	
	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1.03	0.92	0.92	7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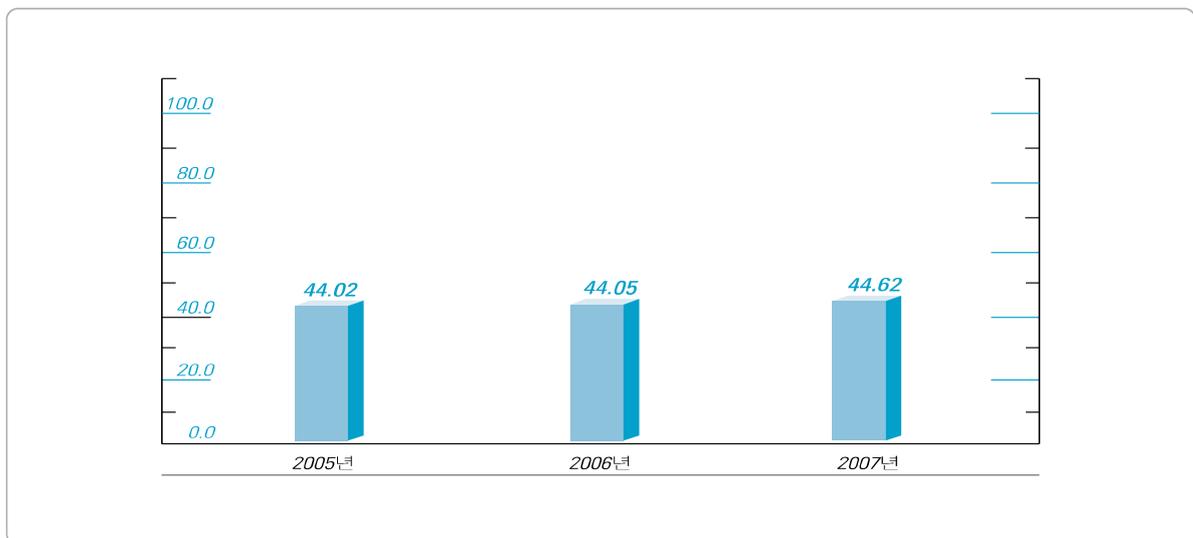
성인지 지수는 총 19개 인 성인지 지표의 각 지표별 남성 대비 여성의 지표값과 해당 지표에 대한 가중치에 의해 결정된다. 가중치가 높은 영역인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성인지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가중치가 77.83이지만 성인지 지수는 2007년 기준 28.2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0.14)과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0.24),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지표(0.15)의 성평등 지표값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산출된 성인지 지수는 2005년의 44.02에서 2006년 44.05, 2007년의 44.62로, 변화 폭이 크지는 않지만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2005년과 비교할 때 2007년에는, 소폭이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오히려 불평등상황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별 전체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남성 대비 여성의 지표 값이 2005년 0.32에서 2007년 0.15로 떨어졌고 성별 전체 공무원 중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 비율 또한 2005년의 1.03에서 0.9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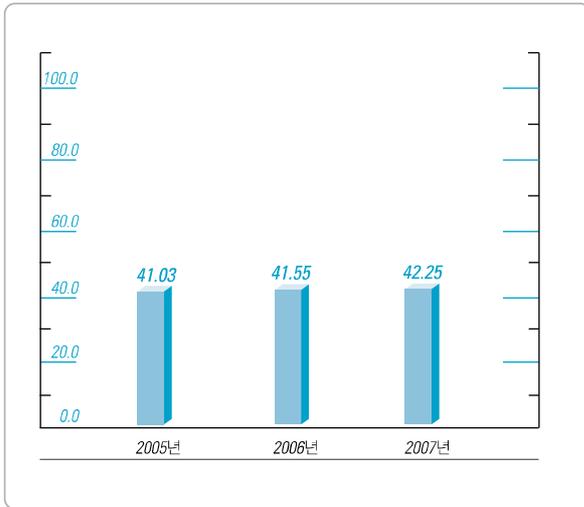
표 2-38 서울시 성인지 지수 및 각 영역별 지수의 연도별 변화

영역명	2005	2006	2007
<b>전 체</b>	<b>44.02</b>	<b>44.05</b>	<b>44.62</b>
여성의 경제세력화	41.03	41.55	42.25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47.12	51.38	51.56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58.29	57.42	60.55
여성의 대표성 제고	33.44	30.17	2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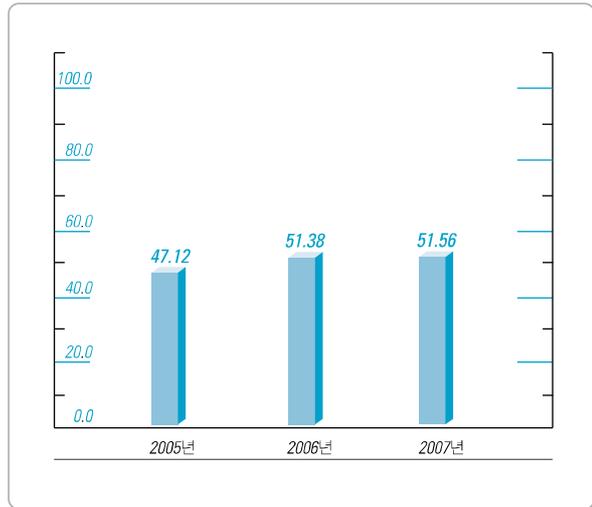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를 경과하면서 서울시의 전체 성인지 지수는 미약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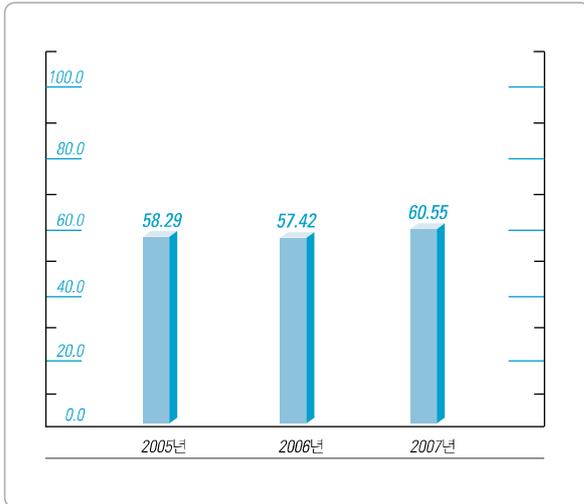
〈그림 2-32〉 전체 서울시 성인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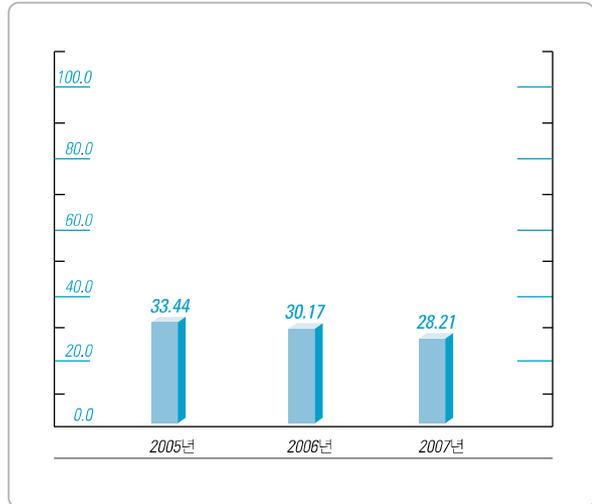
〈그림 2-33〉  
여성의 경제세력화 성인지 지수



〈그림 2-34〉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그림 2-3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그림 2-3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인지 지수 성인지 지수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영역 중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서울시의 경우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을 제외한 여성의 경제세력화 영역,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영역,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 서울시 성인지지표 국제 비교



# III 서울시 성인지지표 국제 비교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는 시계열 비교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국가나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비교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OECD 10개 국가와 비교하여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측정값과 OECD 국가의 지표 측정값을 비교를 하였다. 서울시 성인지지표가 도시단위의 통계인데 반해, OECD 자료는 국가단위의 통계자료이며, 비교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이나 전반적인 서울시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제비교에는 서울시 성인지지표와 국제지표와의 정의나 산식의 차이가 있고, 성별분리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국제지표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로 산출되는 경제영역, 일/가정양립영역, 대표성 영역 지표들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은 OECD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와 UNDP, UNECE 자료, 그리고 World Economy Forum에서 생산한 성별격차지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sex)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국가 및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서울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OECD 국가와 서울시의 경제활동 참가율 산출 방식이 다르고 도시와 국가라는 비교단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OECD 국가와의 비교는 서울시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제활동참가율 정의는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인 반면, OECD 국가의 정의는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므로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도 2007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1.5%는 스웨덴 78.2%,

캐나다 74.3%는 물론 영국 69.8%, 호주 69.4%, 독일 69.3%, 미국 69.1%, 프랑스 65.5%, 61.9%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의 경제활동참여비율 격차를 크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남성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성비를 살펴보면 이태리 0.68, 일본 0.73, 한국 0.71인 반면 스웨덴 0.94, 캐나다 0.90, 영국 0.84로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국가에서 성별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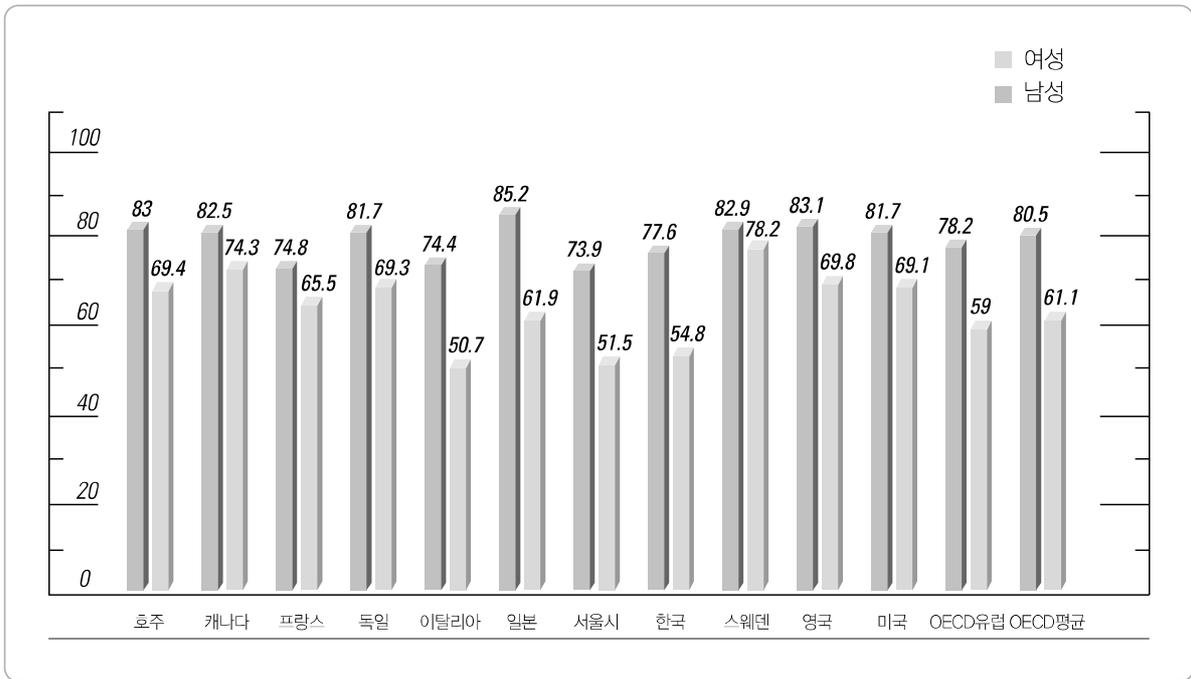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연도별 증가추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다. OECD 평균이 2002년 59.6%에서 2007년 60.1%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2002년 49.6%에서 2007년 51.5%로 증가하기는 하지만, 2005년 52%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 51.9%, 2007년 51.5%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표 3-1 OECD 국가의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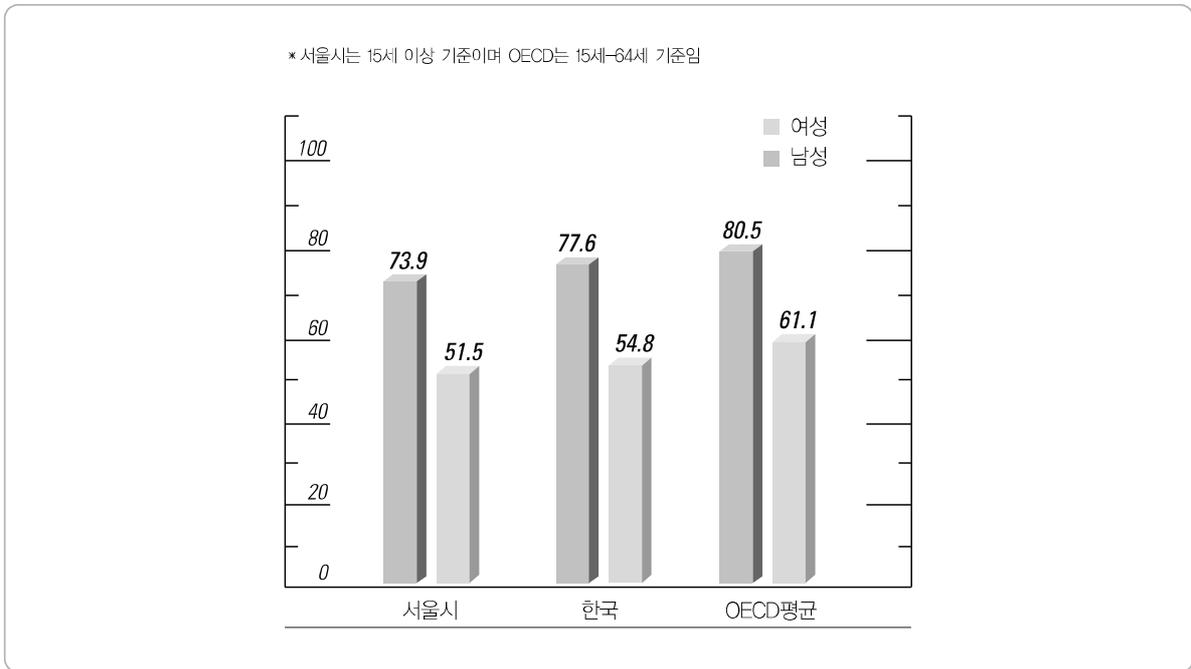
(단위: %)

		경제활동참여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주	여	66.3	67.1	66.9	68.4	68.9	69.4
	남	82.3	82.1	82.1	82.7	82.8	83.0
캐나다	여	72.1	73.2	73.4	73.1	73.5	74.3
	남	82.7	83.1	82.9	82.5	82.2	82.5
프랑스	여	62.1	63.4	63.8	63.8	65.0	65.5
	남	74.5	75.3	74.9	74.5	75.1	74.8
독일	여	64.2	64.5	65.8	66.9	68.5	69.3
	남	78.7	78.0	79.2	80.6	81.4	81.7
이태리	여	47.9	48.3	50.6	50.4	50.8	50.7
	남	74.5	74.8	74.5	74.4	74.6	74.4
일본	여	59.7	59.9	60.2	60.8	61.3	61.9
	남	84.8	84.6	84.2	84.4	84.8	85.2
한국	여	53.5	52.9	54.1	54.5	54.8	54.8
	남	77.9	78.0	78.3	78.2	77.7	77.6
스웨덴	여	77.1	76.8	76.6	77.7	77.7	78.2
	남	81.1	80.8	80.7	82.5	82.6	82.9
영국	여	69.3	69.2	69.6	69.6	70.3	69.8
	남	83.3	83.6	83.1	83.0	83.2	83.1
미국	여	70.1	69.7	69.2	69.2	69.3	69.1
	남	83.0	82.2	81.9	81.8	81.9	81.7
OECD 유럽	여	57.0	57.2	57.8	58.1	58.7	59.0
	남	77.4	77.2	77.6	77.9	78.1	78.2
OECD 계	여	59.6	59.6	60.1	60.4	60.9	61.1
	남	80.4	80.1	80.2	80.3	80.5	80.5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그림 3-1〉 서울시, 한국, OECD 국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그림 3-2〉 서울시, 한국, OECD 평균,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7)

## 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by sex)

서울시 여성 대졸자 취업률은 2006년 66.4%이고 2007년 65%이다. 서울시 기준은 당해년도 대졸 여성졸업자 중 여성취업자 비율을 산출한 반면 OECD 기준은 25세~64세 대졸 여성 중 여성취업자 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졸자 취업률이 OECD

【 표 3-2 】 OECD국가 교육정도별, 성별실업률 · 경제활동참여율, 취업률(25세-64세)(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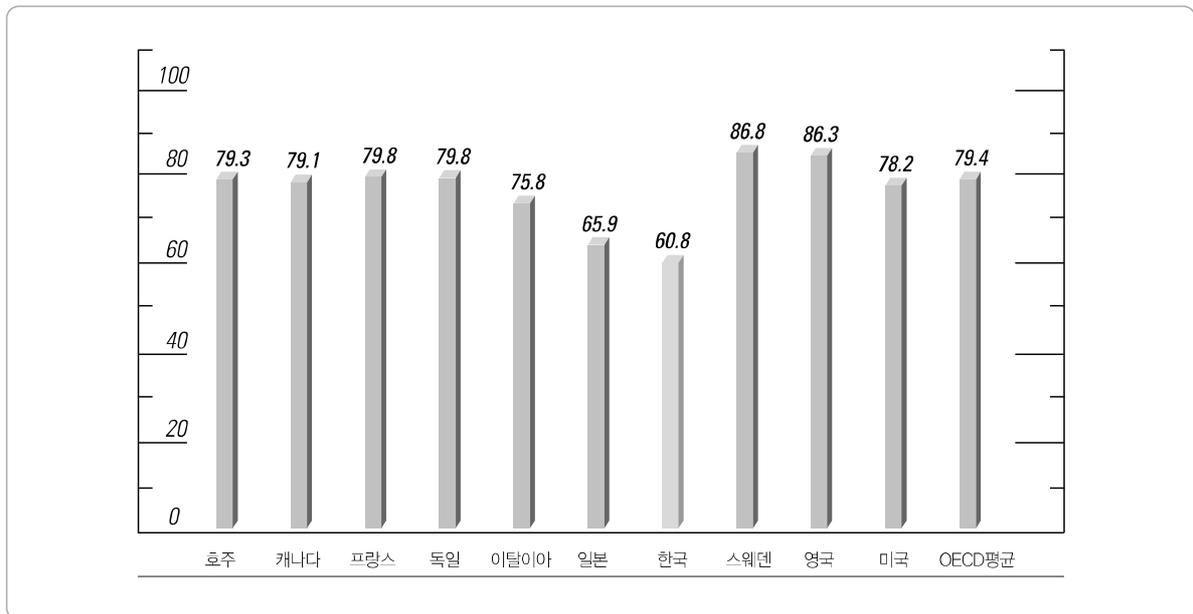
(단위: %)

		남			여		
		중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이상	3차 교육	중등교육 이하	중등교육 이상	3차 교육
호주	실업률	6.0	3.3	2.0	5.2	4.7	2.5
	경제활동참가율	80.1	90.8	92.1	57.5	73.1	81.4
	취업률	75.3	87.8	90.3	54.5	69.6	79.3
캐나다	실업률	8.8	5.7	4.1	10.1	5.6	4.1
	경제활동참가율	72.9	86.4	90.5	51.4	73.8	82.5
	취업률	66.5	81.5	86.7	46.4	69.7	79.1
프랑스	실업률	10.0	5.5	5.1	12.0	8.0	5.1
	경제활동참가율	73.2	85.5	91.4	58.4	75.7	84.1
	취업률	65.8	80.8	86.8	51.4	69.7	79.8
독일	실업률	21.4	10.1	4.5	18.4	9.7	5.3
	경제활동참가율	82.2	86.6	91.8	56.9	74.5	84.2
	취업률	64.6	77.8	87.6	46.4	67.3	79.8
이태리	실업률	5.3	3.4	3.7	10.2	6.1	5.9
	경제활동참가율	75.5	86.9	89.5	37.1	68.9	80.5
	취업률	71.5	83.9	86.1	33.3	64.7	75.8
일본	실업률	-	4.9	3.0	-	4.1	3.0
	경제활동참가율	-	91.8	95.7	-	62.3	67.9
	취업률	-	87.3	92.8	-	59.8	65.9
한국	실업률	3.7	4.0	3.0	1.7	2.5	2.7
	경제활동참가율	81.2	88.3	91.9	59.4	57.0	62.4
	취업률	78.2	84.8	89.2	58.4	55.5	60.8
스웨덴	실업률	6.7	4.9	4.5	8.5	5.2	4.0
	경제활동참가율	79.6	89.9	92.0	62.4	82.2	90.4
	취업률	74.3	85.5	87.9	57.1	77.9	86.8
영국	실업률	6.5	3.9	2.5	4.9	4.1	2.0
	경제활동참가율	77.3	88.1	92.1	64.6	79.1	88.0
	취업률	72.3	84.7	89.8	61.5	75.9	86.3
미국	실업률	7.6	4.8	2.7	9.4	4.3	2.3
	경제활동참가율	76.2	83.9	90.2	48.3	70.0	80.0
	취업률	70.4	79.9	87.7	43.8	67.0	78.2
Total OECD	실업률	9.5	4.7	3.2	10.6	6.5	3.9
	경제활동참가율	76.9	88.2	92.0	52.7	71.1	82.5
	취업률	70.3	84.2	89.1	47.6	66.7	79.4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OECD 3차 교육 여성의 취업률은 2006년 OECD 평균이 78.9% 이고 2007년 79.4%로 증가하였으며, 남성도 2006년 88.7%에서 2007년 89.1%로 증가하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을 보면, OECD 국가 중 스웨덴이 8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국 86.3%이다. 그 뒤를 이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이 79%를 상회하고 있어서 OECD 국가의 고학력 여성 취업률은 전 연령대에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도 3차 교육 여성의 취업률은 75.8%로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일본을 비롯한 한국은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다. 한국과 일본의 3차 교육 이상 남성의 취업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 일본의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여성 대졸자 취업률 국제비교(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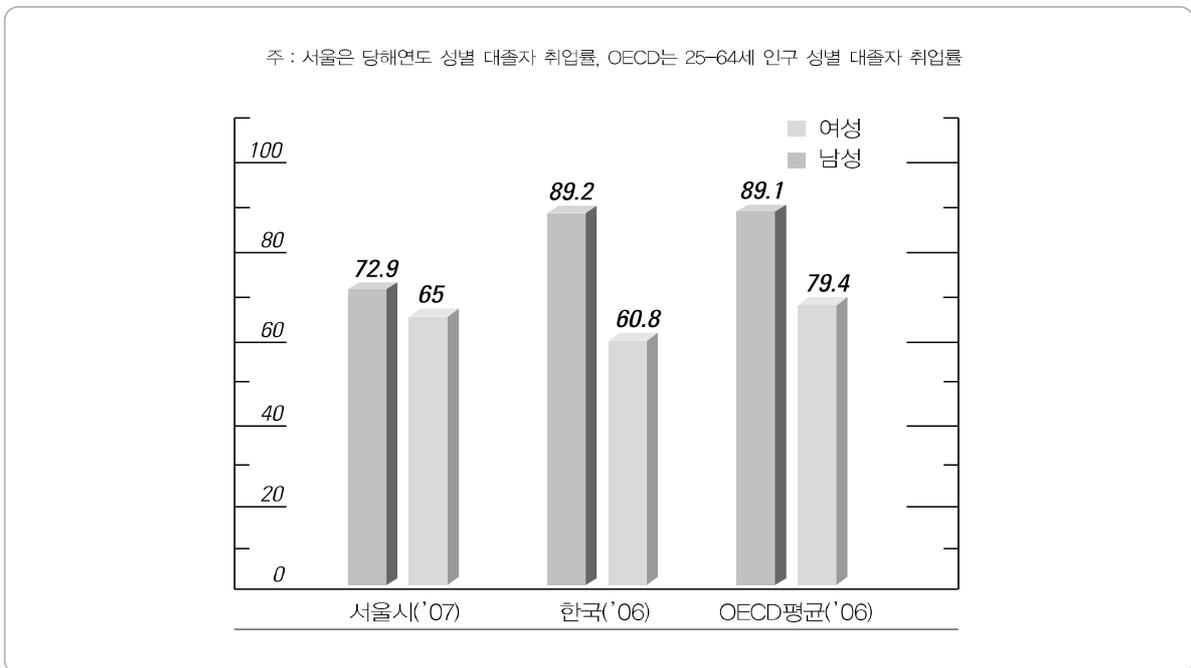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학력별 취업률을 보면, 남녀 모두 학력 수준이 상승할수록 취업률이 높고 성별격차도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서울)의 경우는 대학 및 3차 교육에서의 성별격차가 32로 중등교육이하 24보다 더 크고 OECD 평균 10보다도 3배 이상이 높다(OECD Employment Outlook, 2004). 2006년 한국의 고학력 취업률의 성별격차가 28.4로 줄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및 미취업 문제는 심각하며, 이들의 재취업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정책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표 3-3 OECD 국가 대졸이상 여성 고용률 및 성별격차(25세-64세)(2006)

(단위: %)

	대학 및 3차 교육	
	취업률	성별격차 (Gender gap)
호 주	79.3	11.0
캐 나 다	79.1	7.6
프 랑 스	79.8	7.0
독 일	79.8	7.8
이 태 리	75.8	10.3
일 본	65.9	26.9
한 국	60.8	28.4
스 웨 덴	86.8	1.1
영 국	86.3	3.5
미 국	78.2	9.5
OECD 평균	79.4	9.7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그림 3-4〉 성별 대졸자 취업률, 서울시(2007), 한국, OECD 평균(2006)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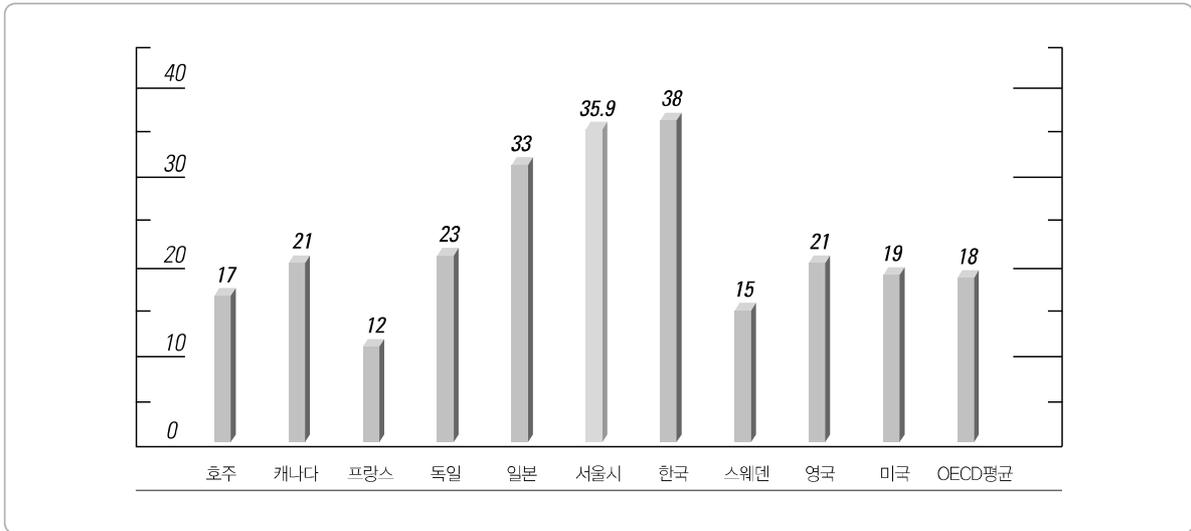
### 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서울시 성별 평균임금비는 2006년 64.1%, 2007년 64.7%로 2002년 63.0%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 역시 2002년 37.0에서 2006년 35.9, 2007년 35.3으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OECD 성별임금격차 표와 비교해 보면, 1996년 OECD 평균 22보다 격차가 크고, 2006년 18의 거의 두 배정도 성별 격차가 난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여성들의 임금 자체가 저임금이라는 것과 남성 대비 격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들이 비정규직, 하위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발생하기도 하므로 여성의 고용확대 및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표 3-4 OECD 성별 임금 차이(1996, 2006)

	성별 임금 차이	
	1996	2006
호 주	15	17
캐 나 다	25	21
프 랑 스	10	12
독 일	24	23
일 본	37	33
한 국	<b>42</b>	<b>38</b>
스 페 인	-	-
스 웨 덴	16	15
영 국	26	21
미 국	24	19
OECD 평균	22	18

※ 주 : 1.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 임금의 중앙값과 남성 임금 중앙값 대비 여성 임금의 중앙값의 차이로 계산됨.  
 2. 평균임금계산은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세전소득(gross earnings)을 사용하였음.  
 3. OECD 평균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 OECD database on Earnings Distribution.



〈그림 3-5〉 서울시·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비교(2006)

#### 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여성 관리직 비율은 여성의 세력화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서울시의 관리직 정의는 UNDP 관리직 정의와 일치시켜 구하였다. 서울시 성별 관리직 비율은 2006년 남성 35.3%, 여성 22.8%, 2007년 남성 36.2%, 여성 24.3%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한국의 성별 관리직 비율은 20.1%로 서울시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전국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 성별관리직 비율이 전국보다 높기는 하나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여성 비율은 더 상승해야 할 것이다. 2007년 OECD 국가의 관리직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42.8%, 핀란드가 42.3%, 호주와 뉴질랜드가 40.4% 수준이다. 스위스 18.3%, 일본 18.3%, 터키 14.5%로 한국보다 낮고 그 외의 국가는 3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OECD 29개국 평균 34.1%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성별 관리직 비율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표 3-5 여성권한척도(GEM) 관리직 비율(OECD 30개국)

국 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비율 (% of total)	여성 행정, 고위관리 비율 (% of total)	여성 전문가, 기술공 (% of total)	여성 관리직 비율 (의원, 행정·고위관리, 전문가·기술공)
아이슬란드	10	31.7	27	56	38.2
노르웨이	5	37.9	30	50	39.3
호주	4	28.3	37	56	40.4
캐나다	8	24.3	36	56	38.8
아일랜드	22	14.2	31	52	32.4

국 가	GEM 순위 (OECD 30개국)	여성 의회의원비율 (% of total)	여성 행정, 고위관리 비율 (% of total)	여성 전문가, 기술공 (% of total)	여성 관리직 비율 (의원, 행정·고위관리, 전문가·기술공)
스 웨 덴	1	47.3	30	51	42.8
스 위 스	28	24.8	8	22	18.3
일 본	26	11.1	10	46	22.4
네 덜 란 드	13	36	26	50	37.3
프 랑 스	20	13.9	37	47	32.6
핀 란 드	2	42	30	55	42.3
미 국	11	16.3	42	56	38.1
스 페 인	14	30.5	32	48	36.8
덴 마 크	9	36.9	25	53	38.3
오 스트 리 아	17	31	27	49	35.7
영 국	19	19.3	34	47	33.4
벨 기 에	7	35.7	32	49	38.9
룩셈부르크	-	23.3	-	-	-
뉴 질 란 드	3	32.2	36	53	40.4
이 탈 리 아	23	16.1	32	46	31.4
독 일	6	30.6	37	50	39.2
그 리 스	25	13	26	49	29.3
한 국	27	13.4	8	39	20.1
포 르 투 갈	18	21.3	34	50	35.1
체코공화국	21	15.3	30	52	32.4
헝 가 리	16	10.4	35	62	35.8
폴 란 드	12	19.1	33	61	37.7
슬로바키아	15	19.3	31	58	36.1
멕 시 코	24	21.5	29	42	30.8
터 키	29	4.4	7	32	14.5
29개국평균	-	24.0	28.7	49.6	34.1

※ 주 : 여성의원비율-상하양원에서 여성이 차지한 의석 비율, 여성 행정·고위관리 비율-ISCO-88(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을 기준으로 구한 측정치.  
수치부재로 29개국 평균에서 룩셈부르크는 제외함.  
자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 5) 성별 비정규직 비율(Rate of non-Regular Workers by sex)

성별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고용안정성 및 임금수준과 관련된 주요 지표이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로 구하였다. OECD 국가 통계는 성별 시간제 노동비율과 임시직 노동비율로 통계생산을 하고 있어 서울시의 비정규직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시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남성은 42.3%, 여성은 57.9%로 임금 노동자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성별 시간제 노동 고용비율을 보면, 남성들의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고용비율은 매우 낮는데 비해,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 호주, 영국에서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이 높는데 비해, 스웨덴 19.7%, 미국 17.9%, 한국 12.5%로 낮다. 파트타임 노동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임금, 하위직, 직업안정성이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노동을 주변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 비율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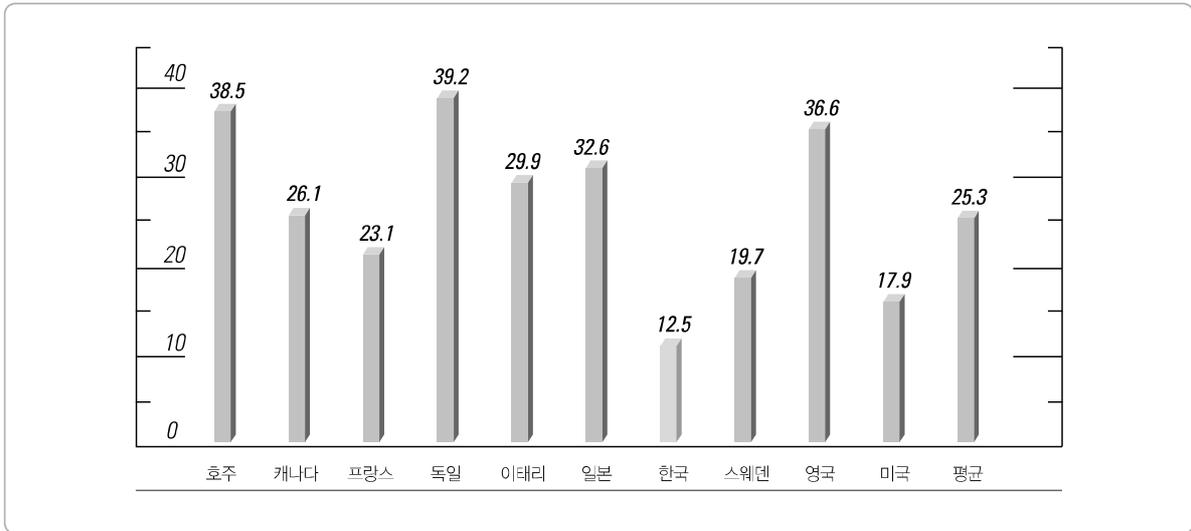
표 3-6 OECD 국가별 성별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단위 : 명, %)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고용 비율									
	남					여				
	1994	2004	2005	2006	2007	1994	2004	2005	2006	2007
호주	12.9	12.0	12.0	12.4	12.4	-	38.4	39.9	39.1	38.5
캐나다	10.8	10.9	10.8	10.9	11.0	28.8	27.2	26.9	26.2	26.1
프랑스	5.3	4.7	5.2	5.2	5.0	24.5	23.4	23.0	22.6	23.1
독일	3.0	6.3	7.4	7.6	7.9	28.0	37.0	39.4	39.1	39.2
이태리	4.2	5.6	5.1	5.3	5.4	20.6	28.7	29.2	29.4	29.9
일본	7.5	8.8	8.8	8.5	9.2	26.9	31.3	31.7	31.3	32.6
한국	2.9	5.9	6.5	6.3	6.3	6.8	11.9	12.5	12.3	12.5
스웨덴	7.1	8.5	8.5	8.4	9.5	24.9	20.8	19.0	19.0	19.7
영국	7.0	9.7	9.8	9.9	9.9	41.2	40.3	39.1	38.8	36.6
미국	8.5	8.1	7.8	7.8	7.6	20.4	18.8	18.3	17.8	17.9
OECD 평균	5.7	7.3	7.3	7.4	7.5	21.5	25.4	25.4	25.1	25.3

※ 주 : 파트타임 고용자는 주당 30시간 이하의 임금 근로를 말함.

자료 :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단, 새로운 호주 자료(2008년 발행)는 2007년 발행된 주당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를 둔 자료에서 2001년 이후 작업된 이용 가능한 일반적 주당 근로시간으로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음. 또한 Part-time 고용은 모든 직업군에 기초하고 있음. 일본의 새로운 자료의 Part-time 노동자 수는 2000년 이후 이용 가능한 주당 실제 근로시간인 3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 수를 의미함. 이것은 2007년 발행된 자료에서의 주당 35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 수에서 바뀐 것임.



〈그림 3-6〉 OECD 국가별 여성 시간제(Part-time) 고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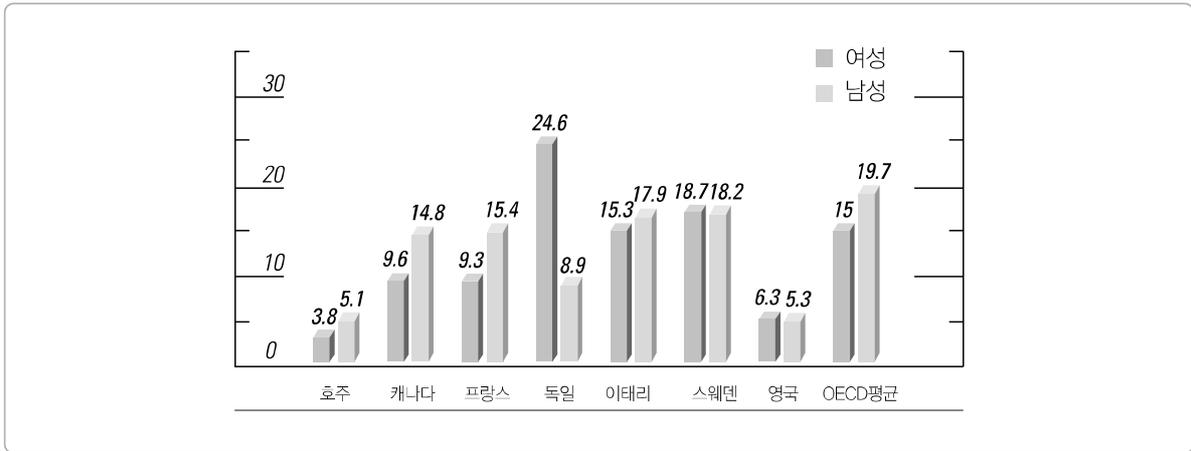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관련하여 OECD 국가별 임시직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임시직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 이것은 서울시의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것과 대비된다.

표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

(단위: %)

국 가	성별	2000	2001	2004	2006
호 주	여	-	3.3	2.9	3.8
	남	-	5.0	4.4	5.1
캐 나 다	여	8.4	8.6	8.9	9.6
	남	14.7	14.7	14.4	14.8
프 랑 스	여	10.2	10.3	9.7	9.3
	남	20.2	18.8	13.9	15.4
독 일	여	22.9	22.2	20.9	24.6
	남	17.5	16.7	16.5	18.9
이 태 리	여	2.5	2.4	3.5	15.3
	남	14.9	13.4	15.6	17.9
일 본	여	20.9	21.1	22.2	-
	남	13.0	13.3	14.7	-
스 웨 덴	여	2.7	2.7	2.8	18.7
	남	15.6	14.7	15.4	18.2
영 국	여	7.7	7.6	6.3	6.3
	남	7.2	7.1	5.7	5.3
미 국	여	-	4.4	-	-
	남	-	1.2	-	-
OECD 평균	여	15.2	-	15.3	15.0
	남	21.3	14.1	20.3	19.7

※ 자료 : OECD LFS database로 재구성



〈그림 3-7〉 OECD 국가별 성별 임시직(Temporary) 비율(2006)

## 6) 경제 세력화 영역 비교

서울시 여성의 경제 세력화 관련 지표를 국제지표와 비교해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임금 격차, 관리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지표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세계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경제참여 부문 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생산하는 GGI 지수는 경제부문(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부문(educational attainment), 정치세력부문(political empowerment), 건강부문(health and survival)의 4개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부문은 경제활동참여율, 동일조건 남녀임금차이, 근로소득차이, 관리직 비율,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의 5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지표에서 성별 격차(gender gap)를 구하여 국가별로 성별격차 지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30개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경제영역에서 한국은 130개 국가 중 110위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남성의 70%, 임금격차는 53%, 근로소득차이 40%, 관리직 비율 9%, 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 6.7%로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GGI 순위와 글로벌 경쟁력과 1인당 GDP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경쟁력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GGI 순위가 높게나온다(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이는 각 국가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증대 및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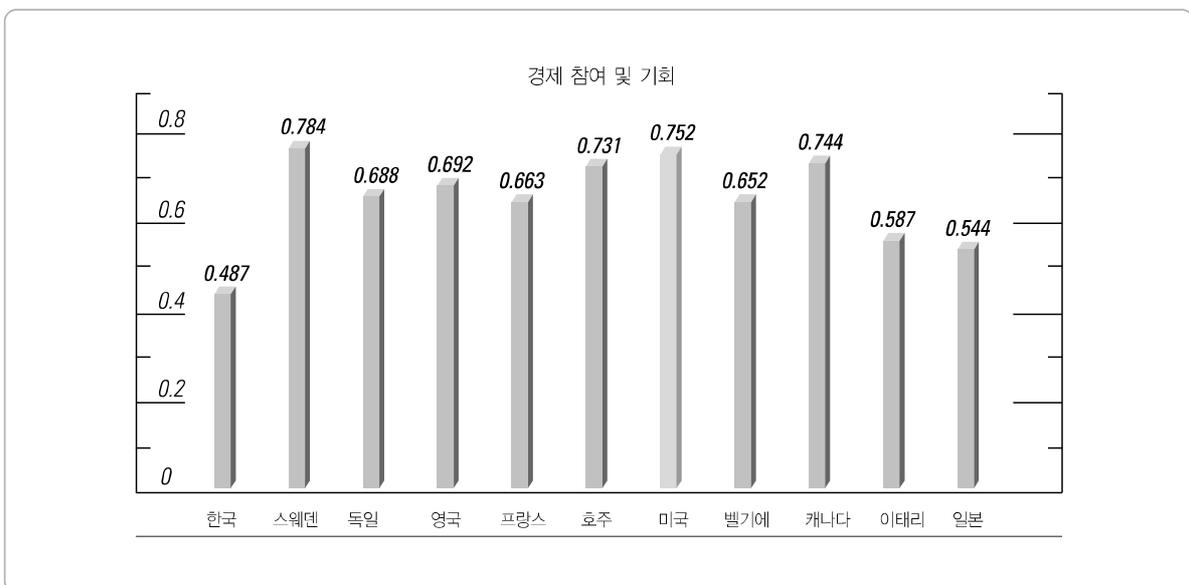
때문이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1인당 GDP를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의 경제 부문의 GGI 순위 110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경제활동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저임금 해소 및 관리직 부문 참여 증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표 3-8 경제영역 GGI 국가 각 지표별 지수 비교 (female-to-male ratio)

국가	세부 지표	지 수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경 제 참 여 및 기 회		0.487	0.784	0.688	0.692	0.663	0.731	0.752	0.652	0.744	0.587	0.544
순 위		110	5	45	42	53	22	12	60	15	85	102
남녀경제활동참여비율		0.70	0.95	0.86	0.85	0.85	0.84	0.86	0.80	0.89	0.69	0.72
남녀동일직종조건임금차이		0.53	0.73	0.57	0.82	0.50	0.64	0.69	0.60	0.71	0.54	0.59
남 녀 근 로 소 득 차 이		0.40	0.81	0.58	0.66	0.64	0.70	0.63	0.55	0.64	0.47	0.45
남 녀 관 리 직 비 율		0.09	0.48	0.61	0.53	0.59	0.60	0.72	0.46	0.57	0.49	0.11
남녀전문가 및 기술직 비율		0.67	1.00	1.00	0.89	0.89	1.00	1.00	0.96	1.00	0.88	0.85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경제활동참여율, 임금차이, 승진차이 등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참여는 시장노동참여, 보수는 임금소득, 승진은 관리직(고위관리직, 기술직, 전문근로자) 중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그림 3-8〉 GGI 국가별 경제참여 기회 지수

## 2.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

### 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서울시 국공립 시설 이용 비율은 2003년 29.8%에서 2006년 26.5%, 2007년 25.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시 보육체계는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시설 중 국공립 시설 비율이나 국공립 시설 이용 아동비율은 낮은 편이다.

아래의 표는 보육시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공립 이용 아동 비율 지표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OECD 국가의 보육시설 이용율을 보면, 한국은 전 연령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서울시의 2006년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33.9%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서울시와 한국에서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OECD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영미 외, 2006). 보육시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접근가능한가, 무상유아보육 지원이 어느 정도인가, 육아 휴직 조건이 양호한가 등 다양하다. 보육시설 등록률은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등록률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 표 3-9 ▮ OECD 국가별 보육시설 등록률(6세 이하 아동 대상)(2004)

(단위: %)

	3세 이하와 학령 전 3세에서 6세 이하 보육시설 등록률				3-5세 기대교육연수
	3세 이하	3세	4세	5세	3-5세
호 주('05)	29.0	55.0	64.6	90.0	1.8
캐 나 다('01)	19.0	-	-	-	-
프 랑 스('02)	26.0	100.0	100.0	100.0	3.2
독 일('01)	9.0	69.5	84.3	86.7	2.4
이탈리아('00)	6.3	98.7	100.0	100.0	3.0
일 본('04)	15.2	67.3	95.2	96.6	2.6
한 국('05)	19.9	59.5	66.4	88.7	0.9
스 웨 덴('04)	39.5	82.5	87.7	89.7	2.6
영 국('04)	25.8	50.2	92.0	98.2	2.4
미 국('05)	29.5	41.8	64.1	77.0	1.8

※ 자료 : OECD Family and Education databases, 2005.

##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서울시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2003년 19.2%에서 증가하여 2005년 24.7%, 2007년 2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아보육 시설 이용률의 상승은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좀 더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OECD 국가 내에서도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편차가 크고,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난다. 덴마크가 61.7%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가 58.7%로 높다. 같은 북구권에 속하는 노르웨이는 43.7%, 스웨덴은 39.5%이다.

서울시의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OECD 국가 중간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영아 보육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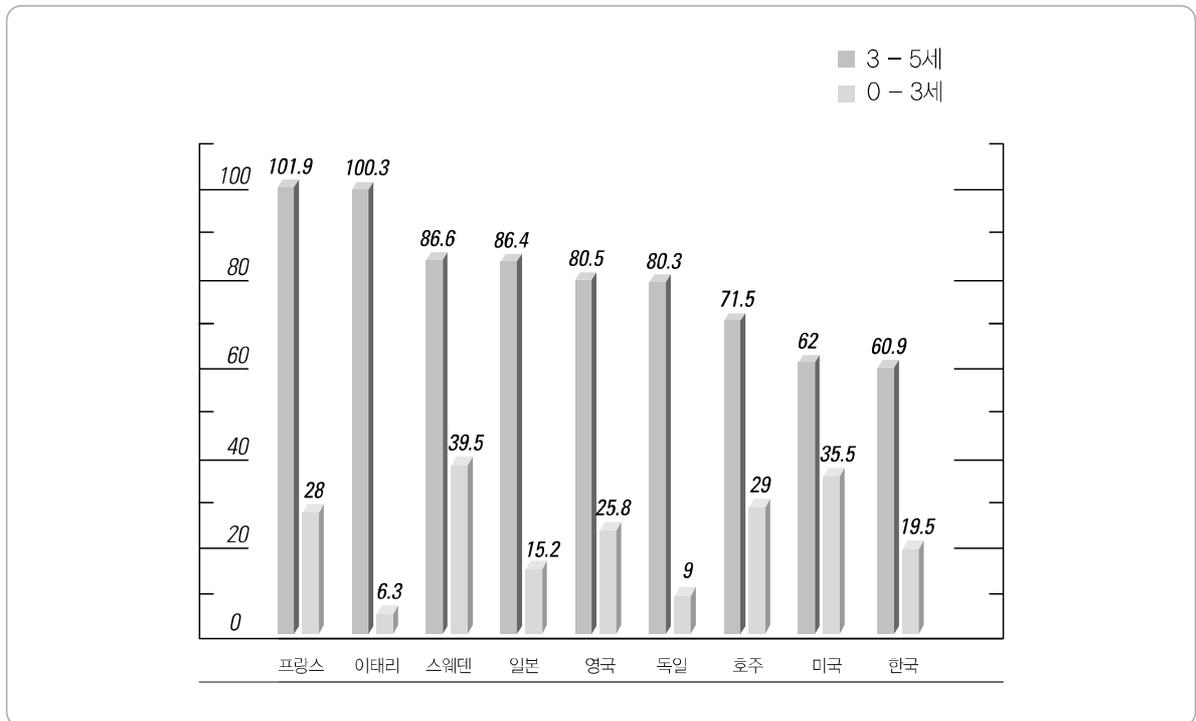
표 3-10 OECD 국가 영아보육시설 이용률(2005)

(단위: %)

국 가	3 - 5 세	0 - 3 세
프 랑 스	101.9	28.0
이 태 리	100.3	6.3
벨 기 에	99.6	33.6
스 페 인	98.6	20.7
아 이 슬 란 드	94.7	58.7
뉴 질 란 드	92.7	32.1
덴 마 크	89.7	61.7
형 가 리	86.9	6.9
스 웨 덴	86.6	39.5
일 본	86.4	15.2
체 코 공 화 국	85.3	3.0
노 르 웨 이	85.1	43.7
영 국	80.5	25.8
독 일	80.3	9.0
포 르 투 갈	77.9	23.5
오 스투 리 아	74.0	6.6
슬로바키아 공화국	72.4	17.7
룩셈부르크	72.3	14.0
호 주	71.5	29.0
네덜란드	70.2	29.5
아일랜드	68.2	15.0

국 가	3 - 5 세	0 - 3 세
멕시코	64.9	3.0
미국	62.0	35.5
한국	60.9	19.5
그리스	46.8	7.0
핀란드	46.1	35.0 → 22.4(수정됨,2008)
스위스	44.8	-
폴란드	36.2	2.0
터키	10.5	-
캐나다	m	19.0

※ 주 : 핀란드 data 수정된 것 이외, 모든 국가들의 data들은 2007년 발행된 data들과 똑같음.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and OECD Education database, 2008



〈그림 3-9〉 OECD 10개국 영유아보육시설 이용율

### 3) 부부 가사노동시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서울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2004년 여성이 4시간 47분이고 남성은 2시간 11분으로 여성이 남정보다 2.19배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남녀 가사노동 시간 비교는 자료 생산 연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 전체 활동시간이 길어 남성보다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은 시장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비가시화되고 있다.

국가간 여성과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을 비교해보면, 캐나다 여성 2:29 남성 1:05, 스웨덴 여성 2:33 남성 1:15, 프랑스 여성 3:32 남성 0:57, 미국 여성 2:42 남성 1:00, 영국 여성 3:07 남성 1:11, 이태리 여성 4:30 남성 0:42, 한국 여성 3:31 남성 0:35 이다. OECD 국가 중 이태리 여성의 가사 및 육아 시간이 가장 길고 남성과의 격차도 가장 크며, 한국과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길지만 한국의 경우 성별 격차가 크므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노동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3-11 OECD 국가 성별 일과 시간 분포

(단위: 하루당 시, 분, %)

국가	년도	시장, 비시장 전체활동 시간		시장 활동 (전체시간 중 %)		특정 비시장 활동				기타 활동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요리 및 청소시간		양육시간		여가시간		자기 보살핌 기초시간 (잠자기 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호 주	'97	7:15	6:58	30	62	-	-	-	-	-	-	-	-
캐 나 다	'05	7:57	7:51	40	59	1:54	0:48	0:35	0:17	5:28	5:53	10:49	10:26
스 웨 덴	'00-'01	7:32	7:43	42	59	2:04	0:59	0:29	0:16	5:16	5:37	10:39	10:12
일 본	'96	6:33	6:03	43	93	-	-	-	-	-	-	-	-
프 랑 스	'98-'99	7:01	6:27	33	59	3:04	0:48	0:28	0:09	3:52	4:26	11:57	11:46
미 국	'05	8:06	7:54	42	64	1:54	0:36	0:48	0:24	4:54	5:18	10:42	10:24
영 국	'00-'01	7:41	7:32	35	62	2:34	0:59	0:33	0:12	5:11	5:44	10:43	10:22
이 태 리	'02-'03	8:08	6:51	26	70	4:02	0:31	0:28	0:11	4:15	5:29	11:12	11:16
독 일	'01-'02	7:00	6:49	30	55	2:32	0:52	0:26	0:10	5:35	6:02	11:02	10:44
한 국	'04	7:30	6:51	40	86	2:36	0:20	0:55	0:15	5:03	5:43	10:41	10:45

※ 주 : 시장활동-시장에서의 생산 활동  
 요리 및 청소시간-설거지, 청소, 세탁, 다림질 등을 포함한 가사노동시간  
 양육시간-교육, 놀이를 비롯한 아이 돌보기 시간  
 여가시간-오락, 휴식, 운동, 컴퓨터 등 미디어 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시간  
 자기보살핌시간-잠자기, 식사 등 자기 보살핌 기초 활동시간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 3.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1) 성폭력 관련 시설 수(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서울시 성인지지표 중 사회문화권 영역에서 국제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는 성폭력 범죄 피해 지표이다. 서울시의 성폭력 범죄 피해 건수를 측정하기 어려워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관련 시설 수를 지표로 택하였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강간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성폭력 범죄 신고를 기피하므로 정확한 발생건수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2,070건, 2007년 2,086건 이고 검거건수는 2006년 2,007건, 2007년 2,005건이다.

UNECE의 국가별, 연도별, 성별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관련 통계에서 보면 캐나다나 독일의 경우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통계는 2005년, 2006년에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직접적인 국가 비교는 어렵다. 아래의 표에 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기는 하지만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남성 피해자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도 보다 정확한 성폭력 관련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범죄 건수와 더불어 피해자 성별이 구분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2 국가별, 연도별, 성별, 성폭력(Sexual assault) 범죄 피해자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캐나다							
전체	24,001(100.0)	24,044(100.0)	24,499(100.0)	23,514(100.0)	23,036(100.0)	23,521(100.0)	22,136(100.0)
여성	-(86.0)	-( )	-( )	-( )	-( )	-( )	-( )
남성	-(14.0)	-( )	-( )	-( )	-( )	-( )	-( )
독일							
전체	13,145(100.0)	13,725(100.0)	15,324(100.0)	15,702(100.0)	15,979(100.0)	14,977(100.0)	15,415(100.0)
여성	12,403(94.4)	12,961(94.4)	14,507(94.7)	14,753(94.0)	14,966(93.7)	15,105(94.2)	14,477(93.9)
남성	742(5.6)	764(5.6)	817(5.3)	949(6.0)	1,013(6.3)	872(5.8)	938(6.1)
영국							
전체	32,414(100.0)	35,121(100.0)	-	-	-	57,542(100.0)	57,542(100.0)
여성	28,230(87.1)	30,773(87.6)	-	-	-	-	-
남성	4,184(12.9)	4,348(12.4)	-	-	-	-	-

※ 주 : 성폭력 범죄(Sexual assault)는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이 포함됨.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 4.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서울시 광역의회 시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제1대에 9.5%, 제2대 10.6%, 제3대 7.8%, 제4대 12.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여성의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서울시 제4대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성비를 보면 광역 12.3%, 지역은 19.6%로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 2007년 스웨덴은 여성의원 비율이 47.3%로 OECD 10개국 중 가장 높은 국가이다. 벨기에의 경우 하원 34.7%, 상원 38.0%이고 캐나다 하원 20.8%, 상원 35.0%, 독일 하원 31.6%, 상원 21.7%로 이들 국가들이 OECD 국가들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서울시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는 데는 비례대표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여성우대 제도의 도움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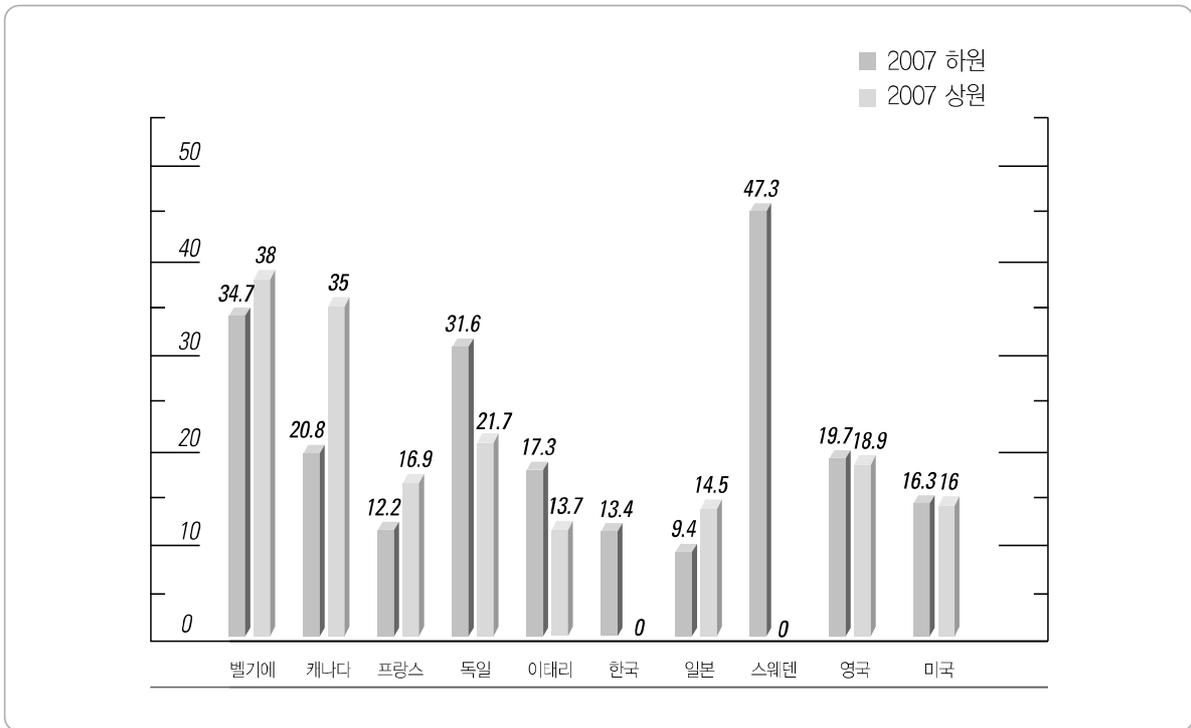
### 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표 3-13 각국의 여성 의원 비율

(단위: %)

	여성의원비율							
	2004		2005		2006		2007	
	하원(또는 단원제 의원)	상원						
벨 기 에	35.3	31.0	34.7	38.0	34.7	38.0	34.7	38.0
캐 나 다	20.6	32.4	21.1	37.1	20.8	35.0	20.8	35.0
프 랑 스	12.2	10.9	12.2	16.9	12.2	16.9	12.2	16.9
독 일	32.2	24.6	32.8	18.8	31.8	18.8	31.6	21.7
이 태 리	11.5	8.1	11.5	8.1	17.3	13.7	17.3	13.7
한 국	5.9	-	13.0	-	13.4	-	13.4	-
일 본	7.1	15.4	7.1	13.6	9.0	14.0	9.4	14.5
스 웨 덴	45.3	-	45.3	-	45.3	-	47.3	-
영 국	17.9	16.7	18.1	17.8	19.7	17.5	19.7	18.9
미 국	14.3	13.0	15.0	14.0	15.2	14.0	16.3	16.0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2005, 2006, 2007



〈그림 3-10〉 각국의 여성의원 비율(2007)

##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Rate of Government Employ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전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대비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과 남성공무원 비율로서, 2007년 여성은 1.3% 남성은 8.6%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비교에서 고급 공무원의 정의가 정부 고위 행정가, 정부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및 기타(UNECE) 혹은 장관직, 주정부 및 연방정부 대표(WEF)로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 5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가간 직접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ECD 국가에서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스웨덴이 가장 높다. 2001년도 이후 스웨덴의 고위직 공무원의 30% 이상이 여성이다. 영국은 2006년 29.2%로 2000년 19.4%에 비해 증가하였고, 스위스는 2000년에 21.1%, 노르웨이 2000년 17.2%, 프랑스 2005년 16.2%, 독일 2002년 15.7%이다. 이러한 수치는 OECD 국가에서 여성 고위공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고위 공직은 남성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공직자 중 여성 비율을 OECD 10개국과 비교해 보면, 의회 의원수와 장관직 수, 정부 대표 수에서 여성 비율이 낮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8년 세계성별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영역 성별격차지수는 102위로 비교대상 130여개 국가 중 하위에 머물고 있다.

표 3-14 연도별, 성별, 국가별 고위 시공무원 현황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b>프랑스</b>							
전체	3,188(100.0)	3,269(100.0)	3,376(100.0)	3,501(100.0)	3,573(100.0)	3,650(100.0)	-
여	381(12.0)	409(12.5)	435(12.9)	494(14.1)	532(14.9)	590(16.2)	-
남	2,807(88.0)	2,860(87.5)	2,941(87.1)	3,007(85.9)	3,041(85.1)	3,060(83.8)	-
<b>스웨덴</b>							
전체	-	970(100.0)	1,009(100.0)	1,015(100.0)	1,048(100.0)	1,051(100.0)	-
여	-	292(30.1)	327(32.4)	332(32.7)	347(33.1)	347(33.0)	-
남	-	678(69.9)	682(67.6)	683(67.3)	701(66.9)	704(67.0)	-
<b>영국</b>							
전체	3,720(100.0)	-	-	-	-	-	4,480(100.0)
여	720(19.4)	-	-	-	-	-	1,310(29.2)
남	3,000(80.6)	-	-	-	-	-	3,170(70.8)
<b>독일</b>							
전체	70,297(100.0)	69,007(100.0)	65,306(100.0)	-	-	-	-
여	9,216(13.1)	10,478(15.2)	10,274(15.7)	-	-	-	-
남	61,081(86.9)	58,529(84.8)	55,032(84.3)	-	-	-	-
<b>노르웨이</b>							
전체	982(100.0)	-	-	-	-	-	-
여	169(17.2)	-	-	-	-	-	-
남	813(82.8)	-	-	-	-	-	-
<b>스위스</b>							
전체	9,068(100.0)	-	-	-	-	-	-
여	1,920(21.1)	-	-	-	-	-	-
남	7,148(78.8)	-	-	-	-	-	-
<b>스페인</b>							
전체	190(100.0)	190(100.0)	-	-	-	-	-
여	9(4.7)	9(4.7)	-	-	-	-	-
남	181(95.3)	181(95.3)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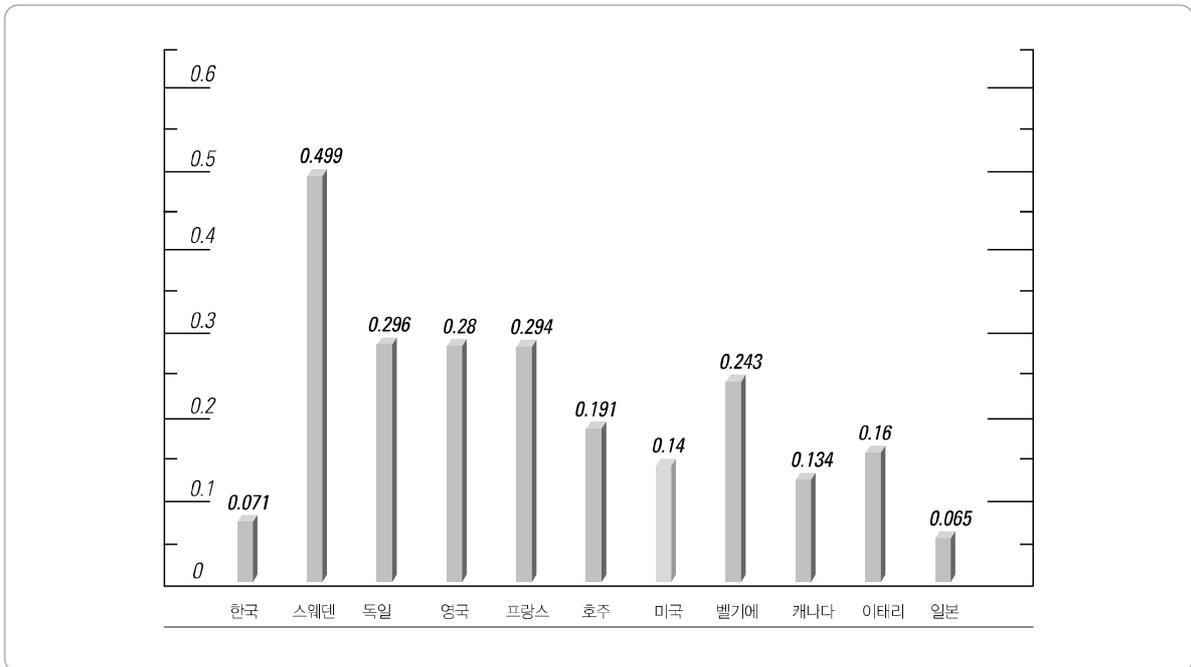
※ 주 : ISCO 1120(고급정부관료 - 정부 행정가, 정부간 기구 행정가, 대사, 총영사, 기타를 포함함)에 따라 정의함.  
 자료 :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compiled from national official sources

표 3-15 정치영역 Global Gender Gap 각 지표별 지수 비교

국 가	세부 지표	지 수										
		한국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일본
정 치 영 역 전 체		0,071	0,499	0,296	0,280	0,294	0,191	0,140	0,243	0,134	0,160	0,065
순 위		102	4	16	21	18	37	56	27	60	46	107
남 녀 의 회 의 원 수		0,16	0,89	0,46	0,24	0,22	0,36	0,20	0,55	0,27	0,27	0,10
남 녀 장 관 직 수		0,05	0,91	0,50	0,29	0,88	0,32	0,31	0,30	0,19	0,32	0,13
남 녀 정 부 수 장 의 수		0,02	0,00	0,07	0,30	0,02	0,00	0,00	0,00	0,01	0,00	0,00

※ 주 : 완전평등지수를 '1'로 함. 이 영역은 장관, 의회의원, 최근 50년간 행정부 수장(수상 혹은 대통령) 등에서 남성에 대비한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그림 3-11〉 GGG 국가별 정치 영역 참여 지수



**N**

영역별 보완지표



# IV 영역별 보완지표

서울시 성인지표 개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여성관련 이슈들이 변화하였고, 새로운 관련 통계 자료도 생산되고 있다. 서울시 여성정책에서도 여행 프로젝트의 비중이 커지고, 다문화 관련 이슈들도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기존의 서울시 성인지표의 구성을 대체 혹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영역별로 대체 혹은 보완해야 할 지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장에서는 전문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관련된 지표 중 대체 혹은 보완이 필요한 지표가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 평균임금비 지표와 성별사업체대표자 비율을 제외한 6개 지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 | 여성의 경제세력화 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	세부지표	보완 내용
1. 여성의 경제 세력화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성별 취업률(고용률)포함.
	성별 관리직 비율	-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의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에 반영할 필요 있음.
	성별 비정규직 비율	- 성별 정규직 비율로 수정. - 특고 상태의 여성들에 대한 지표 반영.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 대체지표로 노동조합 간부 중 여성비율 및 여성 노동자 조직을 제안. - 노동조합원 구성비는 산업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지역적 성평등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단순 산식보다는 산업체의 여성비율을 적용한 비중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 구성비가 높다고 성평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음. 만약 비정규직 노조가 가능하다면, 노조 구성비가 높아질 텐데, 이 경우는 해석이 모호함.
	성별 주택보유율	- 서울시 성인지 지표로 부적절함. 지방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실소유자의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 서울시 여성의 경제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
	기타	- 해당 지표를 절대값으로 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함. 지표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각 연도별 측정에서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해야 함.

## 1)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업률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더 명확한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보이는 것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취업률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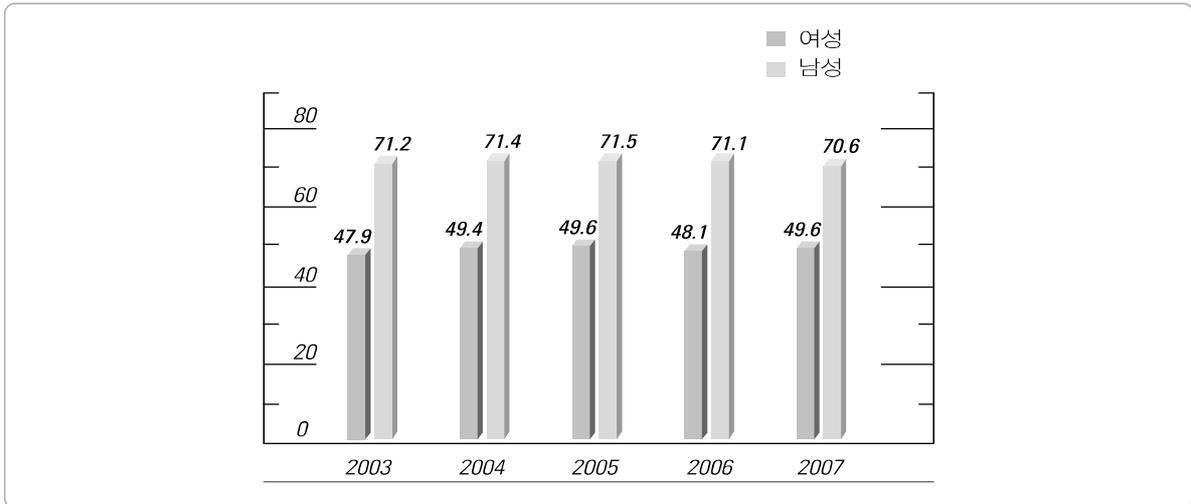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정연령(15세)이상 인구 중 취업과 실업인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 노동투입, 취업구조, 인력자원의 효율성 등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및 정책 형성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향상, 빈곤퇴치 등 정부의 정책 입안과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국가가 이 방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적으로도 경제 지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취업률은 임금근로 또는 자영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1주일에 최소 1시간만 소득 있는 일에 종사해도 족하다고 규정하여 단시간 작업노무자, 대기 근로자 등 불규칙적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취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서울시 여성 취업률은 2007년 49.6%로 경제활동참가율 51.5% 보다 다소 낮다. 취업률 역시 경제 지표 중 매우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국제기구에서 매년 생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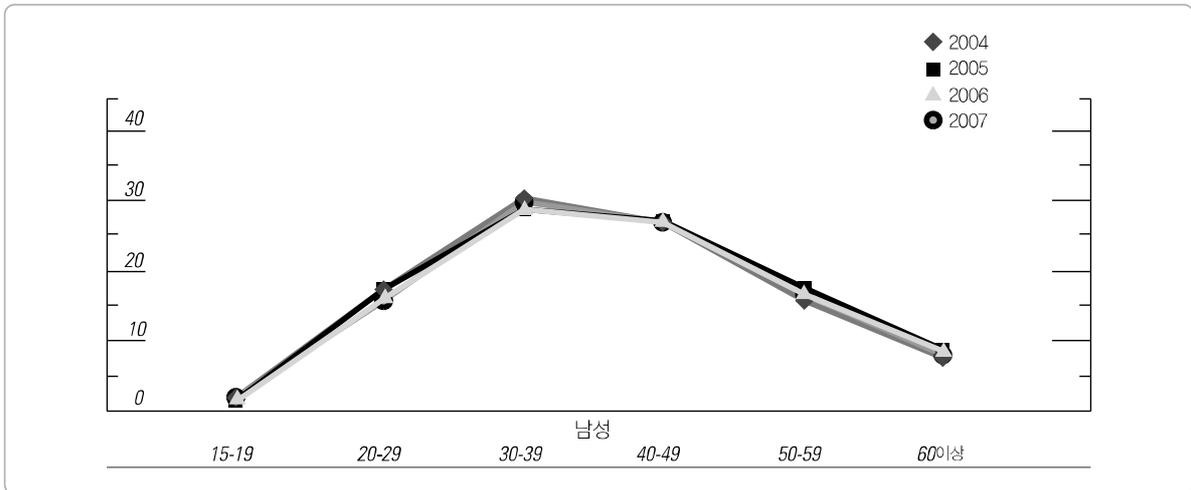
서울시 성인지표에서는 경제세력화 영역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제1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업자 외에 실업자(구직희망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표이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지표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취업률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 현황 파악에는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를 쓰되 여성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 취업률을 특화하기 위한 지표로 취업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취업과 관련해 20대~30대 출산 육아기 여성의 취업률 저하 문제, 고학력 여성과 노인의 취업률 성별격차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별 취업률 지표를 포함하되 이를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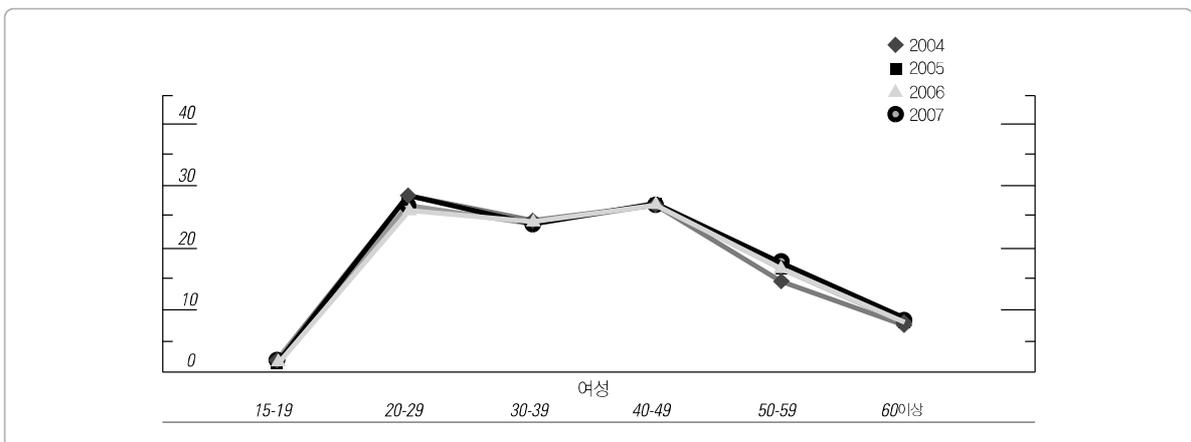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 중 취업 이외의 여성의 경제 기여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여성들의 자본투자 활동과 관련된 지역 통계자료 부족으로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시,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서베이 실시 때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림 4-1〉 서울시 성별 취업률



〈그림 4-2〉 서울시 연령별 남성 취업률



〈그림 4-3〉 서울시 연령별 여성 취업률

## 2) 성별 관리직 비율

성별 관리직 비율 지표와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은 서울시에 상근하는 관리직을 대상으로 할 것과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나 출연기관들의 관리직 비율도 함께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 관리직 비율을 서울시의 산하기관 관리직까지 확장하는 것은 서울시 자체의 관리직 성비 현황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성인지표에서 정의하는 ‘관리직’은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과 전문가 및 기술공, 준전문가’이다. 이 정의를 서울시 산하기관의 직제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각 기관마다 인력규모나 관리직 정의 기준이 상이하어 적절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 운영 산하기관은 투자기관(공기업) 5개와 출연기관 10개이다. 이 15개 기관들은 서울시 인력운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각 소속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더구나 각 기관들은 그 직제가 달라 급수를 결정하는 요소나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역할 구성 내용이 각각 다르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과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들의 관리직급을 통합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 표 4-2 ■ 서울시 투자기관(공기업) 및 출연기관 인력 현황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인 원 (명)	서울시 주무부서
투자기관 (공기업)	서울메트로	9,88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팀
	도시철도공사	6,920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팀
	SH(Seoul Housing)공사	707	주택국 주택정책팀
	시설관리공단	1,069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
	농수산물공사	259	복지국 농수산물안전팀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551	여성가족정책관 보건기획팀
	시정개발연구원	97	경영기획실 시정연구팀
	산업통상진흥원	123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정책팀
	신용보증재단	136	경쟁력강화본부 자금지원팀
	세종문화회관	342	문화국 문화관리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5	여성가족정책관 여행팀
	서울복지재단	48	복지국 복지정책팀
	서울문화재단	44	문화국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서울시립교향악단	137	문화국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자원봉사센터	17	행정국 행정운영팀

### 3) 성별 비정규직 비율

서울시 성인지표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로 정의된다. 임시직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을 일용직 근로자라 한다.

전문가조사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비정규직 정의에 도급,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이 통계수치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정규직 지표로 바꾸거나 특수고용 형태에 대한 통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지표를 성별 정규직 비율로 대체하면, 경제세력화 부분의 지표들 모두가 양성평등 수준에서 양(+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비율로 지표를 대체하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낮고 성별격차가 크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으나 비정규직 여성 고용의 다양한 형태들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비정규직 지표는 그대로 두되 지표 측정 및 분석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특성을 다루는 것이

표 4-3 비정규직 관련 지표 목록

번호	비정규직 관련 지표 목록
1	전체 비정규직 대비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추이('01-'07)
2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별 분포('05-'07)
3	학력별 비정규직 변화추이('01-'07)
4	직종별 비정규직 변화추이('01-'07)
5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변화추이('01-'07)
6	고용형태별 기업복지 수혜율('03-'07)
7	업종별 정규직 전환사례 1,2,3
8	파업현황(2007년 11월 30일 현재)
9	인구학적 특성별(성별-기·미혼, 연령별, 학력별) 단시간근로자 / 사업체 특성별단시간근로자
10	인구학적 특성별 간접고용 / 사업체 특성별 간접고용
11	인구학적 특성별 비전형근로 / 사업체 특성별 비전형근로
12	인구학적 특성별 기간제근로(유기계약근로) / 사업체 특성별 기간제근로
13	인구학적 특성별 비정규근로 / 산업별 비정규근로 / 직업별 비정규근로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근로
14	여성임시직의 근로조건 현황
15	여성 비정규직의 조직화 현황

※ 자료 : 장지연 외(2008),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외(2007), "노동과 차별(II):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종숙 외(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적절하다고 본다. 비정규직 내에 유기계약 근로자, 시간제 근로, 일용근로, 파견, 용역, 독립도급, 재택 등을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4)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노동조합 간부 비율과 성별 노동자 조직률을 조합원 비율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노동조합 성비는 산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 노동조합원수 대비 남녀 노동조합원수를 구하는 단순한 산식보다는 산업체 노동자의 성비와 연계하여 여성 노동조합원 비율을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 내에서 간부비율, 성별 노동자 조직율을 특화하여 분석할 필요는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서울시 소재 노동조합의 간부 성비와

표 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 연맹 및 산하조직의 조직현황(전국, 2007)

(단위: 명, %)

가맹조직	전체조합원수 (명, 100%)	여 성		남 성	
		조합원수(명)	조합원비율(%)	조합원수(명)	조합원비율(%)
건설산업연맹	25,182	671	2.6	24,511	97.4
공공운수연맹	143,597	23,265	16.2	120,332	83.8
교수노조	1,082	100	9.2	982	90.8
공무원노조	37,836	15,135	40.0	22,701	60.0
금속노조	160,746	7,000	4.3	153,746	95.7
대학노조	7,941	2,619	32.9	5,322	67.1
병원노련	38,325	28,745	75.0	9,580	25.0
비정규교수노조	1,005	450	44.7	555	55.3
서비스연맹	16,236	9,203	56.6	7,033	43.4
사무금융연맹	62,228	23,697	38.0	38,531	62.0
언론노조	18,100	768	4.2	17,332	95.8
전교조	82,669	49,601	59.9	33,068	40.1
화학섬유연맹	23,260	1,608	6.9	21,652	93.8
여성연맹	2,970	2,546	85.7	424	14.3
IT연맹	33,422	5,918	17.7	27,504	82.3
지역직가입노조	9,624	2,643	27.4	6,981	72.6
총 계	664,223	173,969	26.2	490,254	73.8

※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부 내부자료, 2007년 12월 말

성별 노동자 조직률을 구해 보았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나 노동부(지역 데이터 부재)가 아니라 민주노동자총연맹과 한국노동자총연합이다. 이 두 조직을 통해 위의 데이터를 구한 결과 민주노총에서는 간부 비율은 현재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조직률도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데이터가 부재한 이유로 전국 데이터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에는 이 두 자료가 모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5) 성별 주택보유율

성별 주택보유율은 주택자산의 부부간 평등한 분배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나 부부간의 자산 분배보다는 여성가구주의 주택소유 비율을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의해 주택 명의를 남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 명의의 가구는 남편이 없는 여성가구주일 확률이 높다. 일부 전문가는 서울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확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관련통계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지표 값도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측정하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 성인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표 4-5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	세부지표	보완내용
2.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1.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률	- 야간보육시설 이용률 필요함. - 전체 영유아 대비 육아시설(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아동수인 '보육시설이용률' 이 더 적절함.
	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 맞벌이 가구의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이용률, 한부모 가구 자녀의 이용률 등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비율(보육료 지원 영유아/전체 영유아×100) 필요함.
	3. 성별 부부 가사 노동시간	- 남녀 각각 '임금노동 + 가사노동' 의 총 노동시간 중 가사시간의 비율을 보는 것이 더 유용함. -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제한 필요함.

영역	세부지표	보완내용
2.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4.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모인 전체 육아휴직자수는 업종과 그에 따른 종업원의 성비에 따라 편차가 클 것 (예를 들면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임. 따라서 분모는 전체 근로자 중 남(여)성근로자 비율, 분자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여)성육아휴직자 비율로 하는 것이 성평등 정도를 보다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을 듯 함.</li> <li>-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이 아니라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자 사용자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li> <li>- 대체인력비율(육아 휴직 대체 인력자 수/전체 육아휴직자 수×100) 구할 필요 있음.</li> <li>- 출산과 육아휴직의 출산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li> <li>- 출산과 육아휴직의 출산 경제활동자(자영업, 농어촌 포함) 대비 비율</li> </ul>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근로시간 유연제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유인책 구비 여부 등 추가할 필요 있음.</li> <li>- 남녀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지표 추가 필요함(남녀 모두 노동시간 감소가 필요함).</li> </ul>

## 1)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 지표는 일·가족 양립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에 보다 특화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표 4-6 서울시 맞춤형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설 수	정원	현원	비고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	5,525	225,189	186,801	총 이용아동 186,801명 -5세이하 176,513명 -6세이상 10,288명(장애아, 방과후 아동)
시간연장보육시설	591	13,882	3,018	
24시간보육시설	68	540	312	
휴일보육시설	29	271	147	
장애아통합보육시설	188	1,562	1,094	
장애아전담보육시설	11	365	280	장애아와 비장애아 통합보육 정책으로 전환
영아전담보육시설	62	2,280	2,087	신규지정은 중단하고 정책 전환 - 일반 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 지원확대를 통해 영아보육 활성화 제고

※ 주 : 현원 및 대상 아동 수는 2008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내부자료

서울시 보육시설 중 국공립 시설 비율이 낮고, 현실적으로 국공립시설 확대가 어렵다면 민간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시간 연장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측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동의하나 실제 특수보육 시설 이용 아동수가 너무 적어 서울시 0~5세 아동 수 524,677명 대비 이용률을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추후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면 일/가족 양립지표로 포함할 것을 검토해 볼 것이다.

표 4-7 서울시 아동의 특수보육시설 이용률

(단위: 명, %)

	현원	대상 아동 수(0-5세)	이용률
시간 연장 보육 시설	3,018	524,677	0.6
24시간 보육 시설	312	524,677	0.06
휴일 보육 시설	147	524,677	0.03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	1,094	-	-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280	-	-
전체 특수 보육 시설	4,851	-	-

※ 주 : 2008년 6월 말 현재 서울시 0-5세 대상 아동 수에 대한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비율을 구함.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보육담당관 보육사업팀 내부자료

## 2)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육아 휴직자 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성비를 보는 것보다 출산휴가 사용자 수 대비 육아휴직자 수와 육아휴직자 사용자 수 대비 대체인력자 수에 대한 비율을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남성참여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목표를 지향하고, 해외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대체 지표로 제안된 지표들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성별 격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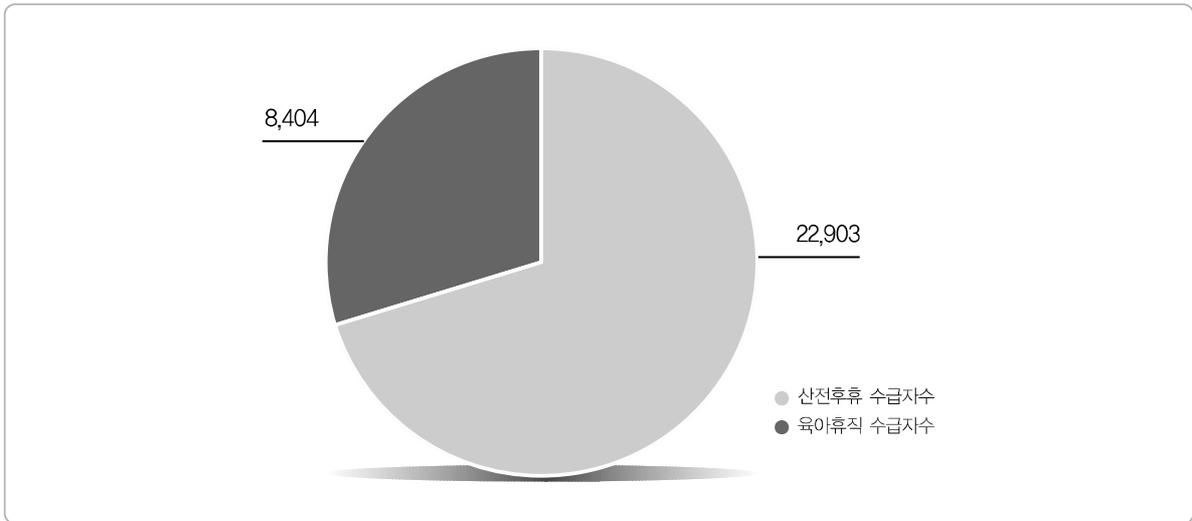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안한 두 개의 지표는 여성의 육아휴직 선택을 제한하여 경력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것이므로 기존 지표에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8 서울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수(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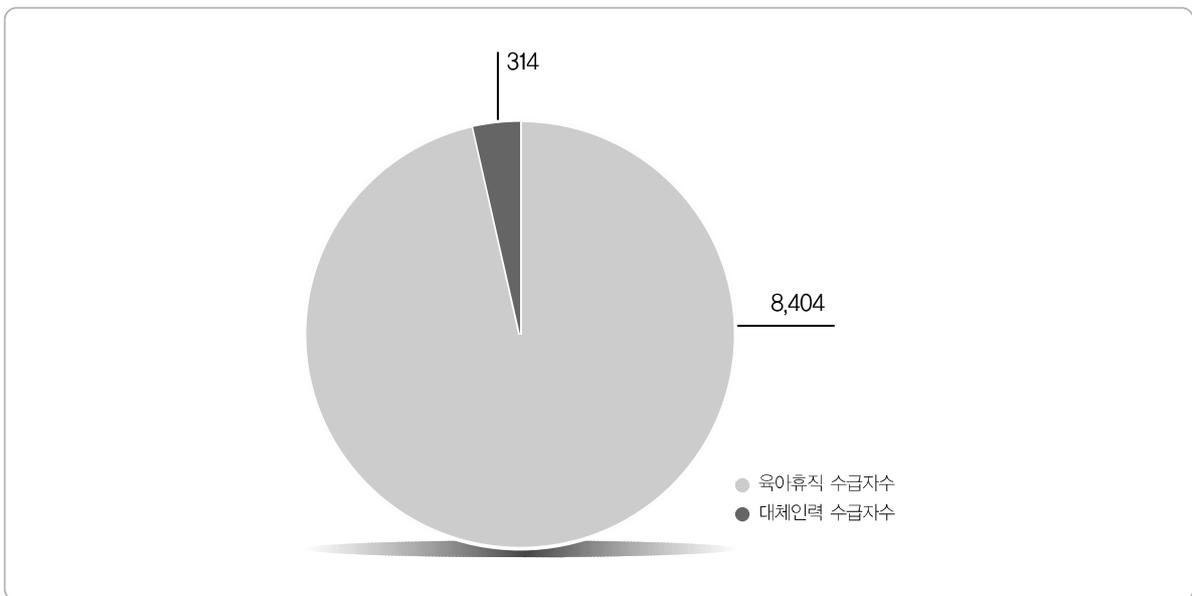
(단위: 명,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여성)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수급자수
2007	22,903	8,404 (36.7%)	314 (3.7%)

※ 주 : 산전후휴가급여자수와 육아휴직급여자수는 각 고용안전센터 신청자수를 기준으로 함.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수급자수는 지원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추출함. 단 추출현재시점으로 서울시소재 를 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4〉 서울시 산전후휴가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2007)



〈그림 4-5〉 서울시 육아휴직자 수 대비 대체인력 수급자 수(2007)

이 지표와 관련된 데이터는 노동부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구하는 것인데, 매년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청을 한 신청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중심의 데이터와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등 그 기준이 다양) 그 기준을 소급하여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07년 수치만 제시하였다. 이후 매년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된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자 수, 대체인력자 수를 구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육아휴직자를 통한 일·가족 양립의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3.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표 4-9 |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	세부지표	보완 내용
3.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때로는 차상위계층이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므로 고려가 필요함.</li> <li>- 가구주 여성수급자를 보시는 것이라면 모집단 자체의 성격이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일 것이므로 상대적 수치로 볼 필요가 있음.</li> </ul>
	2.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지위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권'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함.</li> <li>- 가입자 비율은 취업 여성과 남성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유용함.</li> <li>- 전체 가입자 가운데 여성비율을 파악하는 것과 취업여성들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 이 지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무엇을 개선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산식이 달라질 수 있음.</li> </ul>
	3.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선이하 남녀 노인 비율과 함께 볼 필요 있음.</li> <li>- 성별 노인취업률은 (여성노인취업자 수/전체노인취업자수)×100 이 되어야 함.</li> <li>- 현재 '노인' 기준연령은 55세(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50~55세미만은 준고령자), 60세(국민연금법), 65세(노인복지법)로 다양함.</li> <li>- 통계청의 「고령자통계」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가용성을 고려할 때 60세가 65세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필요 있음.</li> <li>- 여성노인의 '취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사회통합으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여성노인들이 직종, 경제활동의 질이 중요함. 60세이상의 노인이 하기에 매우 어려운 경제활동을 빈곤으로 인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회통합의 긍정적 의미일지 고려 할 필요 있음.</li> <li>- 여성노인을 소수자 집단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 고려할 필요 있음.</li> <li>- 성별 노인 건강서비스이용률 지표 통합지표로 유용할 것임(한국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문제임(39.3%).</li> <li>- 65세이상노인의만성질환유병률(65세이상여성노인만성질환유병률 = (65세이상여성노인만성질환보유자수/65세이상전체 여성노인수×100) 지표로 필요함.</li> </ul>

영역	세부지표	보완내용
3.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4. 성별 장애인 등록률	- 장애인 교육을, 취업률을 같이 볼 필요 있음. - 성별 장애인출현율과 등록율을 비교 수치화할 필요 있음. - 장애인 등록률이 내포하고 있는 젠더이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지표에 나타낼 필요 있음.
	5. 기타	- 국제결혼여성 지원프로그램 혹은 예산 관련 지표 추가 - 여성가구주 지원 프로그램 혹은 예산 관련 지표 추가 - 모자가정 세대주 취업률

### 1)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여성 노인과 관련된 이슈는 ‘노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는 것,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 여성 노인에게 취업률의 의미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다. 이 지표를 서울시 성인지 지표에 포함했던 것은 노인취업률은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의 달성 여부와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만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 노인의 연령기준을 60세로 할 것인지 65세로 할 것인지는 노인과 관련된 지표를 무엇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나 취업과 관련된 지표는 60세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여성 노인 지표가 변경된다면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 노인과 관련된 이슈는 빈곤선 이하의 여성노인 비율, 여성 노인의 건강 지표를 추가할 것이 제안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노인(61세 이상)의 비율이 22.2%로 남성 노인 5.8%보다 4배에 가깝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제적 빈곤문제가 심각한

▮ 표 4-10 ▮ 서울시 60세 이상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단위: 명, %)

연령구분	여성					남성				
	전체	61-64	65세이상	전연령대비61세이상비율		전체	61-64	65세이상	전연령대비61세이상비율	
2004	93,522	4,936	29,568	36.9		66,578	2,651	9,963	18.9	
2005	102,010	5,082	31,949	36.3		73,591	2,833	11,112	18.9	
연령구분	전체	60-69	70-79	80세이상	전연령대비60세이상인구비율	전체	60-69	70-79	80세이상	전연령대비60세이상인구비율
2006	120,242	15,109	17,011	7,687	33.1	85,970	8,243	5,812	1,810	18.5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이슈임을 드러내준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빈곤을 탈피해야 할지 아니면 복지지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지는 고려해야 하겠지만 노인여성의 빈곤 이슈를 다루는 지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여성 노인의 건강 이슈가 중요하나 건강 영역에서 성별, 연령별 유병률 및 만성질환 이환율 지표를 보완하여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성별 장애인 등록률

장애인 등록률 지표에 대한 의견들로는 단순한 등록률뿐만 아니라 보완지표들로서 성별 장애인들의 취업률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비율 등이 제안되었다. 이 지표들을 장애인 등록률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남녀 장애인들의 현황을 더 잘 보여주고, 서울시의 남녀 장애인의 성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장애인 등록률 지표 개발 단계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지표들은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3)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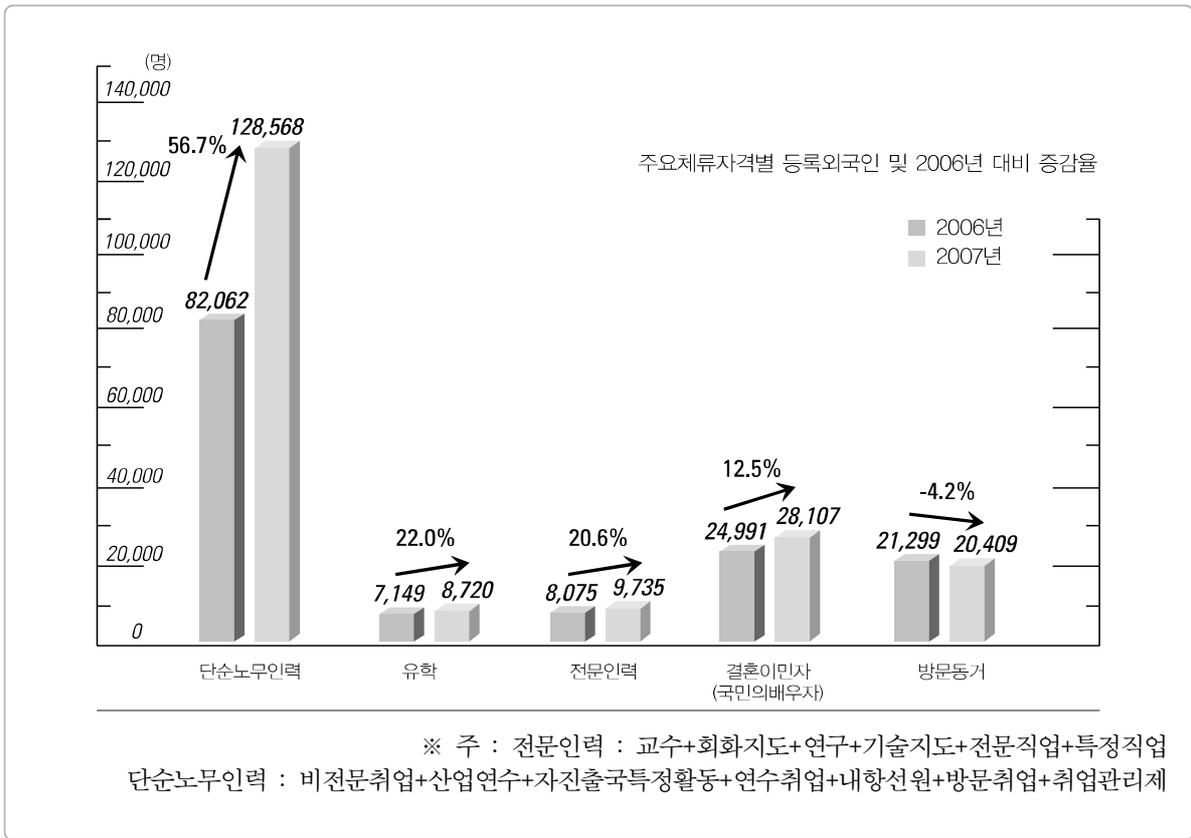
소수자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기타 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위해 필요한 통계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통계들이어야 한다. 현재는 구체적인 통계들이 부재하지만 외국인 현황이나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 관련 서울시의 성인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지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성평등 지향을 위한 지표들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수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GSI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녀 대비의 지점을 알아내기 위한 모집단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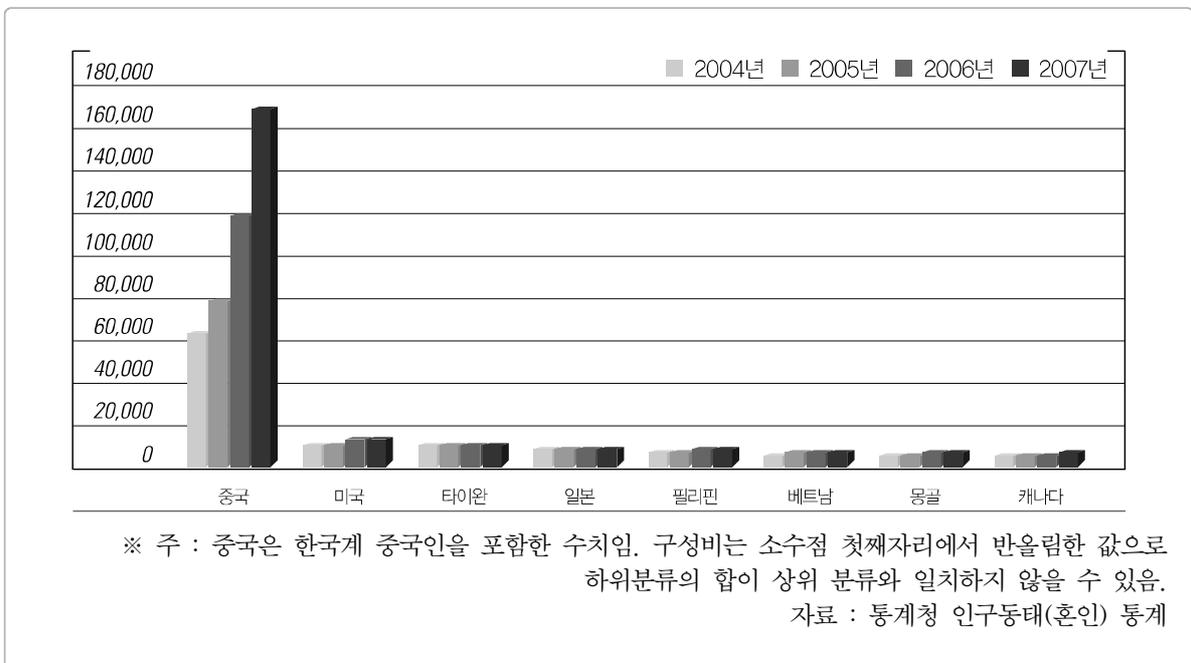
서울시 지역에서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는 서울시 외국인 등록 현황, 국제결혼 연도별 현황, 주요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증감율, 주요국가별 외국인 현황,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국제결혼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자신이나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지표들이 성별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성 이주자의 이슈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표 4-11 다문화 관련 사회 지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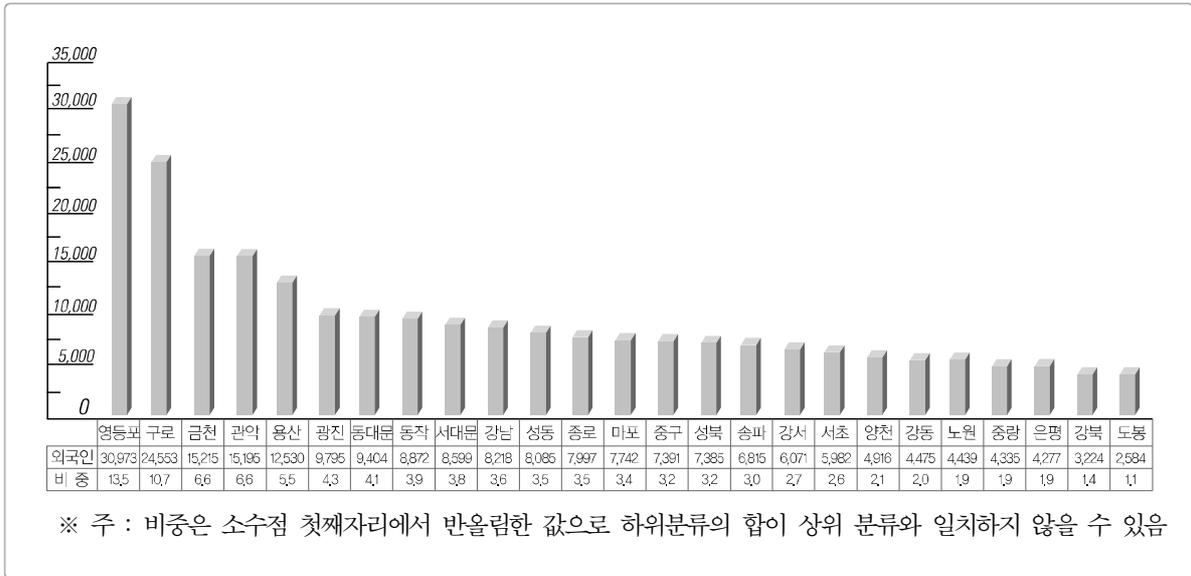
영역	지표명	조사대상	자료생산부처	현재의 생산여부 및 생산주기와 단위
이주 현황	연도별 및 체류자격과 국적별 출입국 현황	합법체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외국인유학생,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생산자료생산주기: 매년
	외국인인구	외국인	통계청인구총조사(2005년) -전수부문	생산자료생산주기: 1992~2007년
	구시군별 외국인등록인구		각시군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리실	생산생산단위: 시도
경제	외국인의 취업률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직업별(대분류) 외국인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교육	교육정도별 외국인	외국인(국적별, 성별)	통계청인구총조사(2005년) -전수부문	생산단위: 전국
	연간 다문화교육 교육 이수일수	초중고 재학생		미생산
가족	다문화가족의 가족형태별 분포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국제결혼 연도별 통계	외국인배우자 국가별	통계청	1990~2006년
	외국인과의 혼인율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과의 이혼율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다문화가족의 이혼사유별 이혼율 및 구성비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건강	외국인의 사망율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외국인의 유병율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문화	외국인의 한국어구사능력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외국인(국적별, 성별)		미생산



〈그림 4-6〉 주요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그림 4-7〉 주요 국가별 외국인 현황



〈그림 4-8〉 자치구별 외국인 분포

표 4-12 국제결혼의 처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처의 국적	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고	기타
2002	2,649	231 (8.7)	1,731 (65.3)	108 (4.1)	115 (4.3)	85 (3.2)	57 (2.2)	76 (2.9)	65 (2.5)	181 (6.8)
2003	4,744	260 (5.5)	3,643 (76.8)	137 (2.9)	101 (2.1)	176 (3.7)	52 (1.1)	77 (1.6)	84 (1.8)	214 (4.5)
2004	6,565	221 (3.4)	5,356 (81.6)	129 (2.0)	125 (1.9)	279 (4.2)	49 (0.7)	73 (1.1)	112 (1.7)	221 (3.4)
2005	7,637	242 (3.2)	6,177 (80.9)	125 (1.6)	114 (1.5)	478 (6.3)	36 (0.5)	62 (0.8)	129 (1.7)	274 (3.6)
2006	6,168	268 (4.3)	4,214 (68.3)	123 (2.0)	159 (2.6)	880 (14.3)	48 (0.8)	50 (0.8)	100 (1.6)	326 (5.3)
2007	6,004	304 (5.1)	3,883 (64.7)	156 (2.6)	221 (3.7)	748 (12.5)	103 (1.7)	35 (0.6)	77 (1.3)	477 (7.9)

※ 주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표 4-13 국제결혼의 남편의 국적별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남편의 국적	계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기타
2002	1,473	594 (40.3)	90 (6.1)	443 (30.1)	20 (1.4)	70 (4.8)	22 (1.5)	28 (1.9)	37 (2.5)	169 (11.5)
2003	1,920	637 (33.2)	441 (23.0)	433 (22.6)	16 (0.8)	86 (4.5)	22 (1.1)	42 (2.2)	40 (2.1)	203 (10.6)
2004	2,920	759 (26.0)	1,252 (42.9)	476 (16.3)	15 (0.5)	89 (3.0)	20 (0.7)	50 (1.7)	24 (0.8)	235 (8.0)
2005	3,870	804 (20.8)	1,973 (51.0)	507 (13.1)	22 (0.6)	112 (2.9)	20 (0.5)	36 (0.9)	70 (1.8)	326 (8.4)
2006	2,959	773 (26.1)	1,182 (39.9)	483 (16.3)	22 (0.7)	118 (4.0)	34 (1.1)	57 (1.9)	42 (1.4)	248 (8.4)
2007	2,835	701 (24.7)	1,041 (36.7)	470 (16.6)	24 (0.8)	147 (5.2)	47 (1.7)	60 (2.1)	35 (1.2)	310 (10.9)

※ 주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표 4-14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별 이혼 현황

(단위: 건)

처의 국적별 이혼	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필리핀	몽고	러시아	태국	기타
2004	348	201	24	30	31	9	13	13	3	24
2005	536	338	30	43	28	18	20	15	4	40
2006	791	581	49	35	25	22	27	11	*	39
2007	1,247	939	85	39	27	23	23	15	9	87

남편의 국적별 이혼	계	일본	중국	미국	파키스탄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기타
2004	486	364	15	64	3	5	6	*	5	23
2005	522	350	49	78	6	11	3	*	*	21
2006	630	379	115	70	12	11	*	6	4	33
2007	857	402	233	90	11	11	4	3	*	103

※ 주 : 셀 안의 \*는 이혼건수가 2건 이하인 경우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통계

향후 서울시 성인지지표와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 관련 지표로는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자녀양육 지원, 정보화 교육 등) 참여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 비율, 다문화 가족 여성의 취업률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표 4-15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	세부지표	수 정 내 용
4.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1. 성별 인터넷 활용 불가율	- 인터넷 활용불가율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음. 정보접근성으로 대체 필요함. - 정보에의 접근이나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의 의미로 볼 때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회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협적임. 인터넷이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채널 등은 무시하고 단순히 인터넷 활용 여부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
	2. 성별 도시위험 체감 정도	- 실제 대(對)여성 폭력이나 범죄 수치를 지표화하는 것 필요함.
	3.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	- 주관적 건강상태는 제외하고, 실제 여성의 발병률(특정 질병고려)을 지표화할 필요 있음.

영역	세부지표	수 정 내 용
	4. 성별 건강검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관련 질병 발생비율을 측정하거나, 여성관련 질병 검진비율 등을 보완할 필요 있음.</li> <li>- 여성의 만성질환 유병률(( 진단 여성의수/질병발생 여성의수)*100) 지표 필요함.</li> <li>- 여성의 발병질환 치료율((치료수진한 여성의수/질병발생 여성의수)*100) 지표 필요함.</li> </ul>
	5. 성폭력 관련 시설 수 6.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화권 확대에 성폭력, 가정폭력 두 가지가 개별 항목으로 들어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큼. 성폭력, 가정폭력을 묶어서 하나의 지표로 만들 필요 있음.</li> <li>- 성폭력, 가정폭력관련 시설수보다는 실제 발생한 수를 지표화하여 서울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노력이 실제 발생수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함.</li> <li>- 성폭력관련시설수보다 “폭력예방율이나 예방상태평가” 등으로 변화 필요. 예를 들어 “폭력지원서비스 평가” 를 할 수 있는 지표 필요함.</li> </ul>
	7.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사회문화권 확대와의 관련성 높이는 것이 필요함.</li> <li>- 여성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네트워킹 정도, 사회활동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신문구독률 및 정보 획득 통로 등과 관련된 지표 포함 필요함.</li> <li>- 여성의 여가활동,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에 대한 것도 포함할 필요 있음.</li> <li>- 성별문화생활이용률(연극, 영화, 체육 취미 생활 등 )과 평생교육 참여율, 여가시간 남녀차이 등의 지표 필요함.</li> </ul>

##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 지표는 여성의 정보 격차를 다루기 위해 선정된 지표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를 개발할 당시 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 보급대수, 인터넷 활용정도 등과 관련된 지표들이 여성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데 주요 지표로 고려되었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요한 정보제공의 채널로 인터넷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활용가능 지표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 지표에서의 성별격차는 2007년 0.86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활용률이 낮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인터넷 외에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TV 시청률의 경우 성차가 거의 없고 시청시간은 여성이 더 많으나 이를 여성의 정보 접근성이 더 높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정보의 양외에 정보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의 경우 구독률은 남성이 더 높고 인터넷 신문은 성차가 거의 없다.

정보 접근성과 관련하여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를 얻는 수단을 고려해야 하고 성별격

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신문구독률에서만 성차가 있다면 인터넷 활용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 지표 측정 및 분석 시 다른 정보 매체에 대한 성별로 유의미한 자료를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표 4-16 ■ 서울시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단위: 시간, %)

	TV 시청률 %				TV 시청시간			
	TV 시청률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주간 시청시간 <sup>1)</sup>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00〉								
서울시								
여성	95.2	93.4	91.8	91.9	23.3	2.9	3.9	4.6
남성	95.0	92.8	91.2	91.4	21.5	2.7	3.7	4.4
〈2004〉								
서울시								
여성	95.1	91.6	89.3	90.4	21.8	2.8	3.6	4.2
남성	95.1	91.1	88.8	90.4	20.3	2.5	3.4	4.2

※ 주 : 1) 1주간 TV시청 시간 = (평일 평균 시청시간\*5) + (토요일 평균 시청시간) + (일요일·공휴일 평균 시청시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표 4-17 ■ 서울시 주당 평균 신문읽기 시간

(단위: %, 시간)

	전체 구독률 %	일반신문					인터넷 신문				
		계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2주1회	계	거의 매일	주 3~4회	주 1~2회	2주1회
〈2000〉											
서울시	77.0	75.3	50.2	14.5	8.6	2.0	17.7	7.9	5.1	3.7	1.0
여성	68.3	66.6	38.0	15.6	10.5	2.5	12.7	4.4	4.1	3.2	1.1
남성	86.3	84.4	63.1	13.3	6.6	1.5	23.0	11.6	6.2	4.3	0.8
〈2004〉											
서울시	73.1	85.4	63.4	20.3	13.1	3.2	40.3	55.4	25.7	15.2	3.7
여성	66.3	83.6	54.7	22.9	17.6	4.8	40.2	48.0	28.1	18.5	5.3
남성	80.1	86.9	70.7	18.0	9.4	1.9	40.4	61.8	23.7	12.3	2.3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 2)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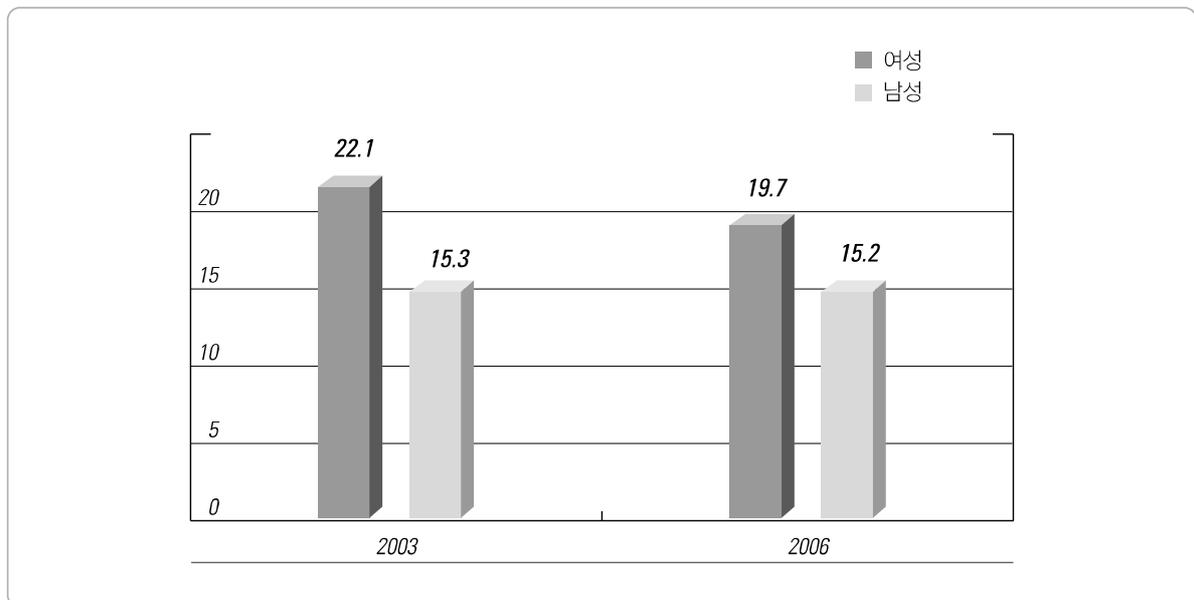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서울시 성인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는 실제 유병률 혹은 발병률을 지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중심 지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유병률 지표 사용이 더 바람직하다. 유병률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3년, 2006년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 성별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병률 지표는 여성들의 건강 상태가 남성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 표 4-18 ▣ 서울시 성별 유병률

(단위 : 일수, %)

		유병률	평균유병일수	평균와병일수
2003	여성	22.1	6.0	0.7
	남성	15.3	6.0	0.9
2006	여성	19.7	6.7	0.8
	남성	15.2	6.7	0.8

※ 주 : 유병률 = (기간내(2주간) 유병자 / 조사대상인구) \* 100, 평균와병일수 = (기간내(2주간) 총 와병일 / 기간내(2주간) 총 유병자)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그림 4-9〉 서울시 성별 유병률

### 3) 성별 건강검진율

서울시 성인지 지표에서 성별 건강검진율은 질병을 사전에 발견해서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한다는 점에서 채택한 지표이다. 건강검진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건강 검진은 고용 현황이 안정적인 인력이나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이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성들의 질환 예방의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강과 관련하여 예방 및 건강 증진이 중요한 시점에서 건강검진율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성 건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병률 외에 여성특정 질병 발생비율, 만성질환자 유병률 및 치료 경험률, 암 발생률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특정 질병 발생비율의 경우 특정 질병의 범주를 어디까지 규정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각 질병 발생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통계가 수집되어야 한다.

만성질환자 유병률은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건강의 중요 지표이다. 서울시 지역 통계 자료 수집이 가능하므로 성인지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 여성의 만성질환이 증가할 것이므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이다.

암 발생률 지표의 경우, 암 등록률 지표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조기 검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암 발생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암 등록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여성에게서 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여성 대상으로 암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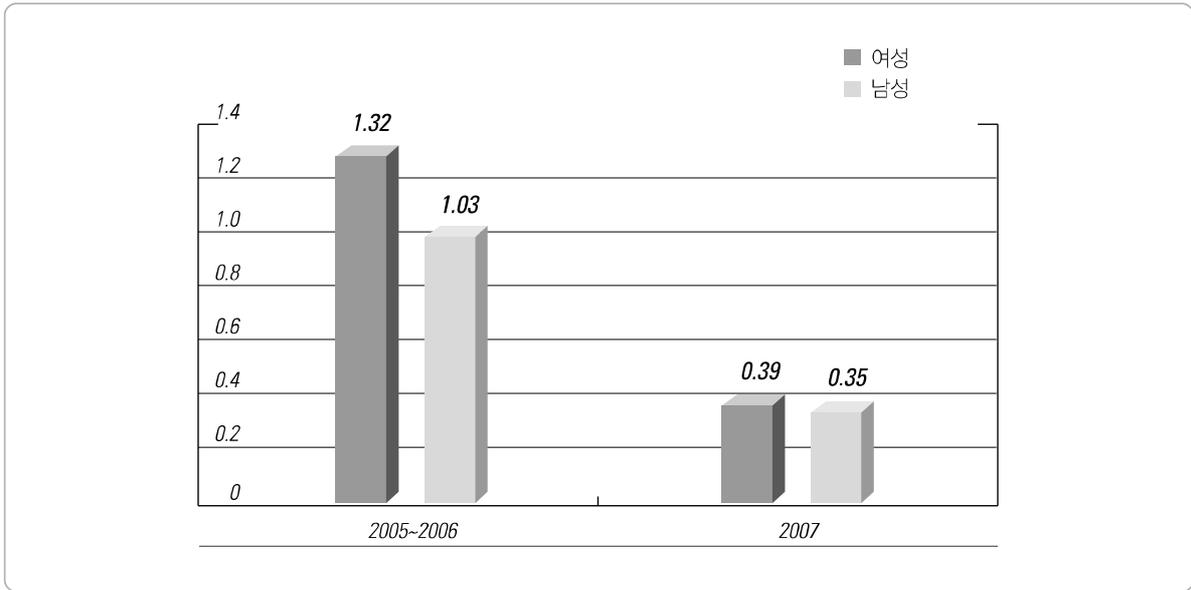
여성의 치료 경험률 지표는 유병률과 수진율을 통합하여 여성들이 실제로 남성보다 치료 경험률이 더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산식은 질병 발생 여성의 수 대비 치료 수진

표 4-19 서울시 성별 암 등록현황

(단위 : 명, %)

년도	성별	등록 암 환자 수	서울시 남녀전체 인구	암 등록률
2005~2006	여	69,234	5,210,721	1.32
	남	53,417	5,145,481	1.03
2007	여	20,077	5,129,522	0.39
	남	17,881	5,063,188	0.35

※ 주 : 암 등록 환자는 등록주소지 기준임. 2005년 현황은 2006년 포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통계연보」



〈그림 4-10〉 서울시 성별 암 등록 비율

한 여성의 수로 구한다. 여성건강과 관련된 통계는 유병률과 수진율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수진율 통계만 분리해서 보면 여성의 진료 건수가 남성보다 많아 여성의 치료 경험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질병 발생 수가 더 많으면 치료율이 높은 것이 당연하므로 여성들의 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성의 치료 경험률 지표를 유병률 지표 측정 시 병행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병률은 3년마다 한번씩 조사되고 있고(「사회통계조사」), 게다가 유병률은 유병 일수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치료한 여성의 수는 여성의 수가 아니라 치료 건수로 조사(국민

▮ 표 4-20 ▮ 서울시 성별 수진(진료) 현황

(단위 : 명, 건, 일, 천원)

수진년도	성별	진료건수	입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2005	여	465,004	1,129,419	8,509,492	152,669,129
	남	399,396	1,118,473	5,251,681	184,002,457
2006	여	514,332	1,289,092	9,267,114	200,324,880
	남	439,853	1,272,565	5,728,797	242,385,834
2007	여	613,600	1,507,539	12,072,154	252,488,246
	남	537,468	1,493,895	7,398,675	306,126,403

※ 주 : 수진은 병원 방문 날을 말하는 것임. 진료일수는 보험료 지급 기준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 지표를 유의미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후에 필요한 통계자료에 대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 4)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지표에 대한 의견으로는 시설수보다 실제 폭력 발생건수를 지표화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 외에 전체여성인구 대비 관련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 비율인 성폭력·가정폭력 시설 수용비율을 추가할 것이 제안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지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실제 발생건수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제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통계는 발생건수를 검거건수로 대체하고 있는데, 성폭력과 가정폭력 모두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자료로 정확한 폭력 발생 건수를 측정하기 어렵다. 통계의 한계로 인해 기존의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수에 범죄 발생건수와 성폭력·가정폭력 시설 수용비율을 보완하여 측정하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표 4-21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건수,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2,070	2,007	2,201
2007	2,086	2,005	2,229
2008	<b>1,459</b>	<b>1,389</b>	<b>1,501</b>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내부자료

표 4-22 서울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건수,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3,262	3,262	3,808
2007	3,182	3,182	3,742
2008	<b>2,157</b>	<b>2,157</b>	<b>2,586</b>

※ 주 :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 된 건수만 파악이 되므로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동일함.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 5) 여성의 사회문화권 관련 지표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대체적으로 현재 구성된 지표들과 사회문화권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 안전, 인권 등 사회권으로 묶일 수 있는 내용의 비중이 높은 반면, 문화권과 관련된 지표들이 제외되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화권과 관련된 지표로 제시된 것은 성별 문화향유율, 평생교육 참여율, 성별 여가시간 차이이다. 그 외에 성별상담관련 시설 수, 성별 편의시설 이용률, 성별 자살률 혹은 성별 우울증 비율 등이 제안되었다.

사회 문화권 영역이 포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여성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네트워크 정도, 사회활동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신문구독률 및 정보획득 통로, 여성의 여가활동,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제안하였다.

전문가가 제안한 지표들의 통계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성별 문화향유율의 경우, 문화활동 관람 횟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 양성 평등 지표로 포함시킬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별 평생교육율과 성별 여가시간 지표 값은 여성이 더 낮으므로 문화권 지표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 지표들을 보다 여성의 사회문화권이라는 권리의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한 통계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통계들을 서로 보완하는 체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3 서울시 성별 문화활동 연간 관람 횟수(2007)

(단위 : 횟수, %)

	미술전시회, 미술관			전통문화공간, 전통공연			연주회, 무용, 연극등 공연장		
	1-4회	5-9회	10회 이상	1-4회	5-9회	10회 이상	1-4회	5-9회	10회 이상
	%	%	%	%	%	%	%	%	%
〈2007〉									
여성	17.2	1.2	0.6	17.0	1.1	0.4	17.0	1.5	0.7
남성	12.6	0.8	0.5	14.2	0.9	0.3	12.1	0.8	0.4
	대중음악 콘서트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관람		
	1-4회	5-9회	10회 이상	1-4회	5-9회	10회 이상	1-4회	5-9회	10회 이상
	%	%	%	%	%	%	%	%	%
〈2007〉									
여성	9.4	0.5	0.2	26.9	14.3	13.3	5.0	0.6	0.2
남성	7.5	0.4	0.2	27.1	13.2	11.2	11.0	1.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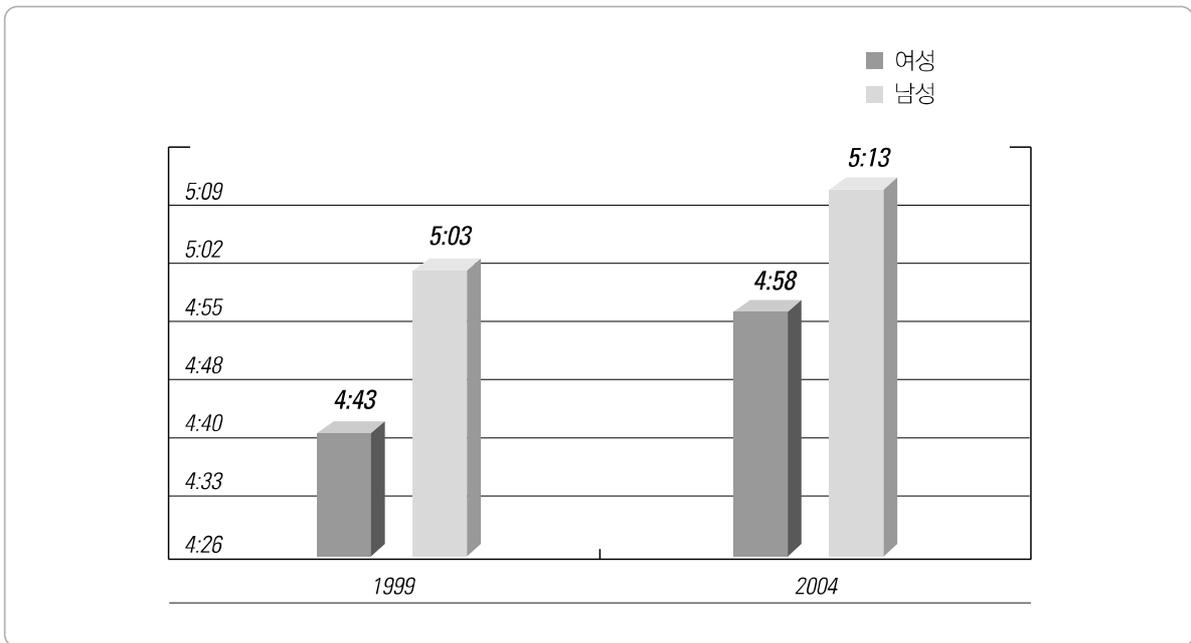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2007)

표 4-24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

	2000	2004
여성	17.3	21.3
남성	19.3	22.8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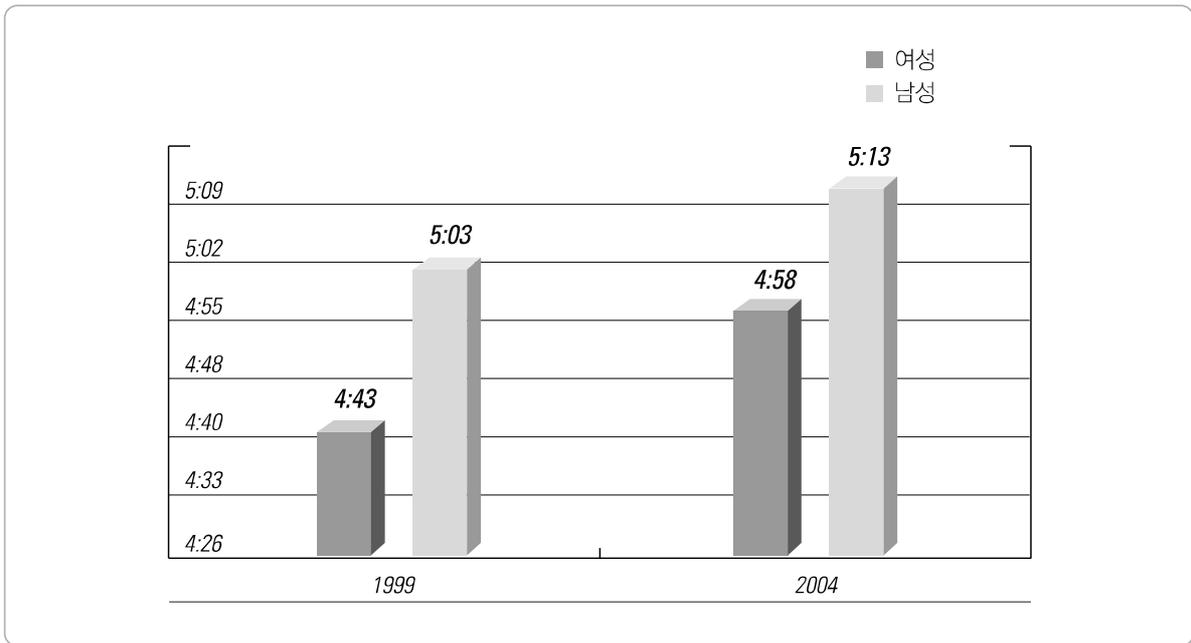


〈그림 4-11〉 서울시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표 4-25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요일평균)

(단위 : 시, 분)

	1999	2004
여성	4:43	4:58
남성	5:03	5:13



〈그림 4-12〉 서울시 성별 여가활동시간

##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표 4-26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문가 조사 결과

영역	세부 지표	보완 내용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성별 5급 이상 공무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 비율로 수정하여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이 포괄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장교감, 사법분야-판사, 검사 등)하는 것이 필요함.</li> <li>- 9급이나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성별 비율을 보는 것이 필요함.</li> <li>- 기획, 예산, 인사, 감사는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주요부서로 명명하기 어려움.</li> </ul>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지표에 포함 시킬 필요 있음.</li> <li>-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을 서울시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포함할 필요 있음.</li> </ul>

### 1)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지표에 대해서는 관리자 비율로 수정하여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학교장 및 교감의 남녀 차이와 사법 분야(판·검사 등)의 남녀 비율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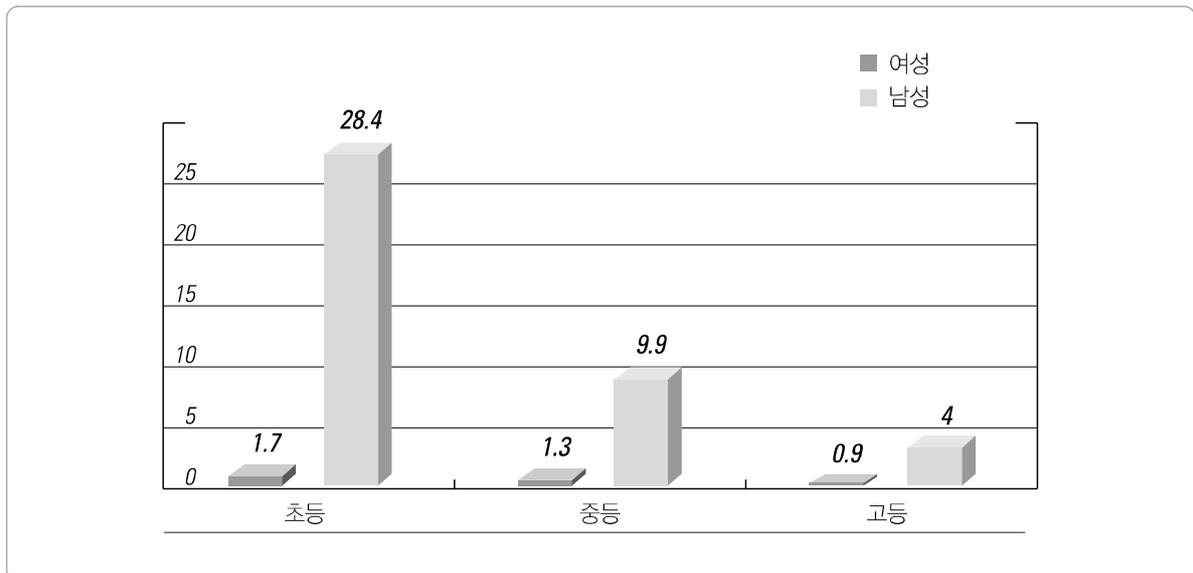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의 남녀 비율을 구하였다. 산식은 전체 여성교원 수 대비 여성 교장·교감 수, 전체 남성 교원 수 대비 남성 교장·교감수의 비율이다. 이에 따라 측정된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의 성비는 전 학교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남성교장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이 지표는 여성 진출이 많은 교육 분야의 대표성 지표라는 점과 성별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4-27】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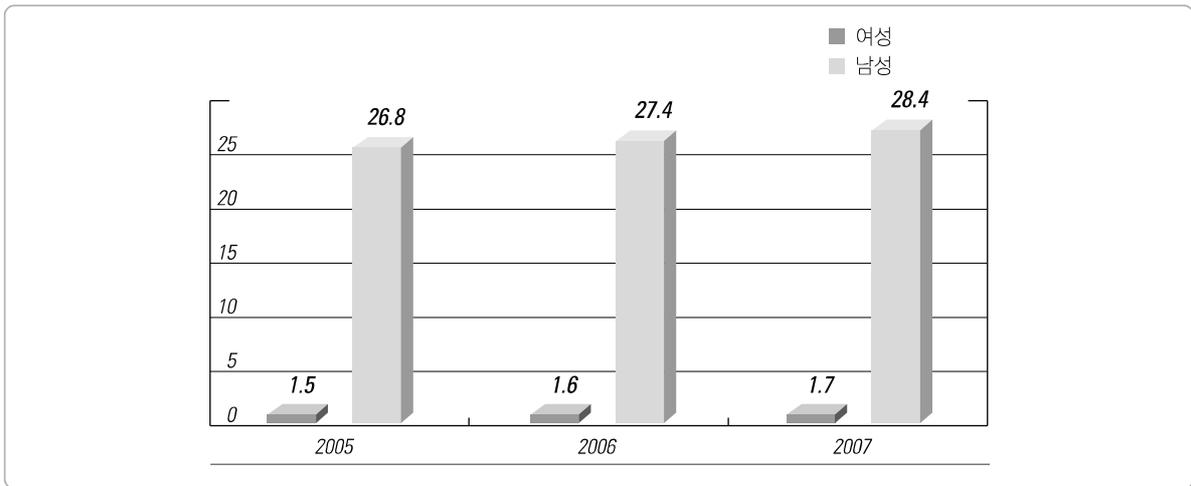
(단위: %)

		2005	2006	2007
초등학교	여성	1.5	1.6	1.7
	남성	26.8	27.4	28.4
중학교	여성	1.13	1.15	1.3
	남성	9.8	9.9	9.9
고등학교	여성	0.9	0.9	0.9
	남성	3.9	3.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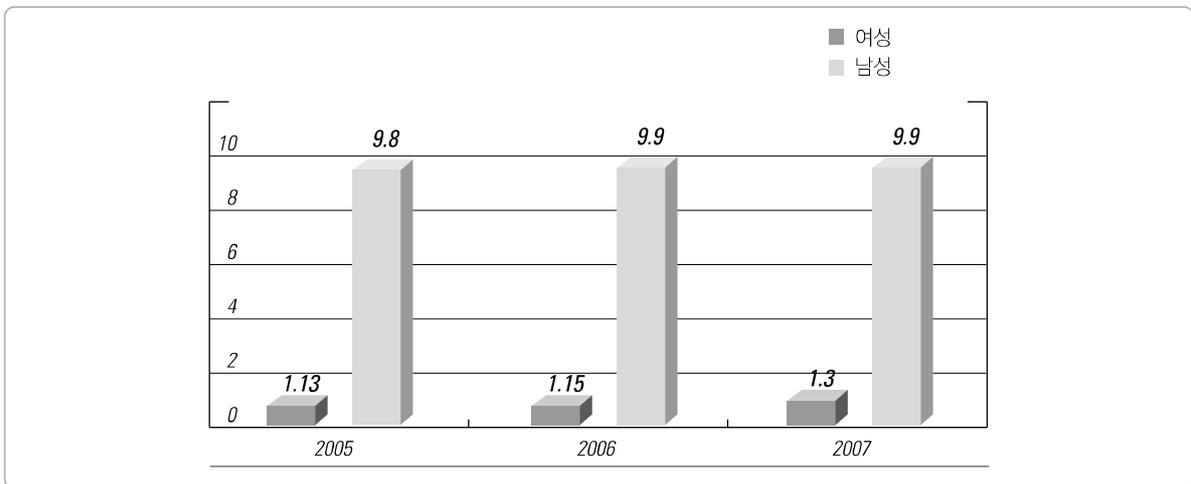
※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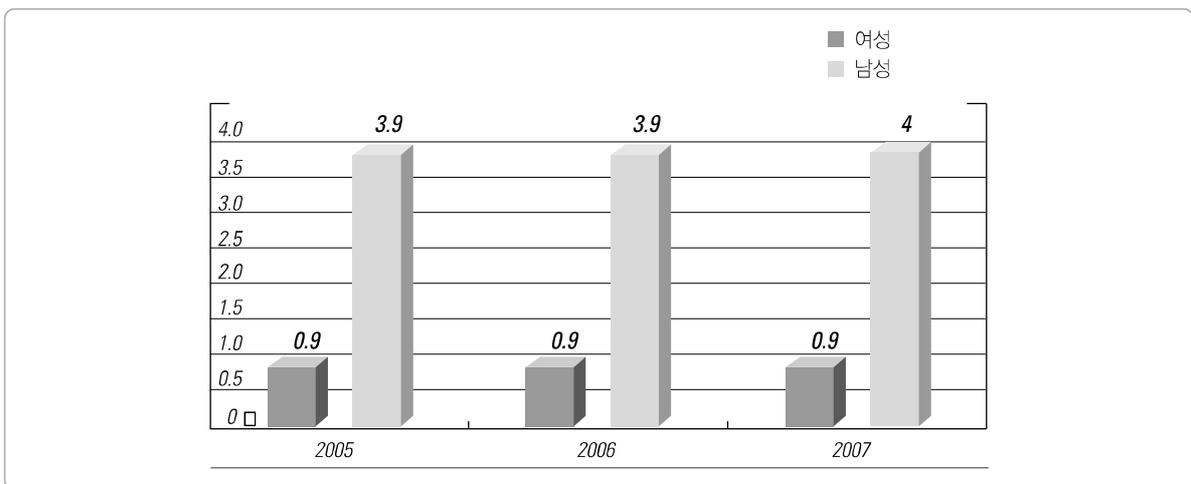
〈그림 4-13〉 서울시 성별 초중고 교장·교감 비율(2007)



〈그림 4-14〉 서울시 성별 초등학교 교장·교감 비율



〈그림 4-15〉 서울시 성별 중학교 교장·교감 비율



〈그림 4-16〉 서울시 성별 고등학교 교장·교감 비율

대학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남녀 교원 수를 비교하였다. 남성대비 여성 교원의 비율은 2005년 0.25, 2006년 0.24, 2007년 0.24로 여성 교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표 4-28)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단위 : 명, %)

	2005		2006		2007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교원수	3,148	12,692	2,699	11,292	2,700	11,212
비율	19.9	80.1	19.3	80.7	19.4	80.6
성비	0.25		0.24		0.24	

※ 주 : 교원 수는 전임교원으로서 총장을 비롯하여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를 포함한 수를 말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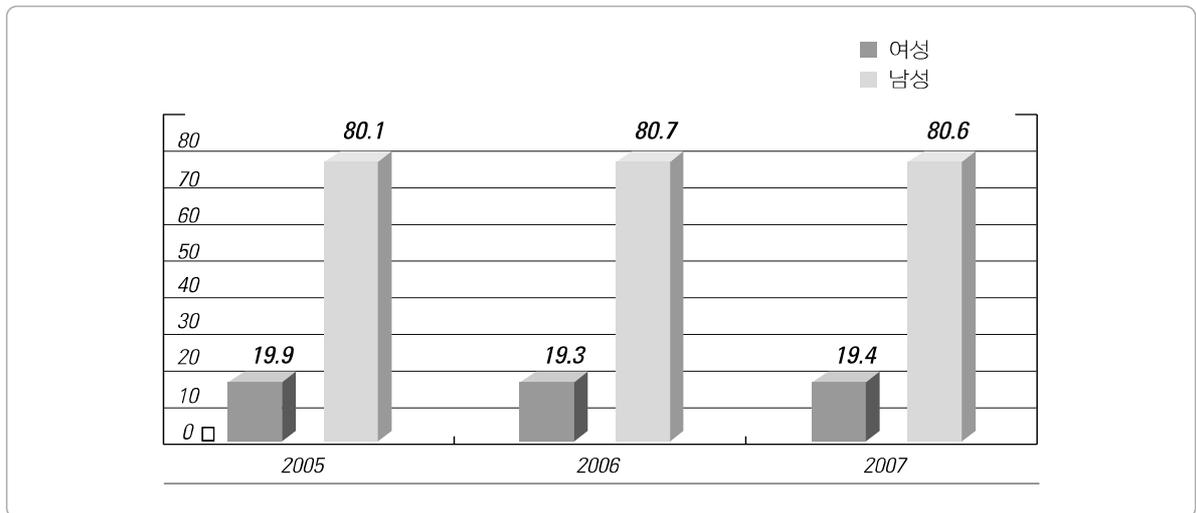


그림 4-17)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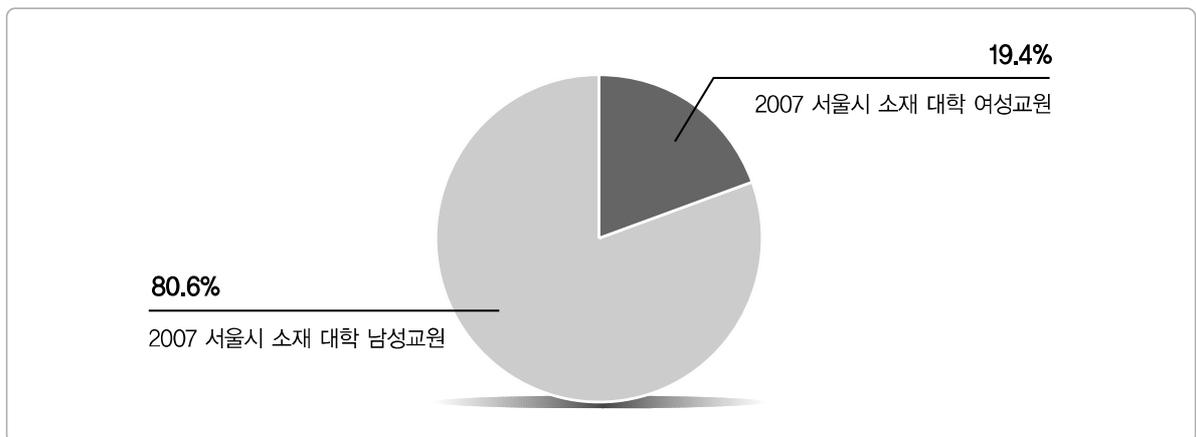


그림 4-18) 서울시 소재 성별 대학 교원 비율(2007)

초·중·고교의 교장·교감 남녀비율과 대학교원의 남녀비율은 교육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자 성별격차가 크므로 서울시 성인지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지표를 각각 개별 세부시표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고 하나의 통합된 지표로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범 분야의 남녀 비율은 서울시만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시 성인지지표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 2) 여성의 대표성 제고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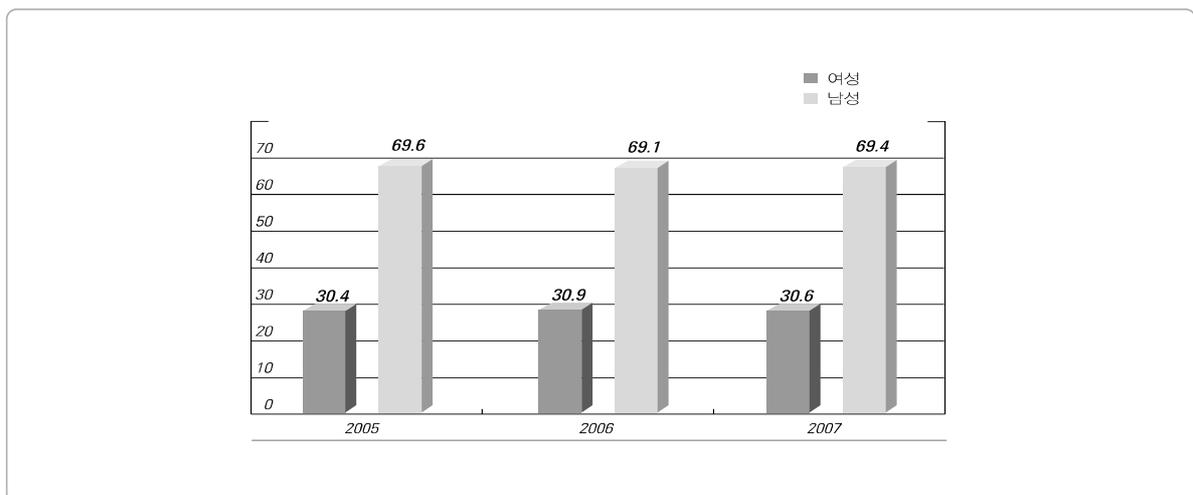
서울시 정책 입안 및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여성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서울시위원회별 여성비율이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의 필요 지표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위원회별 여성비율을 구하였다.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40%정도 까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위원의 참여가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더 중요하다.

▮ 표 4-29 ▮ 서울시위원회별 여성참여 비율

(단위 : %)

	2005	2006	2007
여 성	30.4	30.9	30.6
남 성	69.6	69.1	69.4

※ 자료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내부자료



〈그림 4-19〉 서울시위원회별 성별 참여 비율

그러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 내 여성임원 비율은 서울시와 통계청 모두에서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후에 자료 보완이 되면 여성 대표성 제고의 구성 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6. 소 결

서울시 성인지지표 체계의 대체 혹은 보완과 관련한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서울시 성인지지표 수정 보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의 제시안은 제안 지표의 성인지성과 지역통계 가득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서울시 성인지지표 개발 목적에는 서울시 지표와 국제지표와의 비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 장에서 제안하는 안은 서울시 시계열 비교만을 위한 제안이다. 향후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위한 개선안은 따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4-30 서울시 성인지지표 수정 보완(안)

영역	세부지표	보완 내용
경제세력화	취업률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여 측정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로 그대로 유지하되 특수 고용형태 통계자료 생산하여 보완
	노동조합원 구성비	노동조합원 구성비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노조 간부비율은 지역데이터 생산보완
	성별주택보유율	제외 검토
일/가족양립	영아보육시설이용률	맞춤형 보육시설(시간 연장,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이용률로 전환
	육아휴직자 비율	그대로 유지하되 분석 시 산전후 휴가 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 비율 등 보완
소수자 사회통합	노인 취업률	여성 노인 빈곤 지표 혹은 노인 만성질환과 관련된 지표로 대체 검토
	장애인 등록률	그대로 유지하되 장애인 교육율과 취업률 통계를 생산하여 보완
	다문화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표 추가
사회문화권	인터넷 활용률	인터넷 외에 TV, 신문 정보접근성을 포함하는 통합지표로 변경
	주관적 건강상태	유병률로 대체
	건강 관련 지표	암 등록률, 치료 경험률 등 추가 검토
	문화 관련 지표	문화 향수권 통합지표, 평생교육률, 성별 여가시간 차이 추가
대표성제고	교육계 대표성 지표	초중고 교장, 교감 성비, 대학교원 성비 지표 추가



**V**

**결론 및 제언**



# V 결론 및 제언

## 1. 서울시 성인지지표 측정 결과 비교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2006년 시안이 개발된 이후, 매년 측정을 하여 성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해 왔다. 2006년 이후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세부 지표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계열로 비교하거나 전국 혹은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서 서울시 여성의 평등 상황을 평가해 왔다. 매년 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나, 지표별로 측정값 수치만으로는 변화 추이 분석이 쉽지 않아 객관적 수치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 체계 개발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지수 체계 개발하고,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시 성인지 지수 체계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여 각 지표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였다. 지수 값 산출 과정에서 성중립적(gender neutral)이거나, 지나친 남녀 간 수치차이로 지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지표들을 제외하고, 최종 4개 영역 18개 지표 값을 측정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간 지수 값을 산출하였다.

서울시 성인지 지수 분석 결과 서울시 성인지 지수는 2005년 44.02, 2006년 44.05, 2007년 44.62로 상승하여 근소하나마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인지 지수가 도달해야 할 목표 1에 반 수준도 안 된다는 점에서 성인지 지수 향상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역별 지수를 보면 여성의 경제세력화,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은 성평등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2005년 33.44에서 2007년 28.21로 하락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에서 성평등 지수 값이 가장 높고,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여성의 경제세력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세부지표의 지수 값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영역에서 성별 대졸자 취업률 지표가 남성과 여성이 가장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평등이 가장 취약한 지표는 주택보유율로 나타났다. 3년간 시계열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대졸자 취업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표에서 다소 성평등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영역에서는 노인 취업률 지표 값이 가장 높고, 장애인 등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은 0.80,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0.80, 장애인 등록률은 0.63으로 나타났다. 3개년 간의 시계열 변화는 크지 않으며 근소하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영역에서는 건강검진을 성평등 지표 값이 가장 높고, 도시안전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건강검진율은 0.93, 인터넷활용 가능률은 0.86, 주관적 건강상태평가는 0.80, 도시안전체감도는 0.50이다. 3개년 간 시계열 비교 결과는 인터넷 활용 가능률은 남녀 모두에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검진율과 도시안전체감도는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영역은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율이 가장 높고, 광역의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개년 간 시계열 비교 결과는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5급 이상 공무원 배치비율에서 여성비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 사회에서의 성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이 근소하게나마 향상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과연 그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10개국의 관련 지표와 서울시 성인지표 값을 비교하였다. 도시와 국가비교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국가와의 비교는 서울시 성평등 수준이 향후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비교는 주로 경제부문, 일/가족양립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에 한정하였다. 경제부문에서 보면, 경제활동참여율, 대졸 여성취업률, 성별 평균임금비, 성별관리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서울시 여성의 수준은 이태리, 일본과 함께 하위 그룹에 속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Global Gender Gap 지수에서도 한국은 전체 130개 국 중 경제영역에서 110위를 차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성평등 지위는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확대하고 저임금과 고용안전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제비교를 통해 서울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시설,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부부 가사노동시간 모두에서 OECD 선진국가 보다 열악하다. 서울시는 공보육 시설 비율이 낮고, 영아보육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여성들의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사노동 시간 비교에서도 서울시 여성들이 선진국가 여성들보다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고위 공직이나 의원직에서 서울시의 비율은 저조하다. GGG 지수

에서도 정치영역 순위는 한국은 130개 국 중 10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와 국제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은 선진 10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서울시 성인지 지표는 앞으로 각 지표별로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치에 비해 본다면 지난 3개년 간의 서울시 성인지 지표의 지수 값 변화는 지극히 미미하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경제력 강화 및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 2. 서울시 성인지지표 보완 및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인지지표 보완 및 개선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추가 보완 지표를 분석하였다. 성인지 지표는 각 영역에서 성불평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지표의 비교를 위한 지역 지표 혹은 국제 지표와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6년 개발된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당시의 서울시 여성의 현안을 중심으로 하되 서울시 통계자료 수집 가능성을 우선시 하였으므로 각 영역의 대표성을 갖는 지표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영역별로 지표의 수준이나 내용이 통합적이지 못하다. 지표의 목표 방향이 정(+ )의 방향과 부(-)의 방향인 지표들이 혼재하고, 성별 격차가 있는 지표와 시설 수 등 성중립적인 지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거시적인 사회지표와 시설 등 정책 인프라 지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표 중 서울시 지역 통계 가득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표별로 성별격차가 커 성평등 지표로서 적합한 지표들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세력화 영역에서는 성별 취업률을 추가하되 연령별, 학력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여 비교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은 특수고용형태와 관련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고 성별 주택보유율은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가족 양립 지원 영역에서는 영아보육시설 이용률 대신 맞춤형 보육 시설 이용률을 대체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자 성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산전후 휴가 급여자 대비 육아휴직자 수 비율을 보완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소수자 사회 통합에서는 노인취업률 대신 노인 빈곤지표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경우 등록률 외에 교육율과 취업률 통계를 보완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표를 추가하되 다문화 가족 여성들의 취업률 관련 통계 생산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권 영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지표들로는 인터넷 활용률을 다른 정보원들과 통합된 지표로 대체하고,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은 유병률, 암 등록률, 치료 경험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 관련 지표로는 문화향수권 지표, 평생교육률, 성별여가시간 차이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성 제고 영역에서는 교육계 대표성 지표인 초·중·고 교장, 교감 성비, 대학교원 성비 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성인지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 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 사회지표와 정책지표 이원 체계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지표체계는 성평등 수준의 거시적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 지표를 포함하되 경제, 일/가족양립, 교육, 건강, 대표성 제고의 5개영역의 약 15개 내외의 세부지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표체계 구성 시 지역비교나 국제비교를 위해 이들 지표와 공통된 지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향후 국제비교를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기본지표 체계는 서울시 내의 지역별로도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 단위 혹은 권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로 구성된 정책 지표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체계는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그 정책 수행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시 성인지 정책 지표 체계를 구축하면 서울시 여성정책의 변화 기초를 반영할 수 있고 정책 효과 평가의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궁극적으로 지표가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성인지지표의 궁극적인 비교 대상이나 목표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 여성의 성평등 수준은 OECD 선진 국가 혹은 선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성인지지표는 국제기구의 지표 체계와 공통 지표 체계를 채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 도시 수준에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도시 지표 체계를 구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Ⅰ 국내 자료 및 사이트 Ⅰ

- 고혜원 외(2005), 『여성인적자원 개발 혁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미간행.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교육통계연보』.
- 국미애, 최성애, 조순경(2006), 『젠더 노동과 간접차별』, 푸른사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금창호, 이세진(2005),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방안”, 『지방행정연구』, 제 19권 제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명소 외(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한국조사연구학회.
- 김선옥·김명숙(1994), 『여성일정비율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희 외(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개발: 성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미(2003),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우철 외(2006),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원홍, 김은경, 김혜영(1999),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유나·고선주·허은정(2006),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여성.
- 김재기(2006), “여성공무원 차별인식과 인사정책 방향: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 김창연·이옥분·허영혜(2007), 『2007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 (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노동부 홈페이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노동부(2000), 『고용차별의 양태와 효과적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2006), 『여성과 취업』.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안)”.

노동부(2005), “2005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부(2008), “산전휴가·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현황”.

문미경, 김혜영, 최무현(2006),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문유경·주재선(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남녀 노동자 조직률 및 간부 현황”.

박대식 외(2005),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선영·윤덕경 (2005).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박세경(2007), 『사회서비스 부분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국가의 제도적 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외(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팀.

서울시 가족보육담당관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국 홈페이지.

서울시 사회과 홈페이지.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홈페이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홈페이지.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 홈페이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홈페이지.

서울시 행정국 인력운영과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07년 서울시 복지건강국 사업계획』.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06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주민등록인구통계」 (2006)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2007), 『성 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도시 전략』 자료집, 미간행.

손경한(2006), 『사이버폭력지수 개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손호명(2002),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 현황과 과제』.

안주엽 외(2007), 『노동과 차별(II) :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양인숙, 임희정, 박경환(2006),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2006),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2007), 「참여정부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적극적 개발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2007년 여성정책 전략센터 연구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여성부(2000), 『여성근로자의 가족책임이 직업 숙련도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2004), 『공직사회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 공무원 근무만족도 연구』.

여성부(2006), 『가족친화지수(FFI)개발 및 기관 측정 연구보고서』.

이가옥 외(2002), 『삶의 영역별 지수화 및 평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이규용, 남재량, 박혁, 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상연(1998), 『사회복지지수작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수원.

이익섭(1997), 『장애인 사회통합의 지수개발과 측정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이재경·조영미 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 및 정책대안연구』, 대통령자문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미혜(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지연 외(2008), 『고용유연화와 비정규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 외(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정영근 외(200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영식 외(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

조영미·고선주·김창연·임현지(2006), 『서울시 성인지표(GSI)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여성.

조영미·고선주·조연숙·김유나·김창연·이해리(2006), 『2007-2010 서울시 여성정책 중기계획』,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여성.

조영미·고선주·조연숙·김유나·임현지(2007), 『서울시 성인지표(GSI) 평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재선·황보은(2006), 『2006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의회의원선거총람』, 『구·시·군 의원 선거총람』.

최은영(2006), “취업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2004), 『생활시간조사보고서』.

통계청 홈페이지(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홈페이지, 『경제활동인구연보』,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홈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생활시간조사』·『사회시간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사회통계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인터넷이용통계홈페이지.  
 한상신(2003), 『인적자원 지수 및 지표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홍미영(2004), “여성공무원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비교를 통한 김혜  
 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영국·캐  
 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Ⅱ 외국 자료 및 사이트 주소

- Agocs, C. , Catherine Burr(1996), "Employment equity, affirmative action and managing diversity: assessing the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vol. 17, no. 4-5, pp. 30-45.
- Beck, Tony(1999), Using Gender-Sensitive Indicators, A Reference Manual for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 Commonwealth Secretariat, U. K.
- Busby Nicole(2006), "Affirmative Action in Women's Employment: Lessons from Canada",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 33. no. 1.
- City of London.url, <http://www.citylondon.gov.uk/>
- CITY OF NEW YORK,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2005 Policy.
- Federal Statistical Office Germany.url, <http://www.destatis.de>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 INSEE(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 France.url, <http://www.insee.fr/>
- Lapidus, J., Deborah Figart(1998), "Remedying Unfair Acts: U. S. Pay Equity by Race and Gender", Feminist Economics, vol. 4, no. 3, pp.7-28.
- MAYOR OF LONDON, Gender Equality Scheme 2007-10
- New York City, NYC.gov.url, <http://nyc.gov>
- OECD DEVELOPMENT CENTRE(2006), MEASURING GENDER (IN)EQUALITY.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 OECD(2007),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 OECD(2007), OECD Factbook 2007 : Economic, Environment and Social Statistics.
- OECD(2007), OECD Family Database.
- OECD(2007), OECD Health Data 2007.
- OECD, OECD LFS(Labour Force Survey) database.
- Reid, M, Will Miller, Brinck Kerr(2004), "Sex-Based Glass Ceilings in U. S. State-Level Bureaucracies, 1987-1997", Administration & Society, vol. 36, no. 4, pp. 377-405.
- Siaroff, A.(1996), "Work, Welfare and Gender Equality: A New Typology", in D. Sainsbury(ed),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London: pp.82-100.
- Statistics Canada(2006), 『Women in Canada』, <http://www.Statcan.ca>

Statistics Canada, 1999 and 2004 General Social Survey.  
 Statistics Canada, 2006, Labour Force Survey (LFS), <http://www.Statcan.ca>  
 Statistics Canada, Canadian Centre for Justice Statistics.  
 Statistics Canada,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Statistics Canada, Participation and Activity Limitation Survey.  
 Statistics Canada, Women in Canada, Fifth Edition, <http://www.Statcan.ca>  
 Statistics Sweden(2006), 『WOMEN and MEN in Sweden』, <http://www.scb.se>  
 Statistics Sweden(2007), 『WOMEN and MEN in Sweden』, <http://www.scb.se>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2007), 『Gender Mainstreaming Manual』. Swedish  
 Government Official.  
 Teigen, Mari(2000), The affirmative action controversy, Nordic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8, no. 2.  
 The World Bank Group, <http://genderstats.worldbank.org>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07 Social Welfare and Public Health in  
 Tokyo.  
 U.K. National Statistics, nomis - official labour market statistics.url, [http://www.statistics.  
 go.uk/](http://www.statistics.go.uk/)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http://www.statistics.go.uk/>  
 U.K. Women and Equality Unit.url, <http://womenandequalityunit.gov.uk>  
 U.S. Census Bureau, 2005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www.census.gov/>  
 U.S. Dep Health and Human Services.url, <http://www.hhs.gov>  
 U.S. Dep.Labor.url, Women's Bureau.url, <http://dol.gov>  
 UNDP(2005), 『Korean Human Development Report on Gende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UNDP(2006),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Oxford.  
 UNDP(2007),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Oxford.  
 UNDP(2008),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Oxford.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Statistical Division  
 Database, <http://www.unece.org>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unstats.un.org/unsd>  
 Web Japan Gateway for all Japanese Information STATISTICS, <http://web-japan.org/stat/>  
 WORLD ECONOMIC FORUM(2008),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8』.

# 부 록

## 〈부록 I〉 여성의 경제세력화

〈부록 I-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ex)

〈부록 I-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of sex)

〈부록 I-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부록 I-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부록 I-5〉 성별 정규직 비율(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부록 I-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부록 I-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Rate of union members by sex)

〈부록 I-8〉 성별 주택보유율(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공동명의 포함, 2005년)

## 〈부록 II〉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부록 II-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부록 II-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부록 II-3〉 부부 가사노동시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2004년)

〈부록 II-4〉 육아휴직자 비율(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 〈부록 III〉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부록 III-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부록 III-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부록 III-3〉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부록 III-4〉 성별 장애인 등록률(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 〈부록 IV〉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부록 IV-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 〈부록 IV-2〉 성별 도시 안전도(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 〈부록 IV-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 〈부록 IV-4〉 성별 건강검진률(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 〈부록 IV-5〉 성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 〈부록 IV-6〉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domestic violence &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 〈부록 V〉 여성의 대표성 제고(Rate pf broad unit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부록 V-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부록 V-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Rate of basic unit of local asembly legislators by sex)
- 〈부록 V-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Rate of government employees of GR5 of higher by sex)
- 〈부록 V-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Rate of 재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 〈부록 1〉 여성의 경제세력화

### 〈부록 1-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sex)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여성인구) × 100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남성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남성인구) × 100

Economic Participation Rate by sex (%) = (Women(me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all women(men), 15 years or over)

표 1-1 서울시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15세 이상 인구 <sup>1)</su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sup>2)</sup>	취업률 <sup>3)</sup>	실업률 <sup>4)</sup>
		계	취업자	실업자				
서울시								
2003	8 027	4 981	4 753	228	3 046	62.1	59.2	4.6
2004	8 039	5 068	4 831	237	2 971	63.0	60.1	4.7
2005	8 115	5 135	4 890	246	2 980	63.3	60.3	4.8
2006	8 160	5 138	4 906	232	3 023	63.0	60.1	4.5
2007	8 218	5 122	4 913	209	3 097	62.3	59.8	4.1
여성								
2003	4 119	2 060	1 972	88	2 060	50.0	47.9	4.3
2004	4 129	2 131	2 039	91	1 998	51.6	49.4	4.3
2005	4 170	2 167	2 068	99	2 004	52.0	49.6	4.6
2006	4 199	2 180	2 019	89	2 020	51.9	48.1	4.1
2007	4 231	2 177	2 097	80	2 054	51.5	49.6	3.7
남성								
2003	3 908	2 921	2 781	140	986	74.8	71.2	4.8
2004	3 910	2 937	2 792	146	973	75.1	71.4	5.0
2005	3 945	2 969	2 822	147	976	75.3	71.5	4.9
2006	3 961	2 958	2 815	143	1 003	74.7	71.1	4.8
2007	3 987	2 945	2 816	129	1 043	73.9	70.6	4.4

주 : 1) 15세 이상 인구 중 교도소 수감자, 직업군인, 외국인, 공익근무요원 등은 제외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전체 인구×100

3) 취업률(%) = 취업자 / 서울시 15세 이상 전체 인구×100

4)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부록 1-2〉 성별 대졸자 취업률(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of sex)

$$\begin{aligned} \text{여성 대졸자 취업률(\%)} &= (\text{여성취업자}/\text{여성졸업자}-\text{진학자}-\text{외국인유학생}-\text{취업불가능자}) \times 100 \\ \text{남성 대졸자 취업률(\%)} &= (\text{남성취업자}/\text{남성졸업자}-\text{진학자}-\text{군입대자}-\text{외국인유학생}-\text{취업불가능자}) \times 100 \\ \text{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by sex(\%)} &= (\text{No. of employed women(men) college graduates}/ \text{No. of women(men) college graduates}) \end{aligned}$$

표 1-2 서울시 성별 졸업자 및 취업자 수

(단위 : 명, %)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취업 불가능자	취업률
2004	여	37,169	16,827	5,330	*	-	-	52.9
	남	34,203	17,836	5,405	794	-	-	63.7
2005	여	36,843	21,033	5,246	*	-	-	66.7
	남	33,060	19,490	5,113	835	-	-	71.9
2006	여	36,661	20,997	4,790	*	189	44	66.4
	남	32,807	19,963	4,826	632	138	12	73.4
2007	여	37,325	20,851	4,929	*	267	29	65.0
	남	34,105	20,723	4,968	533	151	7	72.9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부록 I -3〉 성별 평균임금비(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 to male ratio)

$$\text{성별 평균 임금비}(\%) = (\text{여성 월평균임금}^2) / \text{남성 월평균임금} \times 100$$

$$\text{Average Monthly Wage by female-to-male ratio} = (\text{Women's Average Monthly Wage} / \text{Men's Average Monthly Wage}) \times 100$$

표 1-3 서울시 산업별 성별 평균 임금 및 임금비

(단위 : 명, %)

	월급여총액 (1)정액급여+(2)초과급여			특별급여(3)			월평균임금 (1)+(2)+(3)			남녀 임금비 (3/4)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서울시										
2003상반기	1,930,776	1,424,288	2,179,567	455,441	310,797	526,491	2,386,217	1,735,085	2,706,058	64.1
2004상반기	2,049,824	1,514,932	2,331,475	450,775	292,481	534,125	2,500,599	1,807,413	2,865,600	63.1
2005상반기	2,156,833	1,605,654	2,444,623	426,045	282,708	500,887	2,582,878	1,888,362	2,945,510	64.1
2006상반기	2,293,368	1,706,978	2,603,299	445,353	297,111	523,704	2,738,721	2,004,089	3,127,003	64.1
2007.12	2,430,462	1,806,423	2,764,093	422,789	489,648	297,735	2,853,251	2,104,158	3,253,741	64.7

※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 각년도

$$2) \text{ 월평균 임금} = \frac{\text{임금총액}(\text{정상급여액} + \text{초과급여액} + \text{특별급여액})}{(\text{전월말근로자수} + \text{당월말근로자수})/2}$$

#### 〈부록 1-4〉 성별 관리직 비율(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성별 관리직 비율(%)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문가+기술공 및 준전문가 여성 수 / 전직종 여성 근로자 수) × 100

Rate of managerial personnel by sex(%) =  
(No. of women(men) in legislators, managers or higher, professionals, administrative position/ No. of total employed women(men) × 100

표 1-4 서울시 성별 관리직 비율

(단위 : 천명, %)

		총수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 문 가	기술공 및 준전 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직 비율
2003	여	1,972	13	227	187	440	390	329	2	168	21	195	21.7
	남	2,781	179	336	457	351	223	307	4	435	260	229	35.0
2004	여	2,039	14	231	197	455	431	312	1	161	24	215	21.7
	남	2,792	165	338	484	327	210	304	5	453	273	233	35.4
2005	여	2,068	12	245	197	450	453	310	1	144	26	229	22.0
	남	2,822	144	337	508	314	223	278	3	474	271	271	35.0
2006	여	2,091	10	265	202	458	455	301	2	122	34	241	22.8
	남	2,815	131	357	505	314	222	267	4	458	271	287	35.3
2007	여	2,107	16	260	236	477	442	292	3	118	27	237	24.3
	남	2,834	123	378	526	302	205	280	3	445	274	298	36.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부록 1-5〉 성별 정규직 비율(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begin{aligned} \text{여성정규직비율(\%)} &= (\text{여성 상용직 근로자 수} / \text{여성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text{남성정규직비율(\%)} &= (\text{남성 상용직 근로자수} / \text{남성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Rate of regular workers by sex(\%)} &= \\ &(\text{No. of women(men) regular workers} / \text{total employed}) \times 100 \end{aligned}$$

【표 1-5】 서울시 성별 정규직 비율

(단위 : 천명, %)

		총수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상용	임시	일용		
2003	여	1,972	314	220	1,438	510	694	234	35.5	64.5
	남	2,781	859	27	1,895	1,063	587	246	56.0	44.0
2004	여	2,039	322	191	1,526	551	713	262	36.1	63.9
	남	2,792	859	28	1,904	1,066	586	252	56.0	44.0
2005	여	2,068	329	188	1,551	557	731	262	36.0	64.0
	남	2,822	825	26	1,971	1,083	597	291	55.0	45.0
2006	여	2,091	319	186	1,586	618	713	256	38.9	61.1
	남	2,815	806	21	1,988	1,106	586	296	55.6	44.4
2007	여	2,107	315	171	1,621	681	691	248	42.1	57.9
	남	2,834	787	18	2,028	1,171	563	294	57.7	42.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부록 1-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 100

Rate of representatives of establishment by sex(%) =  
(No. of establishment, women(men) representative enterprise / No. of total establishment)×100

표 1-6 서울시 성별 사업체 대표자 분포

(단위 : 개소, %)

	계		여성		남성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사업체 수	비율
2000	719 536	100.0	207 260	28.8	512 276	71.2
2001	723 701	100.0	214 586	29.7	509 115	70.3
2002	735 258	100.0	223 969	30.5	511 289	69.5
2003	748 953	100.0	230 256	30.7	518 697	69.3
2004	740 779	100.0	228 531	30.9	512 248	69.1
2005	741 229	100.0	229 872	31.0	511 357	69.0
2006	733 759	100.0	230 414	31.4	503 345	68.6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부록 1-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Rate of union members by sex)

$$\begin{aligned} \text{여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text{여성 노동조합원 수} / \text{전체 노동조합원 수}) \times 100 \\ \text{남성 노동조합원 구성비}(\%) &= (\text{남성 노동조합원 수} / \text{전체 노동조합원 수}) \times 1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Rate of union members by sex}(\%) &= \\ & \text{No. of female(male) union members/ total no. of union members}) \times 100 \end{aligned}$$

표 1-7 서울시,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

(단위: 명, %)

		조합원 수			조합원 비율	
		전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단위조합 + 지부또는분회등	2002	202,338	167,951	34,387	83.0	17.0
	2003	199,137	165,332	33,805	83.0	17.0
	2004	201,464	167,284	34,180	83.0	17.0
	2005	201,134	166,198	34,936	82.6	17.4
	2006	173,452	142,976	30,476	82.4	17.6
	2007	141,322	113,974	27,348	80.6	19.4

※ 자료 : 서울시 고용창업담당관 내부자료

〈부록 1-8〉 성별 주택보유율(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공동명의 포함, 2005년)

여성의 주택보유율(%) = (여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남성의 주택보유율(%) = (남성명의 주택의 수 / 서울시 전체 주택의 수) × 100

Rate of house ownership by sex(%) =  
 (No. of houses owned by women(men)/ total no. of houses in Seoul) × 100

【 표 1-8 】 > 서울시가구주 성별 점유형태별 일반가구 수

(단위: 명, %)

가구주성별	점유 형태별							
	미상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합계
〈2000〉								
여성	1	155,503	264,811	152,196	10,986	7,211	11,827	602,535
여성비율	14.2	<b>12.3</b>	20.8	34.2	30.2	34.3	24.3	19.5
남성	6	1,107,854	1,006,519	293,040	25,384	13,806	36,792	2,483,401
남성비율	85.8	<b>87.7</b>	79.2	65.8	69.8	65.7	75.7	80.5
합계	21.2	1,263,357	1,271,330	445,236	36,370	21,017	48,619	3,085,93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5〉								
여성		221,776	282,987	239,710	15,425	6,197	14,476	780,571
여성비율	-	<b>15.1</b>	25.7	39.1	30.6	36.5	26.9	23.6
남성	-	1,254,072	817,188	372,789	35,062	10,797	39,411	2,529,319
남성비율	-	<b>84.9</b>	74.3	60.1	69.4	63.5	73.1	76.4
합계	-	1,475,848	1,100,175	612,499	50,487	16,994	53,887	3,309,890
전체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 〈부록 II〉 일·가족 양립 지원강화

### 〈부록 II-1〉 국공립시설이용 아동비율(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text{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 = \left( \frac{\text{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right) \times 100$$

$$\text{Using rate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 \left( \frac{\text{No. of children who use public childcare facilities}}{\text{total No. of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right) \times 100$$

표 2-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

	설립주체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비율
	합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 개인				
2003	155,337	46,232	5,100	4,061	80,500	-	16,730	2,714	29.8
2004	168,569	47,401	4,131	4,961	88,717	-	20,372	2,987	28.1
2005	179,309	48,521	3,443	9,949	90,991	249	22,836	3,320	27.1
2006	183,847	48,629	2,106	12,150	91,056	395	25,748	3,763	26.5
2007	189,768	48,856	1,975	10,358	95,485	427	28,709	3,958	25.7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표 2-2 보육시설 이용비율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0-5세 인구	636,789	611,706	578,096	543,255	530,922
보육시설이용아동	155,337	168,569	179,309	183,847	177,804
보육시설이용비율	23.4	27.6	31.0	33.9	33.5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부록 II-2〉 영아보육시설 이용률(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영아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 (영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전체 0-2세 아동 수) × 100

Using rate of infant care facilities =  
No. of children who use infant childcare facilities/total No. of children aged 0-2) × 100

【 표 2-3 】 서울시 보육대상 아동현황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0-2세	대상 아동	293,630	283,073	271,447	261,141	261,817
	이용 아동	56,421	59,672	67,136	63,073	76,699
	이용율	<b>19.2</b>	<b>21.1</b>	<b>24.7</b>	<b>24.2</b>	<b>29.3</b>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족보육담당관 내부자료

〈부록 II-3〉 부부 가사노동시간(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2004년)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름

Gender Gaps in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between dual earners =  
 Average hours spent on household work of women(men) among dual earners

표 2-4 서울시 가구의 성별 가정관리 시간사용 현황

(단위 : 시 : 분)

		여성				남성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 평균	평일	토요일	일요일
1999	음식준비 및 정리	1:52	1:51	1:56	1:54	0:41	0:41	0:40	0:41
	의류관리	0:50	0:49	0:53	0:49	0:31	0:28	0:33	0:44
	청소 및 정리	0:51	0:49	0:57	0:54	0:34	0:32	0:41	0:35
	집 관리	0:31	0:29	0:35	0:35	0:55	0:56	0:58	0:47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0:44	0:41	0:48	0:51	0:43	0:42	0:42	0:50
	가정경영	0:26	0:27	0:25	0:22	0:31	0:34	0:25	0:20
	기타 가사일	0:25	0:24	0:18	0:40	0:47	0:58	0:30	0:10
	가족 보살피기	1:49	1:52	1:46	1:40	1:08	1:05	1:08	1:27
	총 가사 시간	<b>4:55</b>	4:55	5:04	4:49	<b>2:06</b>	2:01	2:10	2:31
2004	음식준비 및 정리	1:41	1:41	1:44	1:38	0:40	0:39	0:38	0:44
	의류관리	0:47	0:46	0:46	0:51	0:29	0:27	0:37	0:31
	청소 및 정리	0:51	0:49	0:53	0:55	0:39	0:40	0:33	0:42
	집 관리	0:32	0:30	0:34	0:37	0:46	0:45	0:38	0:58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0:45	0:42	0:55	0:49	0:37	0:33	0:45	0:50
	가정경영	0:26	0:27	0:19	0:24	0:39	0:45	0:31	0:16
	기타 가사일	0:24	0:18	0:35	0:37	0:22	0:20	0:43	0:10
	가족 보살피기	1:52	1:53	1:47	1:54	1:10	1:00	1:22	1:48
	총 가사 시간	<b>4:47</b>	4:48	4:44	4:49	<b>2:11</b>	1:59	2:20	1:58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0, 2005)

〈부록 II-4〉 육아휴직자 비율(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 = (여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육아휴직자 수) × 100

Rate of parental leave allowance by sex(%) =  
 (No. of men(women) who take parental leave/ total No. of people who take parental leave) × 100

표 2-5 서울시 성별 육아 휴직자 수 및 수급액(사업체규모별)

(단위 : 명, 원, 일)

	여성			남성		
	휴직자수	수급액	평균 휴직일수	휴직자수	수급액	평균 휴직일수
2005 계	22,831	17,388,303,240	-	329	219,698,790	-
2006 계	10,789	19,905,885,130	737	140	228,106,320	631
2007 계	8,404	24,336,209,330	2,337	122	315,358,620	1,985
규모별						
5인 미만	1,071	3,352,826,910	245	37	114,020,960	233
5-9인	661	2,049,311,800	247	23	53,917,640	184
10-29인	712	2,054,444,870	224	9	22,576,190	146
30-49인	275	763,060,660	204	8	20,459,860	216
50-69인	208	526,480,130	202	5	4,554,830	117
70-99인	221	558,868,440	205	5	13,507,620	155
100-149인	231	562,993,490	182	1	5,913,330	336
150-299인	456	1,174,642,590	194	5	15,533,830	185
300-499인	327	859,913,730	196	1	1,998,700	141
500-999인	762	2,223,144,310	218	3	6,055,260	119
1000인+	3,480	10,210,522,400	220	25	56,820,400	153

※ 자료 : 노동부, 여성고용과 내부자료(2008)

### 〈부록 III〉 소수자 여성 사회통합

#### 〈부록 III-1〉 성별 빈곤선 이하 가구주 비율

보호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 비율(%) = (여성수급자 수/전체수급자 수)×100  
 보호대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남성 비율(%) = (남성수급자 수/전체수급자 수)×100

Rate of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ing system by sex(%) =  
 (No. of female(male) beneficiarie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total of beneficiaries)×100

표 3-1 서울시 보호대상 및 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단위 : 가구, 명, %, 개소)

	합계				일반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4	87,732	167,490	96,788(57.8)	70,702(42.2)	84,111	150,505	88,170	62,335
2005	97,495	183,018	105,092(57.4)	77,926(42.6)	94,059	166,153	96,276	69,877
2006	-	196,110	112,401(57.3)	83,709(42.7)	-	179,120	103,741	75,379
2007	-	203,536	114,938(56.5)	88,598(43.5)	-	187,597	106,178	81,419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시설수	인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4	3,621	5,235	2,823	2,412	125	11,750	5,775	5,975
2005	3,436	4,849	2,661	2,188	138	12,016	6,155	5,861
2006	-	4,583	2,498	2,085	-	12,407	6,162	6,245
2007	-	4,214	2,394	1,820	-	11,725	6,366	5,359

※ 자료 : 서울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표 3-2 서울시 전체 남녀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단위 : 명, %)

	기초생활수급자여성수 /여성인구수	기초수급 여성비율	남성인구수	기초수급 남성비율
2004	96,788/5,159,095	1.9	70,702/5,128,752	1.4
2005	105,092/5,173,266	2.0	77,926/5,123,738	1.5
2006	112,401/5,210,721	2.2	83,709/5,145,481	1.6
2007	114,938/5,174,655	2.2	88,598/5,247,127	1.7

※ 자료 : 서울시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3 서울시 65세 이상 남녀 노인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여성		남성		남성 100 기준 여성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2001	358,858	61.2	227,039	38.8	158.1
2002	371,649	60.6	241,134	39.4	154.1
2003	389,542	60.0	260,213	40.0	149.7
2004	410,704	59.2	282,521	40.8	145.4
2005	411,623	57.9	299,221	42.1	137.6
2006	454,760	58.2	326,410	41.8	139.3
2007	490,607	57.6	361,628	42.4	135.7

※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부록 III-2〉 성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성별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가입자 비율)

국민연금 여성 가입비율(%) = (여성가입자 수/18-60세 서울시여성전체인구) × 100  
 국민연금 남성 가입비율(%) = (남성가입자 수/18-60세 서울시남성전체인구) × 100

National pension coverage rate by sex(%) =  
 (No. of women(men) insureds of national pension/Aged 18-60 total no. of insureds of national pension) × 100

표 3-4 서울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가입자 현황					수급자 현황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1	3 650 644	1 092 160	29.9	2 558 484	70.1	144 782	55 455	38.3	89 327	61.7
2002	4 904 782	1 609 675	32.8	3 295 107	67.2	155 436	57 415	36.9	98 021	63.1
2003	4 952 511	1 708 480	34.5	3 244 031	65.5	172 727	62 042	35.9	110 681	64.1
2004	5 077 027	1 847 347	36.4	3 229 680	63.6	263 215	96 423	36.6	166 792	63.4
2005	5 121 899	1 900 583	37.1	3 221 316	62.9	313 981	117 666	37.5	196 315	62.5
2006	5 293 899	2 015 058	38.1	3 278 841	61.9	362 014	136 980	37.8	225 034	62.2
2007	5 448 053	2 127 916	39.1	3 320 137	60.9	418 668	158 339	37.8	260 329	62.2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표 3-5 18세-60세 서울시 남녀 전체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여성			남성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18-60세 인구	가입자 수	가입비율
2005	3,510,656	1,900,583	54.1	3,499,518	3,221,316	92.1
2006	3,522,063	2,015,058	57.2	3,502,500	3,278,841	93.6
2007	3,523,016	2,127,916	60.4	3,501,321	3,320,137	94.8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시 주민등록통계 재구성

〈부록 III-3〉 성별 60세이상 노인 취업률(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60\text{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률} = \frac{\text{60세 이상 여성노인 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전체 여성 취업자 수}} \times 100$$

$$60\text{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률} = \frac{\text{60세 이상 남성노인 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전체 남성 취업자 수}} \times 100$$

$$\text{Employment rate of aged 60 or over by sex} = \frac{\text{No. of employed women(men)aged 60 over}}{\text{total No. of employed women(men) aged 15 or over}} \times 100$$

【 표 3-6 】 서울시 성별 60세 이상 노인 취업률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여성	15-59세	1,857(94.2)	1,917(94.0)	1,940(93.8)	1,935(92.6)	1,951(92.6)
	60이상	115(5.8)	122(6.0)	129(6.2)	145(7.4)	156(7.4)
남성	15-59세	2,585(93.0)	2,576(92.3)	2,591(91.8)	2,572(91.4)	2,571(90.7)
	60이상	195(7.0)	215(7.7)	232(8.2)	243(8.6)	263(9.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1-2007)

〈부록 III-4〉 성별 장애인 등록률(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여성 장애인 등록 비율(%) = (여성 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여성 전체 인구 수) × 100  
 남성 장애인 등록 비율(%) = (남성 장애인 등록 수 / 서울시 남성 전체 인구 수) × 100

Rate of disabled registrants by sex(%) =  
 (No. of registered disabled women(men)/total No. of population in Seoul) × 100

표 3-7 서울시 장애유형 및 성별 등록 장애인 수 추이

(단위 : 명, %)

	전체(100.0)	여성	남성
2001	188,660	58,215(30.9)	130,445(69.1)
2002	213,121	68,181(32.0)	144,940(68.0)
2003	239,647	79,624(33.2)	160,023(66.8)
2004	267,365	92,465(34.6)	174,900(65.4)
2005	297,087	107,007(36.0)	190,080(64.0)
2006	324,560	121,856(37.5)	202,704(62.5)
2007	344,087	132,399(38.5)	211,688(61.5)

※ 자료 : 서울시 복지국 내부자료

표 3-8 서울시 성별 전체인구대비 장애인구수 및 비율

(단위 : 명,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여 성	전체인구	5,155,458	5,135,690	5,143,274	5,159,095	5,173,266	5,210,721	5,129,522
	장애인구	58,215	68,187	79,624	92,465	107,007	121,856	132,399
	장애비율	1.1	1.3	1.6	1.8	2.1	2.3	2.6
남 성	전체인구	5,175,786	5,144,833	5,133,694	5,128,752	5,123,738	5,145,481	5,063,188
	장애인구	130,445	144,940	160,023	174,900	190,080	202,704	211,888
	장애비율	2.5	2.8	3.1	3.4	3.7	4.0	4.2

※ 자료 : 서울특별시 복지국, 「주민등록인구통계」(2001-2007) 재구성.

## 〈부록 IV〉 여성의 사회문화권 확대

### 〈부록 IV-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률(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여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남성비율(%)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Ability to use internet by sex(%) =  
 Percentage of female(male) internet liter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eoul Survey

표 4-1 서울시 성별, 연령대별 인터넷 사용 빈도

(단위 : %)

	쓸 줄 앎(2007년, 사용 함)		쓸 줄 모름(2007년, 사용안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5 전체	71.2	80.0	28.8	20.0
2006 전체	68.0	77.8	32.0	22.2
2007 전체	65.0	75.5	35.0	24.5
10대	98.6	98.8	1.4	1.2
20대	97.8	98.3	2.2	1.7
30대	91.2	96.2	8.8	3.8
40대	67.4	82.9	32.6	17.1
50대	39.4	60.5	60.6	39.5
60대+	9.7	24.8	90.3	75.2

※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부록 IV-2〉 성별 도시 안전도(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여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남성이 지각하는 서울의 도시안전도 : 서울서베이 결과에 따름

Security about city life by sex(%) =  
 Percentage of female security city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eoul Survey

표 4-2 서울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정도

(단위 : %)

	두렵다	약간 두렵다		보통	별로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두렵다	약간 두렵다		별로 두렵지 않다	전혀 두렵지 않다		
〈2005〉								
여성	61.9	18.5	43.4	24.2	11.7	2.1	13.8	
남성	35.2	7.4	27.8	32.3	25.7	6.7	32.4	
〈2006〉								
여성	58.8	17.1	41.7	24.8	12.2	4.2	16.4	
남성	33.1	6.4	26.6	30.5	26.0	10.4	36.4	
〈2007〉								
여성	58.7	17.2	41.5	22.3	15.0	4.0	19.0	
남성	35.8	7.5	28.3	28.3	25.9	10.2	36.1	
여성	10대	65.4	24.1	41.3	19.6	10.7	4.2	14.9
	20대	66.1	22.7	43.4	19.0	11.8	3.1	14.9
	30대	64.7	19.0	45.7	20.0	12.5	2.7	15.2
	40대	60.5	17.5	43.0	22.0	14.4	3.1	17.5
	50대	56.1	14.2	41.9	23.0	17.0	4.0	21.0
	60대+	41.8	9.3	32.5	29.0	21.7	7.4	29.1
남성	10대	35.4	9.6	25.8	27.3	24.1	13.3	37.4
	20대	31.1	6.5	24.6	28.2	29.0	11.7	40.7
	30대	36.9	7.1	29.8	29.3	24.8	9.0	33.8
	40대	38.2	8.0	30.2	28.1	25.5	8.2	33.7
	50대	37.8	8.0	29.8	26.4	25.6	10.2	35.8
	60대+	33.0	6.4	26.6	29.7	26.1	11.3	37.4

※ 주 : 1) 10점 만점으로 측정함. 무응답 제외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표 4-3 서울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정도

(단위 : %)

	불안하다			보통			불안하지 않다 (“안전하다”)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별로 불안하지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2005〉								
여성	62.6	20.4	42.2	21.8	12.9	2.6	15.5	
남성	34.3	7.8	26.5	30.7	27.3	7.6	34.8	
〈2006〉								
여성	57.5	17.5	40.0	23.6	14.1	4.8	18.9	
남성	31.2	6.2	25.0	29.0	27.6	12.2	39.8	
〈2007〉								
여성	61.0	18.6	42.4	21.7	13.8	3.5	17.3	
남성	35.2	7.8	27.4	28.2	26.9	9.7	36.6	
여성	10대	69.4	25.4	44.0	16.0	11.0	3.5	14.5
	20대	68.5	23.9	44.6	17.4	11.6	2.6	14.2
	30대	67.5	22.7	44.8	19.1	11.4	2.0	13.4
	40대	63.1	18.8	44.3	21.5	12.7	2.8	15.5
	50대	57.2	14.3	42.9	23.6	15.8	3.4	19.2
	60대+	43.5	9.6	33.9	29.9	19.7	7.0	26.7
	남성	10대	34.2	7.8	26.4	28.0	25.3	12.5
20대		29.8	6.8	23.0	28.9	30.0	11.4	41.4
30대		36.6	8.2	28.4	28.5	26.1	8.8	34.9
40대		37.5	8.7	28.8	27.9	26.5	8.2	34.7
50대		38.1	8.3	29.8	25.0	27.7	9.2	36.9
60대+		32.8	6.4	26.4	30.7	25.7	10.9	36.6

※ 주 : 1) 10점 만점으로 측정함. 무응답 제외  
자료 : 서울시, 「서울서베이」, 각년도

### 〈부록 IV-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

#### (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여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좋은 남성 비율(%)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름

Personal subjective-assessment of health by sex(%) =  
 Rate of women(men) whose subjective assessment of health conditions is goo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표 4-5 서울시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단위: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3〉							
서울시	44.6	8.4	36.2	40.8	14.6	12.6	2.0
여성	38.4	6.1	32.3	43.5	18.1	15.7	2.4
남성	51.1	10.8	40.4	37.9	11.0	9.3	1.7
〈2006〉							
서울시	46.1	8.4	37.7	40.4	13.5	11.3	2.2
여성	41.2	6.4	34.8	42.7	16.1	13.6	2.5
남성	51.3	10.6	40.8	37.9	10.7	8.8	1.9
15~19세	70.8	19.2	51.6	26.5	2.7	2.7	-
20~29세	61.4	14.3	47.0	34.1	4.5	4.1	0.4
30~39세	53.0	8.2	44.8	40.8	6.2	5.7	0.5
40~49세	41.0	5.9	35.1	47.5	11.5	10.4	1.1
50~59세	31.9	3.9	28.0	46.2	22.0	18.7	3.3
60세+	23.0	3.1	19.9	39.7	37.3	28.2	9.1
65세+	19.1	2.4	16.6	37.5	43.5	32.3	11.2
초졸이하	19.0	2.8	16.2	40.7	40.3	30.1	10.1
중졸	45.6	10.0	35.6	37.9	16.5	14.1	2.4
고졸	46.3	8.7	37.6	42.8	10.9	9.5	1.4
대졸이상	55.2	9.3	45.9	38.4	6.4	5.9	0.5

※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년도

〈부록 IV-4〉 성별 건강검진률(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여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여성의 수 / 검진대상 여성의 수) × 100  
 남성 건강검진률(%) = (수검한 남성의 수 / 검진대상 남성의 수) × 100

Rate of physical examination by sex(%) =  
 (No. of women(men) who takes medical check-ups)/(No. of women(men) subject to a  
 medical check-ups) × 100

표 4-6 서울시 성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명, %)

		1차 검진 + 2차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05	여성	1,254,319	533,849	42.6
	남성	1,509,466	743,779	49.3
2006	여성	1,352,414	519,252	38.4
	남성	1,640,160	779,876	47.5
2007	여성	1,568,579	786,697	50.2
	남성	1,798,718	969,330	53.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팀 내부자료

〈부록 IV-5〉 성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

<p>성폭력 검거건수 = 서울지방경찰청 검거 결과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관련 시설 수 = 현 시설 수 × (100,000/ 서울시 전체 인구)</p>
<p>No. of arrest sexual violence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eoul Provincial Police Agency Arrest                  No. of sexual violence care facilities(the population of 100,000) =                  no. of current facilities × (100,000/ population of Seoul)</p>

표 4-7 서울시 강간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수,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2,070	2,007	2,201
2007	2,086	2,005	2,229
2008	1,459	1,389	1,501

※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내부자료

표 4-8 서울시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

(단위 :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호시설	2	2	3	3	3	3	3
상담소	6	8	9	9	9	9	10
계	8	10	12	12	12	12	13

※ 자료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부록 IV-6〉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관련 시설 수

(No. of arrest domestic violence &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가정폭력 검거건수 = 서울지방경찰청 검거 결과  
 (인구 10만 명 당)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 현 시설 수 × (100,000 / 서울시 전체 인구)

No. of domestic violence care facilities (the populations of 100,000) =  
 No. of current facilities × (100,000/ total population of Seoul)

표 4-9 서울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

(단위 : 건수, 명)

구 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3,262	3,262	3,808
2007	3,182	3,182	3,742
2008	2,157	2,157	2,586

※ 주 :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 된 건수만 파악이 되므로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동일함.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표 4-10 서울시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시설 수 및 상담소 수

(단위: 개소)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보호시설	6	7	8	8	11	11	12
상담소	5	6	6	6	6	6	7
계	11	13	14	14	17	17	19

※ 자료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부록 V〉 여성의 대표성 제고

### 〈부록 V-1〉 성별 광역의회 의원 비율(Rate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여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광역 및 기초의회 남성의원 비율(%) = (광역의회 남성의원 수/광역의회 전체의원 수) × 100

Rate of Legislators in Board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No. of female(male) legislators in broad unit of local assembly)/(total No. of legislators in broad unit of local assembly) × 100

### 〈부록 V-2〉 성별 기초의회 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여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광역 및 기초의회 남성의원 비율(%) =  
 (기초의회 남성의원 수/기초의회 전체의원 수) × 100

Rate of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by sex(%) =  
 (No. of female(male)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total No. of legislators in basic unit of local assembly) × 100

■ 표 5-1 ■ 서울시 광역 및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단위 : 명, %)

	광역의원			기초의원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의원 수	여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제1대(1995. 6)	147	14	9.5	806	35	4.3
제2대(1998. 6)	104	11	10.6	520	26	5.0
제3대(2002. 6)	102	8	7.8	513	29	5.7
제4대(2006. 5)	106	13	12.3	419	82	19.6
비례대표	10	6	60.0	53	49	92.5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록 V-3〉 성별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Rate of goernment employees of GR5 or higher by sex)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서울시전체여성공무원 수) × 100  
 5급 이상 남성공무원 비율(%) = (5급 이상 남성공무원 수/서울시전체남성공무원 수) × 100

Rate of government employees of GR 5 or higher by sex(%) =  
 (No. of female(male) government employees at Grade 5 or higher)/ (Total no. of government female employees) × 100

표 5-2 서울시 성별, 직급별 공무원 수

(단위 : 명, %)

	(합계 100%)	공무원 수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5급 이상						6급 이하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1	전체 (43,157 / 100.0)	2,166	6	19	36	326	1,779	24,576	5,412	9,340	7,483	2,341	11,099		5,316	
	여성 (9,322 /100.0)	91 (1.0)	0	0	1	20	70	6,664	544	2,290	2,752	1,078	2,530		37	
	남성 (33,835 /100.0)	2,075 (6.1)	6	19	35	306	1,709	17,912	4,868	7,050	4,731	1,263	8,569		5,279	
2002	전체 (42,591 / 100.0)	2,200	5	21	38	334	1,802	24,298	5,379	9,444	7,339	2,136	10,539		5,554	
	여성 (9,508 /100.0)	95 (1.0)	0	0	1	20	74	6,763	555	2,410	2,748	1,050	2,459		191	
	남성 (33,083 /100.0)	2,105 (6.4)	5	21	37	314	1,728	17,535	4,824	7,034	4,591	1,086	8,080		5,363	
2003	전체 (42,547 / 100.0)	2,313	5	18	46	342	1,902	24,553	5,724	10,780	6,230	1,819	10,282	-	5,399	
	여성 (9,887 /100.0)	116 (1.2)	0	0	2	21	93	7,133	706	2,654	2,798	975	2,431	-	207	
	남성 (32,660 /100.0)	2,197 (6.7)	5	18	44	321	1,809	17,420	5,018	8,126	3,432	844	7,851	-	5,192	

		공무원 수 (일반직)											기능 직	정 무 직	별 정 직	계약 직
		5급 이상						6급 이하								
	(합계 100%)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2004	전체 (42,688 / 100.0)	2,270	5	14	42	320	1,889	24,891	5,784	11,110	5,957	2,040	10,109	-	5,418	
	여성 (10,340 /100.0)	125 (1.2)	0	0	2	20	103	7,586	751	2,853	2,779	1,203	2,388	-	241	
	남성 (32,348 /100.0)	2,145 (6.6)	5	14	40	300	1,786	17,305	5,033	8,257	3,178	837	7,721	-	5,177	
2005	전체 (46,036 / 100.0)	2,621	5	17	52	356	2,191	26,630	6,705	11,803	5,368	2,754	11,341	-	5,444	
	여성 (11,748 /100.0)	253 (2.2)	1	1	3	23	225	8,846	1,056	3,364	2,766	1,650	2,385	-	264	
	남성 (34,288 /100.0)	2,368 (6.9)	4	16	49	333	1,966	17,784	5,649	8,439	2,602	1,094	8,956	-	5,180	
2006	전체 (40,793 / 100.0)	2,677	5	19	51	357	2,245	27,060	6,904	11,982	5,118	3,056	11,056	-	-	
	여성 (12,186 /100.0)	274 (2.2)	1	1	-	22	250	9,541	1,156	3,728	2,749	1,908	2,371	-	-	
	남성 (28,607 /100.0)	2,403 (8.4)	4	18	51	335	1,995	17,519	5,748	8,254	2,369	1,148	8,685	-	-	
2007	전체 (41,713 / 100.0)	2,609	4	15	61	393	2,136	26,792	6,896	11,948	5,141	2,807	10,743	27	458	1,084
	여성 (13,326 /100.0)	171 (1.3)	-	-	-	27	144	9,978	1,223	4,075	2,881	1,799	2,402	1	208	566
	남성 (28,387 /100.0)	2,438 (8.6)	4	15	61	366	1,992	16,814	5,673	7,873	2,260	1,008	8,341	26	250	518

※ 주 : 일반직+별정직+계약직(개방형직위 포함)  
자료 : 서울시, 인력운영과 내부자료

〈부록 V-4〉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비율

(Rate of wo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주요부서 여성 비율(%) =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수/전체 여성공무원 수) × 100  
 주요부서 남성 비율(%) = (주요부서 남성공무원 수/전체 남성공무원 수) × 100

Rate of women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  
 (No.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major departments/ total No. of female public officials)  
 × 100

표 5-3 서울시 전체 남녀 공무원 수 대비 성별 주요부서 공무원 배치현황

(단위 : 명, %)

		2005	2006	2007
서울시 전체 공무원 수	여성	11,748(100.0)	12,186(100.0)	13,326(100.0)
	남성	34,288(100.0)	28,607(100.0)	28,387(100.0)
주요부서 합계	여성	1,133(9.6)	1,634(13.4)	1,952(14.6)
	남성	3,173(9.3)	4,166(14.6)	4,485(15.8)
기획	여성	29	51	74
	남성	101	130	121
예산	여성	21	42	60
	남성	89	130	111
인사	여성	41	72	90
	남성	116	243	162
감사	여성	40	59	122
	남성	244	341	481
실국주무과	여성	949	1,410	1,606
	남성	2,485	3,322	3,610

※ 자료 : 서울시, 인력운영과

Ⅱ 2007 서울시 성인지 지표 비교(측정치) Ⅱ

(단위 : %, 시, 분, 개소)

영역	세부지표별 전략목표	2006 ( ' 05년 측정치)		2007 ( ' 06년 측정치)		2008 ( ' 07년 측정치)		
		여	남	여	남	여	남	
여성의 경제 세력화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52.0	75.3	51.9	74.7	51.5	73.9	
	2. 성별 대졸자 취업률	66.7	71.9	66.4	73.4	65.0	72.9	
	3. 성별 평균임금비	64.1		64.1		64.7		
	4. 성별 관리직 비율	22.0	35.0	22.8	35.3	24.3	36.2	
	5. 성별 정규직 비율	36.0	55.0	38.9	55.6	42.1	57.7	
	6. 성별 사업체 대표자 비율	31.0	69.0	31.0	69.0	31.4	68.6	
	7. 성별 노동조합원 구성비	17.4	82.6	17.6	82.4	19.4	80.6	
	8. 성별 주택보유율	2000		2005				
	12.3	87.7	15.1	84.9				
일·가족 양립 지원 강화	1.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비율	27.1		26.5		25.7		
	2. 영아 보육시설 이용율	24.7		24.2		29.3		
	3. 성별 부부 가사노동시간	1999		2004				
		4:55	2:06	4:47	2:11			
	4. 성별 육아휴직자 비율	98.6	1.4	98.7	1.3	98.6	1.4	
소수자 여성 사회 통합	1. 성별빈곤선이하가구주비율	57.4	42.6	57.3	42.7	56.5	43.5	
	2.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비율	54.1	75.3	57.2	74.8	60.4	75.1	
	3. 성별 60세이상 노인취업률	6.2	8.2	7.4	8.6	7.4	9.3	
	4. 성별 장애인 등록률	36.0	64.0	37.5	62.5	38.5	61.5	
여성의 사회권 확보	1. 성별 인터넷 활용 가능율	71.2	80.0	68.0	77.8	65.0	75.5	
	2. 성별 도시 안전도	14.7	33.6	17.7	38.1	18.2	36.4	
	3.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평가	2003		2006				
		38.4	51.1	41.2	51.3			
	4. 성별 건강검진율	42.6	49.3	38.4	47.5	50.2	53.9	
	5. 성폭력 관련 시설 수	12		12		13		
	6. 가정폭력 관련 시설 수	17		17		19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성별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비율	광역	2002(3대)		2006(4대)			
			7.8	92.2	12.3	87.7		
		기초	2002(3대)		2006(4대)			
			5.7	94.3	19.6	80.4		
	2. 성별 5급 이상 공무원비율	2.2	6.9	2.2	8.4	1.3	8.6	
3. 성별 주요부서별 공무원 배치 비율	9.6	9.3	13.4	14.6	14.6	15.8		

2008-정책개발-017

## 서울시 성인지지도(GSI) 평가 및 지수개발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조영미 장미혜 김유나 임현지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Design\_MK커뮤니케이션 <sup>02. 919. 9481</sup>